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서곶편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서곶편



목차



발간사	008
서문	010
<hr/>	
I. 서곶의 연혁과 동명 유래	022
<hr/>	
II. 석남동	040
1. 석남동의 연혁과 지명	042
2. 석남동의 문화유산	046
① 조서강 묘	046
② 석남사 터	049
③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050
④ 석남동 유적	050
⑤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 복식	055
<hr/>	
III. 백석동	058
1. 백석동의 연혁과 지명	060
2. 백석동의 문화유산	063
① 백석동 유물산포지	063
② 한들유적	065
③ 백석동 광산김씨 묘역	066
④ 도마매 포구 터	067
⑤ 수도권 매립지	068



IV. 검암동	070
1. 검암동의 연혁과 지명	072
2. 검암동의 문화유산	075
① 허암 정희량 유허지	075
② 검암동 유물산포지 1,2	077
③ 송운 묘	078
④ 발아장터	078
⑤ 장모루	082
⑥ 보명학교 터	083
⑦ 검바위	084
⑧ 검암동 상수리 나무	085
<hr/>	
V. 시천동	088
1. 시천동의 연혁과 지명	090
2. 시천동의 문화유산	092
① 시천동 유물산포지 1	092
② 시천동 유물산포지 2	092
③ 시천동 진주 류씨 묘역	093
④ 시천동 원주 원씨 묘역	094
⑤ 시천동 느티나무	095
⑥ 황해사(黃海社) 간척지	096
⑦ 한들방죽	098
⑧ 구슬원 터(球瑟院 址)	102
⑨ 유희강 생가 터	104
⑩ 시천동 류씨 과거 답안지(시권)	105
⑪ 단묘어제	114



VI. 청라동 116

1. 청라동의 연혁과 지명 118
2. 청라동의 문화유산 120
 - ① 청라도 유물산포지 120
 - ② 청라도 지식묘 121
 - ③ 장금도 패총 122
 - ④ 청라도 패총 123
 - ⑤ 소문침도 패총 124

VII. 공촌동 126

1. 공촌동의 연혁과 지명 128
2. 공촌동의 문화유산 132
 - ① 십즙 신도비(沈楫 神道碑) 132
 - ② 중심성(衆心城) 터 135
 - ③ 청송심씨 묘역 138
 - ④ 만일사 터 141
 - ⑤ 응방지 142

VIII. 가좌동 144

1. 가좌동의 연혁과 지명 146
2. 가좌동의 문화유산 149
 - ① 경인고속도로 기공지 149
 - ② 관해각(청송심씨 고택) 153
 - ③ 선문염송설화 권 1-30 154
 - ④ 명상박물관 157

IX. 경서동 160

1. 경서동의 연혁과 지명 162
2. 경서동의 문화유산 163
 - ① 검암 플라시아 유적 164
 - ② 경서동 유적 167
 - ③ 경서동 녹청자 요지 (국가사적) 169
 - ④ 류사눌묘(柳思訥墓,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호) 172
 - ⑤ 경서동 앞말 유물산포지(경서동 유물산포지 1) 173
 - ⑥ 경서동 아랫말 유물산포지(경서동 유물산포지 2) 174
 - ⑦ 경서동 금산 유물산포지(경서동 유물산포지 3) 175
 - ⑧ 금산 봉수대터(金山 烽燧臺址) 176
 - ⑨ 경서동 52 유물산포지 (경서동 유물산포지 4) 177
 - ⑩ 경서동 425 유물산포지(경서동 유물산포지 5) 177
 - ⑪ 경서동 김해김씨 묘역 178
 - ⑫ 김포군항 터(沈浦軍港址) 178





X. 원창동 182

1. 원창동의 연혁과 지명 184

2. 원창동의 문화유산 186

① 환자곶 유물산포지 186

② 원창동 유물산포지 187

③ 원창동 도당재 유물산포지 188

④ 사창지(社倉址) 188

⑤ 원창동 밀성박씨(密城朴氏) 묘역 190

⑥ 원창포대지 191

XI. 연희동 192

1. 연희동의 연혁과 지명 194

2. 연희동의 문화유산 195

① 연희동 유적 196

② 연희진 터 200

③ 연희포대 터 204

XII. 심곡동 208

1. 심곡동의 연혁과 지명 210

2. 심곡동의 문화유산 211

① 숙의문씨 묘역 212

② 심곡동 전주이씨 묘역 214

③ 심곡동 은행나무 217



XIII. 가정동 220

1. 가정동의 연혁과 지명 222

2. 가정동의 문화유산 224

① 가정동 유적 I 224

② 가정동 유적 II 225

③ 가정동 구석기 유물 227

④ 가정동 유물산포지 229

⑤ 가정포대지 229

⑥ 축곶봉수 230

⑦ 가정지(佳亭址) 232

XIV. 신현동 234

1. 신현동의 연혁과 지명 236

2. 신현동의 문화유산 237

① 신현동 회화나무 238





안녕하세요. 인천서구문화원장 정군섭입니다.

우리 인천 서구는 경서동 녹청자 요지, 조서강 묘, 허암 유허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경서동 가마터에서 발견된 녹청자는 한 때 고려 청자의 초기 모습으로 여겨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인천 서구의 귀중한 문화유산들 중에서 유형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것들을 동별로 분류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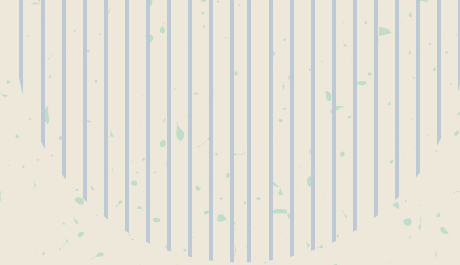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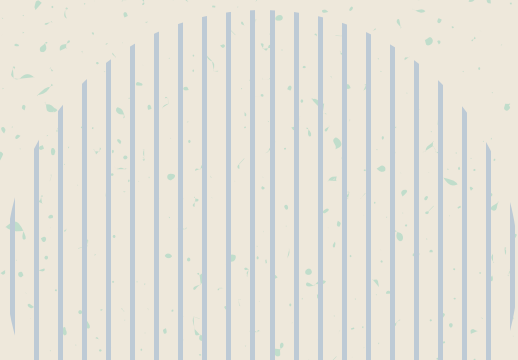
인천 서구의 유형문화유산 중에는 인천시나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지역에서 잘 알려진 문화유산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번 향토지에서는 이러한 비지정문화유산 중에서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미래유산으로 간주하여 향토지에 녹여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인천 서구의 문화유산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서곶지역의 유형문화유산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발굴이 끝난 고고학 유적과 사라진 일부 문화유산도 미래유산이라는 범주 속에 녹여내어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형문화유산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각 동에 대한 설명을 붙여서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각 동별로 미래유산을 포함한 문화유산을 찾아서 기록하고자 하였으나 동별에 따라 문화유산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일부는 조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며, 추후 유형문화유산 관련 내용으로 향토지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발간하는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서곶편』을 통해서 인천 서구 서곶지역의 각 동에 존재하는 유형문화유산들을 인천 서구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문



국가유산과 미래유산, 그리고 서구

손민환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Ⅱ 국가유산청 출범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년 5월 17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이라는 새 이름으로 출범되었다.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한 정책 환경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사용되었던 ‘문화재’라는 표현은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사용되어 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는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물과 무형문화재까지 포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제사회에서는 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협약」(헤이그협약), 1970년 「문화재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 협약」에서 문화재 개념으로 ‘Property’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1972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이 채택되면서 이후부터는 ‘Heritage’, 즉 ‘유산’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일본 등에서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문화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023년 국제 기준인 유산 개념을 우리나라 법 체계에 도입하여 ‘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 5. 17.]을 공포하고 2024년 공식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국가유산’은 국가 차원에서 귀중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

산이라는 의미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정하였다.

위 법령의 시행은 국가 문화재가 아닌 지방 문화재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은 국가가 지정 또는 등록하는 유산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등록하는 유산도 포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정유산으로 변경되었고, 시도등록문화재는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Ⅱ 문화유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국가유산법의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이라는 새 용어가 발표되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이전부터 ‘유산’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법령에서는 여전히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도 광범위하게 쓰였다. 이때 문화유산은 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유산법 시행으로 문화유산은 국가유산 범주 중 하나로 편제되어 법적 용어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유산법 시행 이전의 문화유산 정의와 국가유산법에 명시된 문화유산 정의에 대해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법 시행 이전 문화유산에 대한 사전적 정의,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네스코의 정의, 국가유산법에 명시된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사전적 정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최근 바뀌었다. 기존에는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

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가, 2024년 5월 14일에 ‘다음 세대에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문화적 소산’으로 정의를 바꾸었다.¹⁾

두산백과사전에서는 문화유산을 ‘인간이 자연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서서히 생활형성을 진전시킬 경우, 후대에 계승·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전대의 문화적 소산’이라 정의하며, ‘의식주·생산·분배·교환 또는 신앙·윤리·예술·학술·정치 등에 걸친 생활형성의 양식과 내용이 대상이 된다.’고 부기하였다.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문화유산을 ‘대상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이라고 정의하며, 세부 내용에 최근 시행된 국가유산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³⁾

이처럼 사전적인 의미에서 문화유산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과 두산백과사전처럼 ‘다음 세대’, ‘계승’, ‘후대’, ‘상속’ 등 지속성을 중시한 정의가 있는가 하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처럼 ‘가치의 독특성’과 ‘주체성의 보존’을 중시한 정의도 있다.

▶ 유네스코의 정의

유네스코에서 사용하는 ‘유산’ 개념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유네스코는 유산을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세 가지로 구분하

고, 세계유산을 다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한다.

유네스코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화유산을 정의한다.

- **기념물:** 기념물, 건축물, 기념 조각 및 회화, 고고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가운데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 **건조물군:** 독립되었거나 또는 이어져있는 구조물들로서 역사상, 미술품 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 **유적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

반면에 자연유산은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미관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과학, 보존, 자연미의 시각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주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로 정의한다.⁴⁾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이다.

▶ 국가유산기본법의 정의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구분한다. 동법 제3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 참고(<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4년 8월 15일).

2) 두산백과 두피디아 누리집 참고 (<https://www.doopedia.co.kr>, 검색일 2024년 8월 15일).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참고(<https://encykorea.aks.ac.kr>, 검색일 2024년 8월 15일).

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누리집 참고 (<https://heritage.unesco.or.kr>, 검색일 2024년 8월 15일).

과 같이 정의하였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리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문화유산은 형태가 있는, 이른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연과 관련 있는 문화적 유산을 자연유산,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무형유산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존재 형태에 기인한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Ⅱ 미래유산 개념의 등장과 확산

미래유산은 유산 중 미래 세대가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유산을 의미한다. 시기적으로 문화유산이 주로 과거에 생성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하고 있는 유산을 뜻한다면, 미래유산은 근현대에 만들어진 것을 대상으로 한다.

▶ 서울 미래유산

미래유산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 미래유산을 통하여 소유자에게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알려주고, 스스로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일에 자긍심을 부여하여 주는 정책을 추진해왔다.⁵⁾

서울 미래유산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 미래유산은 ‘서울 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 세대에게 전할 100년 후의 보물’이다.⁶⁾

서울 미래유산 누리집에서는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안내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 이해하는 데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서울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하는 작품 또는 서울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념물, ▲특색 있는 장소 또는 경관으로서 서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서울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등이다. 미래유산의 유형은 ▲문화적 인공물, ▲문화적 행위·이야기, ▲문화적 인공물 또는 문화적 행위·이야기 등이 만들어지는 배경 등이다. 미래유산 선정절차로는 ①미래유산 제안 → ②미래유산의 발굴과 신청 → ③기초현황 조사 → ④미래유산 선정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시행 2023. 7. 24.]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5) 서울특별시, 『서울 미래유산 기본계획 2023』, 2018, 7쪽.

6) 서울미래유산 누리집 참고(<https://futureheritage.seoul.go.kr>).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⁷⁾ 단순히 미래유산 선정에 그치지 않고, 보존과 관리, 활용까지 규정한 것이다.

▶ 인천 미래유산과 인천형 지역유산

인천광역시시는 미래유산 추진에 후발주자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시는 2018년부터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산을 '인천 미래유산'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 발표하였으나,⁸⁾ 즉각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1년에 들어 인천광역시시는 서울 사례를 참고해 미래유산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 하였다.⁹⁾ 하지만 인천광역시시는 2022년 하반기가 돼서야 '인천형 미래유산제도' 관련 용역을 시작하였고,¹⁰⁾ 2024년 4월 '인천형 지역유산 관리 및 활용 방안' 설명회를 거치면서 '인천 미래유산'에서 '인천형 지역유산'(가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¹¹⁾ 아직까지 조례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2022년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시행 2022.11.14.]를 제정한 바 있다. 조례 제정 목적과 내용은 서울 미래유산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인천광역시 내 기초지방단체에서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어 옹진군에서도 '옹진군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시행 2024.3.13.]를 제정하였다.

7)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시행 2023. 7. 24.] 제1조(목적).

8) 「인천 문화유산 보호 '미래유산 프로젝트」, 『경인일보』, 2017년 11월 3일, 1면.

9) 「인천시, 근대건축물 보존·활용 '미래유산' 제도 도입한다」, 『인천일보』, 2021년 1월 8일, 3면.

10) 「인천시, 시민들 자발적 참여 토대 '인천형 미래유산 용역' 시작」, 『인천일보』, 2022년 8월 5일, 3면.

11) 「인천시, 지역유산 관리방안 재정비 나서」, 『중부일보』, 2024년 4월 8일.

▶ 타지역 미래유산

서울특별시에서 미래유산에 대한 정책을 추진한 이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래유산에 관한 정책이 이어졌다. 기존 문화재 틀 안에서 포함되지 못했던 한계를 미래유산 제도를 통하여 발전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공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별 미래유산 도입으로 이어졌다. 전주시(2017), 파주시(2018), 부산광역시(2019), 전라남도(2020), 광주시(2021), 공주시(2021), 청주시(2021), 대전광역시(2021), 의정부시(2021), 동해시(2021), 원주시(2022) 등에서 미래유산 제도를 도입하였다. 미래유산시민연대 주최로 미래유산을 도입한 광주시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미래유산을 도입하고 조례를 제정하였다.

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의하는 미래유산은 서울특별시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시기적으로는 근현대, 장소성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 형태로는 유무형의 것이고, 다수 시민의 체험과 기억을 중요시했으며, 문화재 보호법과 향토문화유산 조례에 지정된 것은 제외하였다.

Ⅱ 인천 서구와 미래유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래유산 제도에 호응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서구는 아직까지 미래유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시행 2023.11.6.]가 제정되었으나, 향토문화유산과 미래유산은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

2024년 5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에서 ‘인천 서구 미래유산(가칭)’을 시민들에게 추천 받고자 공고를 올렸다. 이 공고에 따르면 인천 서구 미래유산(가칭)은 ‘인천 서구 지역의 공통 기억이 서려 있고 중요한 인물·사건·경관·삶 등을 느낄 수 있는 유·무형의 유산 중 미래의 인천 서구에 전해줄 가치가 있는 것(지정 문화재 제외)’으로 정의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¹²⁾

지정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유·무형문화재 가운데 비교적 오래되었으면서 인천 서구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억과 감성을 가진 서구의 유산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도시·건축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2. 특색 있는 장소 또는 경관으로서 인천 서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인천 서구를 소재로 하거나 배경으로 하는 작품 혹은 인천 서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념물.
4. 인천 서구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것.
5. 인천 서구의 발자취를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인천 서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
6. 지역의 명물로서 미래세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서구 미래유산(가칭) 제도가 서구 지역민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은 물론, 미래유산의 정의와 선정 과정, 향후 활용 등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서구에서 미래유산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구의 급속한 변화를 대표적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서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으

로 인한 급속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에 장소 소멸로 인한 근현대 사람들의 기억조차 보존되지 못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래유산의 특징이 ‘공유성’, ‘비전문성’, ‘미래지향성’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서구 사람들의 공통의 기억과 공동체적 시선, 사회적·정서적 합의의 유·무형 유산, 미래에 전달할 가치 등을 간직한 서구의 유산들이 상당하다.

그동안 미래유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성과와 더불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민사회 인식 부족(미래유산을 기존 문화재와 동일한 시각으로 인식), 획일적인 미래유산 활용(기존 문화재 활용 방식을 답습한 획일적인 문화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지원정책의 부족(세분화되고 있는 미래유산에 대한 맞춤형 정책 대안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¹³⁾

앞으로 서구에서 미래유산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미래유산의 발굴과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한다. 보존을 넘어 한 지역의 미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유산에 대한 인식 강화와 창의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천편일률적인 활용 방안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12) 「인천 서구 미래유산(가칭) 추천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누리집 공고문 참고 (게시일 2024년 5월 8일).

13) 민현석, 「서울 미래유산의 향후 발전방향」, 2023 부산미래유산포럼, 2023년 10월 19일, 13쪽.

I.



I. 서곶의 연혁과 동명 유래

1. 서곶의 연혁

오늘날의 인천광역시 서구는 한반도의 서북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북쪽은 김포시, 동쪽으로는 계양구와 부평구, 남쪽으로는 동구 및 미추홀구와 맞닿아 있다. 서구의 산지는 북부의 가현산(215m)과 계양산(395m)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천마산(226m), 원적산(165m), 만월산(187m), 금마산(201m), 거마산(209m), 소래산(299m)의 산들이 남북이 연결되면서 인천의 북동부에 산지를 이루고 있다. 서구지역은 산줄기가 남북방향으로 뻗어있고, 서해안에 위치하여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며 겨울에는 한랭하고, 여름에는 다습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¹⁴⁾

서구 지역은 삼국시대에 주부토군(主夫吐郡)의 일부와 김포현(黔浦縣)의 일부였으며, 통일신라 시기인 757년에 통일한 신라의 강역을 9주 5소경, 121군, 290현으로 편제되어, 서구지역의 주부토군은 장제군(長堤郡), 김포현은 김포현(金浦縣)으로 개편되었으나, 면리의 편제가 기록되어 전해져있지 않고, 군과 현의 이름만 전해져왔다.¹⁵⁾

고려시기에는 995년(성종 14)에 장제군을 수주(樹州)로 승격되어 수주지주사를 두었고, 1150년(의종 4)시기에는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1215년(고종 2)시기에는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 1308년(충렬왕 34)에는 길주목(吉州牧)으로, 1310년(충선왕 2) 부평부(富平府)로 개편되어져 왔

14)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북서곶-』, 2017 18~19쪽

15)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북서곶-』, 2017 25쪽

다.¹⁶⁾ 하지만 방면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고구려 장수왕 58년(470년) 김포반도에 주부토군을 설치했다는 근거를 두고 모든 사기(史記)나 읍지(邑誌)에 주부토군을 처음적고 있다는 점과 또 지명의 석자로 쓰인 것은 고구려외에 없다는 점이 주목될만 하다. 그리고 주부토군과 장제의 읍소재지가 불확실하다.¹⁷⁾

다만 옛 문헌에 따르면 「징매이고개 옛 고을터는 계양산 북쪽기슭의 만일사 아래 평탄한 곳에 있어 백성들이 2백호가 살았다」라고 하였는데 이곳이 지금이 공촌동(公村洞)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공촌동의 소지명이 고련이이고 고련이는 고현리(古縣里)의 변음인 것으로 보기 때 문이다. 또한 고련이는 지금의 마을이 아니고 동쪽 산위로 올라가 편편한 넓은 지대로 현재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¹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에 따르면 구슬원(球瑟院)과 발아장(發阿場)이 재부북이리(在府北二里)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검암동(黔岩洞) 동쪽 끝의 산골마을을 ‘바름이마을’이라 불러왔는데 이것은 발아장터마을의 변음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남쪽 고개를 발아현(發阿峴)이라 하였기에 이곳이 옛 발아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조선시대에는 부평도호부 석곶면(石串面)과 모월곶면(毛月串面)이 통합해서 형성된 서곶(西串)과 검단(黔丹)이라 불리던 지역이 합쳐져서 오늘날의 서구로 되었던 것이다. 서곶의 지명이 지어진 경위는 부평에서 서쪽 해안에 길게 뻗어있어 서곶이라 지어졌는데 이는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우리말의 ‘곶’ 또는 ‘고

16)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알기쉬운 인천 서구의 역사와 문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28쪽

17) 인천광역시, 『仁川의 地名由來』, 1998, 361쪽

18) 각주 3과 같은 쪽

19) 인천광역시, 『仁川의 地名由來』, 1998, 361~362쪽



그림1 『대동여지도』의 서구(검단, 모월곶, 석곶)

지’는 바다나 호수로 길게 뻗은 육지의 끝을 말하고 있다.²⁰⁾ 서쪽지역은 오늘날 인천의 중심가에서 보면 서쪽이 아니라 북쪽에 위치하므로 이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는데, 이는 서곶이 원래 부평군에 속해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부평중심으로 보았을 때 서쪽이기 때문이다. 서곶의 지형은 바다를 끼고 남과 북으로 길게 넓힌 형식이며, 이러한 이유는 계양산(桂陽山)과 천마산(鐵馬山), 원적산맥(元積山脈)이 바다를 향해 퍼져 내리면서 남북으로 이어져있기 때문이다. 고려시기에는 서곶의 북쪽은 황어현(黃魚縣)에 속했고, 남쪽은 부평현(富平縣)에 속했다.

서구지역에 관한 조선시대의 문헌을 보면 먼저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석곶면에는 8개 마을이 있으며, 관문에서 서남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326호 내에 남자가 565명, 여자가 646명이다. 모월곶면은 8개의 마을이 있으며, 관문에서 서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357호 내에 남자가 571명, 여자가 683명이다.”로 나타나있다. 조선후기 작성된 『호구총수』에

의하면 모월곶면은 공촌리(公村里), 연희리(連喜里), 고잔리(古棧里), 검암리(黔巖里), 시천리(始川里), 백석리(白石里), 청라도(靑羅島), 난지도(蘭芝島)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석곶면에는 봉현리(蜂峴里), 가정리(佳亭里), 신현리(新峴里), 포촌리(浦村里), 번작리(番作里), 가좌리(加佐里), 울도(栗島)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구는 모월곶면은 354호 인구 1,196구, 석곶면은 305호 1,015구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 물론 호구총수에 기록된 인구가 정확한 인구는 아니지만 기록상으로는 2,211명이 사는 지역이었다. 오늘날의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원창동, 가좌동을 포함하는 남쪽이 석곶면이었고,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을 포함하는 북쪽이 모월곶면이었다. 이 두면은 승학현(昇鶴峴)을 경계로 구분 되었고, 모월곶면 지역을 ‘북서곶(北西串)’, 석곶면 지역을 ‘남서곶(南西串)’으로 불리었다.²¹⁾

모월곶이라는 지명은 이곳의 지형이 마치 반달처럼 생겼는데, 작은 메기 터럭같이 뻗어 내려서 ‘터럭이 많은 반달과 같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석곶이라는 지명은 속칭 돌곶이 한자어로 표기한 것으로서 이곳의 지형이 길게 뻗어 있으며 돌이 많다고 해서 해당 지명이 붙여졌다. 돌곶이 정확히 어디인가는 아직 추정들이 많으나 대체로 가좌동, 원창동, 가정동의 해안이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²²⁾

1910년 경술국치 이후 4년이 지난 1914년에 일제는 군과 면의 수를 대폭 감축하면서 통폐합을 실시하는 지방제도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서곶도 개편에 들어갔다. 이때 부천이 생기게 되는데 부천이라는 지명은 인천 일부와 부평을 통합해 만든 지역으로 조합식으로 만든 지명이었다. 부평군 군내면 부평리(현재의 계산동)에 있던 부평군 청사를 폐지하고 옛 인천읍의 소재지(현재의 관교동)에 부천군청을 개설하면서, 서곶을

20)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사 상』,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83쪽

21)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남서곶-』, 2018 18-20쪽

22)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사 상』,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84쪽

다스리던 행정력이 부평을 떠나 원인천으로 가게 되었다. 먼저 부천군 서곶면과 모월곶면은 부천군 서곶면으로 통합되고 사정리, 신현리, 포리, 고작리, 고잔리, 가좌리, 백석리, 검암리, 시천리, 공천리, 연희리, 심곡리 등 모두 12개 리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먼저 모월곶면과 석곶면이 서곶면으로 통합된 이후 1940년 4월 1일에 서곶지역은 일제의 인천부 고시 제32호 <인천출장소규정>에 따라 서곶출장소를 설치하여 광복 이후까지 이어졌다. 일제시기에는 인천부의 면제가 폐지되어 있어서 서곶면이라는 이름을 잃었다. 다만 서곶지역이 인천의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처리를 위해 서곶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이때 서곶의 이름은 일본식지명으로 변환되었다가, 1946년 1월에 우리말 지명으로 복귀하게 되었다.²³⁾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이 끝난 후 시(市)를 부(府)로 바꾸면서, 미군정 시기에 서곶출장소가 서곶지청으로 불리던 것을 다시 서곶출장소로 지명이 바뀌었다. 서곶출장소의 사무실은 옛 연희진 자리에 있던 면사무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후 1968년 1월 1일부터 인천시에 구제(區制)가 실시되게 되면서 서곶출장소는 북구에 소속되었으나, 동(洞)의 변동 없이 구획을 조정하는 것에 그쳤다. 연희진 자리에 있던 서곶출장소가 심곡동과 연희동 사이에 있는 305번 국도 근방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후 이곳은 서구청이 되었다가, 서구보건소로 바뀌었다.²⁴⁾

1981년부터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통령령 제1236호에 의하여 출장소가 폐지되고 북구가 북구와 서구로 분구되면서 서구는 12개 법정동에 10개의 행정동으로 개칭되었다. 검암, 경서, 연희, 가정, 신현, 석남 1,2동, 원창, 가좌 1,2,3동을 관할하였는데, 이때부터 서곶이라는 지명은 공식적인 문서상의 지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23) 인천광역시,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300~301쪽

24) 인천광역시, 『仁川의 地名由來』, 1998, 361~362쪽

1995년 1월 1일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승격되면서 2월 28일 구 조례 제342호로 인해 법정동 간의 경계가 조정되어 연희동 일부가 심곡동으로, 공촌동 일부가 연희동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3월 1일 김포군 검단면이 편입되어 서구 검단동이 되었다. 1998년 10월 29일 구 조례 제489호로 행정동 간 통폐합에 의해 검암동과 경서동을 합하여 검암경서동, 신현동과 원창동을 합하여 신현원창동이 되어 14동이 되었고, 이후 2000년에 들어와서 청라국제도시가 17.17㎢ 즉 539만평 부지에 조성되어 인구가 9만명 증가하였다. 또한 주택지구도 개선되어 마전지구, 원당지구,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등이 개발되었고 경인아라뱃길이 개설되어 서구 경서동과 서울 강서구 개화동간의 수로가 열리게 되었다.

2010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9호에 의해 청라동이 신설되었고, 2012년 7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156호에 의해서 청라동이 청라1동(연희동과 원창동 일부)과 청라2동(경서동과 원창동 일부)으로 분동되었다. 그리고 2016년에 청라대로 서쪽 지역을 청라 3동으로 분동하면서 청라동은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는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검단동 등 총 23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서곶의 동명 유래

1) 행정동

① 검암경서동(黔巖景西洞)

검암경서동은 행정동이며 검암동(黔岩洞), 경서동(景西洞), 시천동(始川洞), 백석동(白石洞) 등 4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암동은 일제강점기에 과생정(瓜生町)이라는 지명으로 있다가, 광복 이후 1946년에 검암동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검암이라는 이름은 이 일대의 산들에 ‘검은색 바위(黑石)’가 많았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서동은 일제강점기에 이가정(李家町)이라는 지명으로 불리다가 광복 후 1946년 경서동으로 지명이 변동되었다. 경서라는 지명은 동쪽에 위치한 ‘경명치’의 서쪽 마을이라는 뜻으로 전해진다. 1988년 서구가 북구로부터 분구가 되면서 서구 검암동·경서동으로 편제되고, 이후 1998년에 두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인 검암경서동이 설치되었다.²⁵⁾

② 연희동(連喜洞)²⁶⁾

연희동(連喜洞)은 연희동, 심곡동(深谷洞), 공촌동(公村洞) 등 3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거 부평부 모월곶면(毛月串面) 소속으로서 서곶의 중심지였고, 연일과 샛말 등 두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반도처럼 뻗어나간 곳이 있는데 그 곳을 ‘용의머리’라고 불리었다. 그곳에도 작은 취락마을이 있었는데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세 곳을 합해 연희리(連喜理)로 통합해 명명하였다.

부군면통폐합이 실시된 1914년에 부천군 서곶면 소속으로 면소재지가 되었고 1940년 서곶면 전체가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일본지명인 정상정

(井上町)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었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정부가 일본식 지명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면서 46년 1월 1일에 연희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다.

③ 청라동²⁷⁾

청라동은 청라도(靑羅島)와 그 주변 매립지에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청라도는 해발 67.7m, 둘레 5km, 면적 0.79㎢로서 서곶의 섬들 중 가장 큰 섬이다. 섬에는 푸른 Ningul 관목들이 많아 경서동과 연희동 주민들은 파란 섬이라 뜻하는 ‘파렴’이라고 불렀다. 청라동은 1980년 동아건설주식회사가 공유수면매립에 착공하여 1991년 1월 8일 준공하였다. 이후 동아 매립지로 불리다가, 2003년 8월 11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로 불리었다. 이후 서구 조례에 따라 청라동이 신설되면서 2012년 7월 9일 서구 조례 제1156호로 청라동이 청라 1동과 2동으로 분동되었다. 2016년에는 청라대로 서쪽지역을 청라 3동으로 또다시 분동하면서 현재는 청라 1, 2, 3동이 존재한다.

④ 가정1동·가정2동·가정3동

가정동(佳亭洞)은 법정동이며, 현재는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동은 천마산(鐵馬山) 옆을 넘어가는 승학현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호구조사 사료인 『호구총수』에는 석곶면 가정리로 기록되어 있으며, 가정마을과 산밑마을, 그리고 봉화촌이라는 세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1914년 4월 1일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부천군이 신설되었는데, 당시 부평부 모월곶면과 석조면이 서곶면 하나로 묶임으로서 가정리도 부천군 서곶면으로 편입되었다. 동년 11월 20일에 부천군이 리명을 개정

25) 인천광역시,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309~311쪽

26)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북서곶-』, 2017 26~27쪽

27)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북서곶-』, 2017 27쪽

할 때, 가정(佳丁)에서 가정(佳亭)으로 바뀌었다. 1940년 4월 1일에 일제는 한국식 동리 지명을 일본식 정명(町名)으로 바꾸면서 가정리는 지요다쵸(千代田町)가 되었다가, 1945년 광복이후 일본식 지명을 삭제하는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면서 1946년 1월 1일 가정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²⁸⁾

⑤ 신현원창동

신현동(新峴洞)과 원창동(元倉洞)은 각각 법정동이고 신현원창동이라는 행정동으로 통합되었다. 신현동은 조선후기 사료인 『호구총수』에 지금과 같은 신현리(新峴里)로 등재되어 있다. 석남동과 가정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지난날에는 새오개마을, 큰말, 작은말로 나뉘어져 있었다. 위에 가정동처럼 지난날의 석곶면이며, 신현원창동 역시 법정동 변천과정은 서구의 다른 마을들과 비슷하다.

신현동은 이곳의 옛 우리말 이름 새고개를 한자로 바꾼 것으로서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이 새고개의 뜻을 살려 신현리라 하였고, 부군면 통합당시 부천군이 신설되자 부평부 모월곶면과 석곶면이 서곶면 하나로 통합되었기에, 신현리도 부천군 서곶면 소속이 되었다. 다른 마을과 같이 1940년 일제의 일본식지명 변경으로 인하여 겐무쵸(玄武町)가 되었다가 광복이후 일본식지명 해체에 의하여 1946년 1월 1일에 신현동의 이름을 되찾았다.

원창동은 조선시대에 산남지방에서 배편으로 올라온 세곡을 하역하고 보관해온 마을로서 『호구총수』에는 포리(浦里)로 등재되어 있다. 포리의 관할로 울도, 장구도, 매섬등이 포리의 관할로 들어왔었는데, 일제시기 부군면 통합에 의거하여 서곶면 소속이 되었다. 특이한 것은 1917년 6월 17일 연안 섬들의 관할이 바뀌게 되면서 고잔리 소속이었던 세어도(細於島)

28)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남서곶-』, 2018 24쪽

가 포리에 소속되었고, 그때 까지 포리 소속이던 장구도와 매섬은 영종면(永宗面)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1940년에 서곶면 전체가 인천부에 통합되자 포리도 통합되었고 당시 일본식 지명은 히사미즈쵸(久水町)였다. 위의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1946년 1월 1일에 원창동이라는 이름을 찾게 되었다.²⁹⁾

⑥ 석남1동·석남2동·석남3동

석남동(石南洞)은 법정동이며 석남1·2·3동이라는 행정동을 포함하고 있다. 원적산 기슭에 발달한 마을로서 과거 부평부 석곶면 소속으로 번작리(番作里), 고잔(高棧) 우투물 박가되말 등 4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마을과 마찬가지로 일제시기 부천군이 신설될 때 부천군 서곶면 소속이 되었다가, 1914년 11월 20일에 번작리와 고잔리를 묶어 고작리로 통합하였다. 이후 일본식지명을 가지게 되면서 고작리를 무라가미쵸(村上將町)로 바꿨다가 광복 이후 지명을 되찾았다.

1955년 10월 1일로 신현동과 가정동을 통합해 가정·신현·석남동이라고 부르다가 77년 10월에 석남동 하나로 명칭을 바꿨다. 이후 인구가 증가하자 1985년 11월 15일에 법정동인 석남동은 1동과 2동으로 분동되고 다시 1992년 9월 5일에 석남3동이 분동되었다.³⁰⁾

⑦ 가좌1동·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가좌동은 법정동이며 가좌 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이라는 행정동으로 나뉜다. 가좌동은 과거 부평부 석곶면소속이었다. 조선후기에 작성된 『호구총수』에 의하면 가좌리(加佐里)로 등재되어 있다. 그곳에는 가재울과 건지(乾池)골, 감중절리(甘中節里)와 능안말 등의 마을로 이루어

29)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남서곶-』, 2018 25~26쪽

30)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남서곶-』, 2018 26~27쪽

져 있었다. 섬으로는 소염도(素鹽島)가 있었다.

일제시기 1914년 부군면 통폐합으로 인해 부천군이 신설될 때 서곶면 소속으로 되었으며 같은 년도인 1914년 11월 20일에 부천군이 구역 및 동리명을 재조정할 때, 장갈말(현재의 산곡동 소속마을) 일부를 포함시키고 가재리와 감중절리를 통합해 가좌리로 만들었다. 1940년 4월 1일에 서곶면 전체가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가좌리도 인천의 일부가 되었다. 일제는 일본식 지명으로 가좌리를 아사마쵸(淺間町)가 되었다. 이는 대한제국 말기에 한반도 침탈시 자주 이용된 군함 아사마마루(淺間丸)를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다. 이후 다른마을과 같이 광복이후 한국식 지명을 찾게 되면서 가좌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1981년 인천이 직할시가 되면서 구제를 실시하면서 북구 가좌동으로 행정동이 변경되었다가 북구의 인구 증가로 인해 85년에 가좌동을 분동하면서 가좌1동과 2동으로 분동하고, 87년에 가좌2동에서 3동으로 1990년에 4동으로 분리하면서 현재 모습인 4개의 행정동을 가지게 되었다.³¹⁾

2) 법정동

① 시천동

시천동은 부평부 황어현(黃魚縣)에 속하였다가 모월곶면 관할로 편입하였다. 시시내 마을과 점말, 안골, 윗말 등 크고 작은 네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부평부가 관리 동리 명을 확정할 때 가장 큰 취락의 뜻을 살려 시천동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일제는 1940년에 행정구역을 개혁할 때 시천동을 춘일정(春日町)이라 명명하였다. 이는 러일전쟁 때 침

31)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남서곶-』, 2018 27~28쪽

몰한 러시아 군함 바리야크를 격파한 하루히마루(春日丸)을 따와 지은 것이다.³²⁾

② 검암동

흔히 검바위로 불렸으며, 바로피, 검바위, 간재울 등 세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조선후기 발간된 『호구총수』에 따르면 검암리(黔巖里)로 등재되어 있다. 이는 현재의 검암(黔岩)과 다른 한자로 기재 되어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암(巖)’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뜻에 큰차이는 없다. 사실상 지명의 유래에서 ‘검바위’라는 우리말 지명의 훈차(訓借)이기 때문이다. 1940년 검암리는 과생정(瓜生町)으로 바뀌었다가 광복 후 검암동이 되었다.³³⁾

③ 경서동

모월곶면 고잔리 지역이었다. 지형이 곶으로 되어 있어서 고잔 또는 축이 많아서 축데이고잔이라 불리었다. 1946년 광복 이후 경서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의미는 경명현의 서쪽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앞바다에 난지도(蘭之島), 세어도(細於島) 등의 섬이 있다. 이들 섬들은 썰물 때는 걸어서 왕래할 수 있다. 과거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육지의 세 마을을 고잔리를 통합해 명명하였다. 그리고 세 섬은 고잔리와 한 마을로 취급하였다.³⁴⁾

④ 심곡동

심곡동은 천마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부평부 모월곶면

32)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북서곶-』, 2017 32~33쪽

33)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북서곶-』, 2017 34~36쪽

34)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북서곶-』, 2017 37~39쪽

소속으로 기피울과 양가말(梁家村)이라는 두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심곡은 옛 이름 ‘기피울’을 한자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유래는 가정동에서 승학현을 넘어와 연희동으로 가는 서곶로 국도 위쪽은 천마산 골짜기로 깊숙이 뻗어있기 때문에 기피울이라고 유래된 것이다. 일제는 1940년에 심곡리를 일진정(日進町)로 변경하였다가 1945년 광복 이후 심곡동으로 다시 지명을 되찾았다.³⁵⁾

⑤ 공촌동

공촌동의 옛 지명은 고현리(古縣里)였다. 조선후기 만들어진 『호구총수』에 공촌리(公村里)로 기록되어 있다. 부평부 모월곶면 소속으로 본마울과 갈피(葛山)마을, 과기평마을 등 3곳의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다. 과기평은 공촌, 경서, 검암동의 경계가 합쳐진 곳이다.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고현리 본마을과 갈피와 과기평 일부를 합해 전래된 법정리 그대로 공촌리로 명명하였다가, 일제말기 1940년에 공촌리는 흑전정(黑田町)으로 바뀌었다. 이후 1946년에 공촌동으로 바뀌었다.³⁶⁾

⑥ 가정동

천마산의 옆을 넘어가는 승학현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위치부터 가좌동까지가 남서곶으로 지날날의 부평부 석곶면이라 할 수 있다. 소속 마을로는 가정마을과 산밀마을 그리고 봉화촌이라는 세 개의 자연 취락이 있었으며,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세곳을 합해 가정리(佳亭里)로 명명하였으나, 이후 가정리(佳亭里)로 바뀌었다.³⁷⁾

35)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북서곶-』, 2017 43~44쪽

36)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북서곶-』, 2017 45~56쪽

37)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남서곶-』, 2018 29~30쪽

⑦ 신현동

석남동과 가정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서 과거에는 새오개 마을, 큰말, 작은말로 나뉘어져 있었다. 신현동 역시 법정동 변천 과정은 이웃 마을들과 비슷하다. 특히 새오개 마을은 현재의 신현(新峴)마을은 연세가 많은 신 분들은 새오개라고 부르고 있다. 하역과 보관을 하기위해 항구를 만들고 큰 창고를 지었는데, 이것을 서울까지 육로로 실어가기 위해 새로 길을 닦으면서 고갯길을 만들고 그 고갯길을 ‘새고개’라 부르기 시작했다.³⁸⁾

⑧ 원창동

조선 시대에 삼남지방에서 배편으로 올라온 세곡을 하역하고 보관하던 해역마을로서, 지명의 유래는 이곳에 세곡창고가 있었다는 것에서 유래했다. 조선시대 갯말과 환자곶 등 두 개의 자연 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두 마을을 합해 포리(浦里)라고 불렀으며, 해안 바로 앞에 있는 울도와 장구도, 매섬 등이 포리의 관할로 들어오게 되었다.³⁹⁾

⑨ 석남동

원적산 기슭에 발달한 마을로서 석곶면의 남쪽이라는 의미였는데 지난 날 번작리, 고잔, 우물, 박가피말 등 네 개의 자연 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번작리는 포구였으며 군대와 기지와 초소가 있어서 근무 당번을 정해 번을 켜던 터라 그런 지명이 붙었으며, 고잔은 곶의 안쪽을 일컫는 지명이다. 우물은 발음되는 대로 ‘오두물’이라고도 불렀는데, 과거 이 마을에 우물이 있었고 옷이 오른 사람이 와서 몸을 씻으면 잘 낫는다 하여 붙여졌다.⁴⁰⁾

38)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남서곶-』, 2018 31쪽

39)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남서곶-』, 2018 32~34쪽

40)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남서곶-』, 2018 35쪽

⑩ 가좌동

서구의 남쪽 끝으로서 가재울과 건지(乾池)골, 감중절리(甘中節里) 그리고 능안말이라는 세 개의 자연취락이 있었다. 그리고 썰물 때 마다 길이 열리는 앞바다에 소염도(素鹽島)라는 작은 섬이 있었다. 1911년 일제강점기 시기에 작성된 『조선지리지』에는 한자가 오늘날처럼 ‘가좌동(佳佐洞)’으로 살리고 자연취락명으로 상촌(上村), 하촌(下村), 행화리(杏花里), 감동사리(甘同寺里), 능내리(陵內里) 등이 올라와 있다. ‘가좌’라는 지명은 우리말 ‘가재울’의 음차 기록으로서 가좌리가 민물 갑각류 가재에서 유리한다는 설이 전승되어 왔다. 이곳에는 가좌천이 있어 가재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져 왔다. 가좌천 아래쪽에 연못이 있었는데 시내의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아 마른 연못이 되어서 건지(乾池)라고 불렀다.

⑪ 백석동

백석동은 인천 서구의 법정동이며, 현재 행정동은 경암경서동이지만 경인이라뻬길 이북이라 검단과 한 생활권으로 묶인다. 검단지역이 김포군에 속했을때는 인천시와 김포군의 경계였고, 지난날 부평부 모월곶면 소속으로 한들, 독정리, 거월리, 넘말, 도마매, 소탕이, 종알마을 등의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다. 마을의 유래를 보면 한들은 흰 돌에서 나온 것으로 한돌, 한돌, 한들 등으로도 불린다. ‘흰돌’이라는 지명은 마을의 뒷산인 한피산에 흰 돌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독정이는 독재이 또는 음달마을로 불리는데 이곳은 백석동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서 남북으로 관통하는 서곶로가 있고, 왼쪽은 쓰레기매립지며 오른쪽은 천주교 묘지와 서울방향 매립지 도로로 가는 고가도로와 만나는 지역이다. 이곳은 광산 김씨(光山金氏) 선대에서 관찰사를 지낸 사람이 이주해 와서 자기의 아호 독정(篤亭)이라는 정자를 지은뒤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II.



II. 석남동

1. 석남동의 연혁과 지명

석남동(石南洞)은 옛 부평도호부 석곶면 고잔리(高棧里)와 번작리(番作里)지역이다. 현재 석남동은 법정동으로서 석남 1·2·3동의 행정동을 가지고 있다. 원적산(元積山) 기슭에 발달한 마을로서 석남동은 예전에 부평부 석곶면 소속의 번작리(番作里), 고잔(高棧), 우물, 박가피말 등 4개의 마을이 존재하였다. 조선 후기 간행된 『호구총수』에는 번작리만 기록되어 있다. 호구총수 이전의 『영조실록』을 보면 즉위 21년(1745) 수도 한양의 방위를 위해 부평 석곶의 방위를 힘써야 한다고 논의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뒤 석곶에 방어진이 설치되었다. 이곳에 전설처럼 남은 지명 번작이도 그 수군기지와 관련하여 생긴지명이며, 생돌꽃이가 어디인가는 한 장소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1914년에 번작리와 고잔리는 부천군 서곶면 소속이 되었으며, 부군면 통폐합으로 인하여 동년 11월 20일에 번작리와 고잔리가 고잔리로 통합되었다. 이는 고잔(高棧)과 번작(番作)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붙인 이름이다.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에 편입되며 일본식 정명인 촌상장정(村上將町)이 되었다. 즉 무라가미조라 불리었다.¹⁾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정부는 일본식 지명을 없애는 일에 나섰다. 1946년 1월 1일 석남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1955년 10월 1일 신현동과 가정동을 통합하여 가정·신현·석남동이라 불리었다. 1977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1075호에 의하여 석남동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

1) 인천광역시, 『仁川의 地名由來』, 1998, 370쪽

었다. 이후 1983년 10월 1일에 시 조례 제1649호에 의하여 석남동과 가신동으로 분동되었다. 후에 인구가 증가하자 1985년 11월 15일 법정동인 석남동은 1동과 2동으로 분동되고, 다시 1992년 9월 5일 구(區) 조례 제264호로 1개 행정동이 증설되어 14개 동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석남동은 석남1동에서 다시 석남3동이 분동되었다.²⁾

따라서 석남 1동은 1985년 11월 15일에 분동하면서 생겼다. 석남 1동은 동남아파트와 동아아파트등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신석초등학교가 존재한다. 석남2동은 1985년 분동되면서 생겼다. 석남3동은 위의 석남1동과 석남2동의 일부지역을 때서 분동된 곳으로 석남초등학교와 천마초등학교, 경인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다.³⁾ 과거 석남동은 제주고씨(濟州高氏)가 옛날부터 집단 거주 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없다.⁴⁾

석남동의 안의 내부 지명은 과거시대의 정책에 따라 생긴 이름들이 많다. 또한 마을의 지형지물과 연관된 지명유래등에 의해서 지어진 지명들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번작리 또는 번지리라 불리는 지명의 지역은 과거에 포구였다. 사람을 실어 나르기 보다는 인근 밭의 줄 인분을 실은 배가 자주 드나들었다. 군대의 기지와 초소가 있어 근무당번을 정해 번을 섰던 터라 지명이 붙었다.⁵⁾ 또한 ‘고잔’은 해변을 향해 쪽 뻗어간 지역을 말한다. 인천에도 현재 중구, 남구, 경서동, 그리고 서구까지 총 4곳이나 존재하였을 정도로 흔한 지명이다. 다만 석남동의 고잔의 특이점은 높을 고(高)자를 쓴다는 점이다.⁶⁾ 상엿독은 바다가 보이는 둔덕에 주로 우물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던 상엿집이 있었는데, 석남동 사람들이 무서워

2) 인천광역시, 『仁川의 地名由來』, 1998, 402쪽

3) 인천광역시, 『仁川의 地名由來』, 1998, 371쪽

4) 각주 29과 같은쪽

5)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남서곶-』, 2018 35쪽

6) 각주 20과 같은쪽

하는 곳이다. 지명유래집에 따르면 1960년대에만 해도 어떤 청년이 머리를 산발한 여자귀신에게 홀려 그 곳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며칠동안 열병을 앓았다고 한다.⁷⁾ 구레방죽이라 부르는 제방은 바닷물을 막고 있어 꽤 넓은 무논지대를 형성한 지대이다. 현재 지금은 경인고속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방에는 화공단지가 들어서 있다. 경인고속도로의 가좌 인터체인지를 지날 때 화학냄새가 나는 곳을 말한다.

또한 옷우물은 석남동 북쪽의 마을로서, 과거 석남동 주민들은 ‘오두물’이라고도 불렀다. 과거 이곳에 우물이 있었는데, 옷이 오른 사람이 와서 몸을 씻으면 잘 낫는다 하여 붙여졌다. 옛날에는 계곡에 숲이 우거지고 맑은 샘물이 흘렀는데,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일러주는 지명유래라고 볼 수 있다. 작은 규모의 간장공장이 있었으며, 노송들이 키를 자랑하며 서 있었다.⁸⁾

현재 석남초등학교가 들어선 곳부터 거북시장의 북쪽 끝부분에서 고속도로와 연결된 신도로옆의 지금의 강남시장이라 부르는 곳까지가 옷우물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석남약수터가 위에서 언급한 물이 깨끗한 샘물이 흐르는 우물이 있던 곳이다.

박가외말은 석남동 동쪽 산 밑에 있었으며 ‘바그메’라고도 불렀다. 이곳에 박씨에 묘가 있어서 불렀다는 지명유래가 전해지고 있다. 허나 이곳의 주민들은 박씨보다는 배(裴)씨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과거 70~80년대 이곳에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검정다리마을은 큰길옆에 있으며 이곳은 일제때 청장년들에게 강제부역을 시켜만든 국방도로에 검정색 콜타르를 칠한 목제 육교 2개가 1960년대 초까지 있었다. 해당 육교 2곳에 가옥들이 들어서면서 그 마을들이 검정다리마을로 불렸다.⁹⁾

7) 각주 20과 같은쪽

8) 각주 20과 같은쪽

9)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남서곶-』, 2018 35~36쪽

독굴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곳은 옷우물 마을에서 원창동 방향으로 도당재산 밑의 골짜기를 바라보며 길이 형성되었다. 이 골짜기에서 독을 구웠다 하여 독굴이라 하였고, 여기에 주민들이 취락하게 되자 독굴마을이라 불렀다.¹⁰⁾

원적산은 마을의 동쪽을 감싸고 있는데 이 산은 북구 산곡동(山谷洞)에 닿아 있다. 석남동에서 오래 살아온 노인들은 천마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심곡동과 가정동에 닿아 있는 천마산의 한 지맥이어서 불리게 되었다. 산줄기는 옛 마장면과 석곶면을 경계한 산이고 지금 역시 부평구와 서구를 경계로 하고 있어 부평과 서곶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¹¹⁾

명각굴은 원적산에서 흐르는 숯가말내(炭釜川)가 옷우물 북쪽으로 흘러 긴 갯골을 형성하고 바다로 길게 휘어 흘러 들어갔는데 이 골짜기를 멧갯골(遠浦谷)이라 부른다. 여기에 집이 2~3채 있었는데 멧갯골이라 부르던 것이 명각굴로 변음이 된 것이다.¹²⁾

고작천(高作川), 앞내(前川)는 숯가마골에서 흘러내리는 개울이 우물 마을 앞을 지나므로 앞내(前川)이라 부른다. 이 개울을 고작리에 있는 개울이기 때문에 고작천으로 바뀌부르게 되었다.¹³⁾

둔전(屯田)들은 해변에 펼쳐진 들판이다. 지명으로 보아 군에 소속된 토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번지기라는 지명과 연계하면 옛날에 이곳이 상당한 규모의 군부대가 주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들판에는 윗방죽, 아랫방죽, 안방죽 등 세 개의 제방이 있었다.¹⁴⁾

10) 인천광역시, 『仁川의 地名由來』, 1998, 405쪽

11) 인천광역시, 『仁川의 地名由來』, 1998, 406쪽

12) 각주 38과 같은쪽

13) 각주 38과 같은쪽

14)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남서곶-』, 2018 36쪽

참고문헌

- 인천광역시, 『仁川의 地名由來』, 1998,
- 인천광역시,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남서곶-』,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8

2. 석남동의 문화유산



그림2 석남동 문화유산 분포

1) 조서강 묘

조선시대. 조서강 묘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재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119-2번지에 조성되어 있다. 조서강(1394~1444)은 조선초기의 문신으로서 자는 중례(中禮), 호는 경은(耕隱)이다. 그의 본관은 배천(白川)이다. 보리공신부흥군(輔理功臣復興君) 조득주(趙得珠)의 4대손으로 조선의 개국공신인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

事) 조반(趙胖)의 아들이다. 1414년(태종 14)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후 여러 요직을 거친 후 이조참판에 올랐다. 1431년(세종 13)에는 기주관(記注官)으로서 『태종실록(太宗實錄)』 편찬에 참여하였고, 이후 1433년 의금부 진무(義禁府鎭撫)와 우사간을 거쳐 1436년에는 좌사간에 임명되었다.¹⁵⁾ 1437년 10월에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12월에는 경상도 관찰사가 된 이후 1438년 형조참의, 1439년 우승지, 1441년에는 도승지를 거치고 사망 1년 이전인 1443년에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그가 세종의 총애와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사료 내의 기사에서도 느껴진다.



사진1 조서강 묘

“생각건대, 경(卿)은 성품이 단정하고 아담하며 풍자(風姿)가 맑고 순수하여 동량(棟樑)의 재목이며 호련(瑚璉)의 그릇으로서 학문은 서사(書史)를 통달하였고 지식은 고금을 관통하였도다. 일찍이 현과(賢科)에 올라 사림(詞林)에서 영탈(穎脫) 되었으며, 경제(經濟)를 온축(蘊蓄)

15)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사 상』,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481쪽

하여 모든 사업을 조치하였으되, 시행함에 불가함이 없었고 처리함이 정밀하였다. 미원(薇院)의 하탁(荷橐)으로 정쟁(廷爭)이 개절(愷切)하였고, 백부(柏府)의 아관(峨冠)으로 조정의 기강(紀綱)을 떨쳐 엄숙하게 하였도다. 추부(秋部)에 참의(參議)함에 공경히 형옥(刑獄)을 행하였고, 당음(棠陰)에서 선화(宣化)하매 소발(召茆)을 노래하였으니, 안팎으로 명성과 업적이 있었다. 내 마음에 가상하게 여겨 권주(眷注)하기를 더욱 두터이 하였고, 은대(銀臺)에 발탁되어 후설(喉舌)을 맡겼으며, 출납(出納)을 맡게 하고 조석(朝夕)으로 계옥(啓沃)하기를 다섯 해가 되었으되, 조금도 게으름이 없이 잘 그 직분을 다하므로, 더욱 더 비의(毗依)를 더하여 좋은 보필(輔弼)이 되기를 기대하였도다, 고굉(股肱)의 부탁과 공보(公輔)의 직책을 오직 경(卿)에게 의망(擬望)하니, 물의(物議)가 귀속(歸屬)하였었다. 비로소 병에 걸렸음을 듣고 생각에 곧 나을 것으로 여기어 내제(內劑)를 내려 주었고 양의(良醫)로써 진찰토록 하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여 완전하게 나을 것을 기대하고, 이에 품계(品階)를 높이 올려 전선(銓選)을 맡게 하였다. 그간에 조금 차도가 있어서 공사(公事)에 면강하기에, 이미 조섭이 잘 되어 거의 회복된 줄 알았더니, 이수(二壑)는 어찌하여 갑자기 하룻밤에 급했으며, 어찌하여 재주는 넉넉히 주고 도리어 나이는 인색하게 하였는고. 부음을 들은 후로 못내 측연(惻然)해 하노라. 현로(賢勞)를 생각하여 조홀(弔恤)을 갖추고, 이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한잔 술을 베푸니 영혼(英魂)이 어둡지 않거던 흠향[韻格]하기를 바라노라.”¹⁶⁾

세종은 조서강의 성품이 단정하고 순수하였고, 학문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그가 세종이 진행하였던 국가정책 사업에서도 큰 실력을 발휘했고, 세종은 그에 대한 신임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는

16) 『世宗實錄』 103권 세종 26년 3월 29일

조서강이 운명한 뒤 세종이 내리는 제문의 내용이다.

한편 다른 사료인 『부평읍지』에는 조서강이 이조참판을 지낸 이후 사직을 청했고, 아버지인 조반의 별업(別業)인 가정(佳亭)에 은거하였다. 그가 사직하여 이곳에 내려왔을 때 세종은 궁중 화공들을 보내어 가정의 모습을 그리게 하였고, 안평대군은 그린 제영시(題詠詩)를 모아 《석호가정별업도(石湖佳亭別業圖)》라는 서화집을 만들었다.

현재 조서강묘는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로 인해 조성된 공원 내에 존재하고 있다. 묘역의 입구는 현재 돌계단으로 이어져 관리되고 있다. 또한 그의 묘역은 호석을 두른 전방후원(前方後園) 형식의 봉분을 중심으로 조선 초기에 제작된 옥개석에 비신과 기단이 일체형을 이루고 있는 묘비(가로 46cm, 세로 126cm, 두께 16.6cm)와 문인석 1쌍이 배치되어 있다. 묘는 장방형 기대석으로 둘러져 있다. 비석의 후면에는 ‘가선대부이조참판 조공지묘(嘉善大夫吏曹參判趙公之墓)’라고 희미하게 남아있다. 해당 묘소는 석물과 분묘의 형태가 조선초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¹⁷⁾

2) 석남사 터

시대미상. 석남사 터는 석남초등학교 뒷면 약 100m 부근 뒷산에 존재하고 있다. 대한 불교 조계종 지장사 골목길을 지나 절골 3길의 석남동111번지 민가에서 뒷산으로 올라가면 터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는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민묘가 존재하고 있다.¹⁸⁾

과거 2004년의 조사에서는 석축이 확인된다고 하지만 현재는 그 석축을 확인할 수 없다. 아마도 토지의 주인이 경작을 하여 석축이 훼손되었거나 유실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해당 터가 사찰터로 알려져있으나 창

17)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사 상』,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481쪽

18) 개인 사유지이며, 과거의 연구조사와 많이 다른형태로 토지이용이 되고 있다.

건이나 폐사에 관한 기록은 없다.¹⁹⁾

3)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조선시대. 용수사 철조여래좌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51번안길 14-2번지에 위치한 석남동 용수사에 모셔져 있다. 해당 좌상은 2014년 4월 16일 부로 인천광역시문화유산(인천광역시 문화



사진2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유산 제26호)으로 등재되었다. 철조여래좌상은 상호가 원만하고 동체가 균정하며 특히 옷깃 등 의문에 조각이 장식된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양식 수법을 계승한 조선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철조여래좌상은 묘향선에서 모셨던 것이 용수사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²⁰⁾

4) 석남동 유적

조선시대로 추정. 인천 석남동 유적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03-13번지 일원으로 인천광역시 서북단에 위치한 서구의 남쪽에 위치한다.²¹⁾ 주변지역을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계양산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천마산과 원적산 등 남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적의 근방은 산지와 주택들이 다시 밀집해 있고, 서쪽 일대는 낮은 구릉을 절토 및 평탄화하여 공

장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간척 사업을 통해 대지를 조성한 후 택지를 개발하여 신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석남동 유적 주변의 문화재로는 조서강묘가 위치하고 있고 약 600m부근에는 신현동 회화나무(천연기념물 제315호)가 존재하고 있다.



사진3 석남동 유적 전경(출처: 한성문화재연구원, 『인천 석남동 유적』, 디자인 예담, 2021, 30쪽)

석남동 유적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시행하는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조사로 인해 발견된 유적이다. 해발 25m 내외의 낮은 구릉지로, 근래까지 밭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유적지의 면적은 2,335㎡이며 조선시대 주거지 1기, 분묘 7기, 현대의 교통호 1기, 시대미상의 수혈 유구 2기가 발굴되었다. 또한 분묘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백자와 관정이 다수 출토되었다. 석남동 유적에서 발견된 것은 주거지, 민묘, 교통호, 수혈이 발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발굴이 끝나고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1) 주거지

석남동 유적은 총 3개의 지대로 나뉘어 각각 다른 종류가 출토되었다. 그 중 주거지는 제1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조선시대 당시의 주거지로 평면 형태는 말각방형에 가깝고, 남동벽과 남벽에 원형의 수혈이 돌출된 형태이다. 내부 시설로는 소형 수혈 2기, 수혈 2기, 주혈 1기와 석렬이 확인되었다. 내부시설의 소공은 북서쪽 부근으로 치우쳐 조성되어 있으며, 그 중 1개는 북서쪽 모서리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평면 형태는 장타원형으로 내부에는 명갈색-암갈색사질점토 순으로 채워져 있었다. 규모는 14cm,

19)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寺址(폐사지) 현황조사보고서 上-서울, 인천, 경기북부』, 조계종출판사, 2010, 123쪽

20)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21) 한성문화재연구원, 『인천 석남동 유적』, 디자인 예담, 2021 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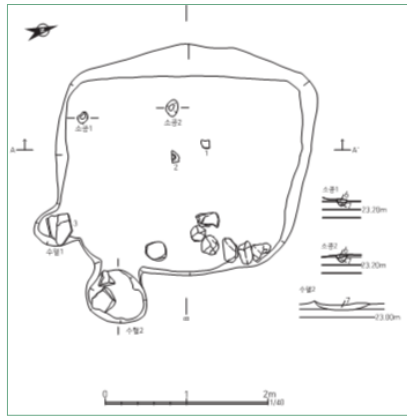


그림3 제1주거지 평면단면도 (출처: 한성문화재연구원, 『인천 석남동 유적』, 디자인 예답, 2021, 39쪽)

너비 13cm, 깊이 10cm 정도이며, 단면은 ‘U’자형태를 띠고 있다.²²⁾

수혈은 동벽과 남벽에 돌출되어 조성된 형태이고 평면은 원형에 가깝게 발견되었다. 수혈은 총 2개가 발견되었는데 그중 수혈1은 1개는 지금 50cm 정도이고 내부에서 암키와가 완형에 가까운 상태로 발견되었다. 수혈2는 지름 70cm이며 내부는 암황갈색사집점토로 채워져 있었다.²³⁾ 석렬은 주거지의 남쪽 벽면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으며 석재들의 크기는 대략 20~30cm이고 너비는 19~25cm이며 총 7매가 발견되었다.

주거지에서 발견된 유물은 도기 저부편, 백자 접시편, 암키와편이 발견되었다. 도기저부편은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되었고 색조는 외면은 암회청색, 기심은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석립이 소량 흡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저부는 평지이고 동체는 사선방향으로 올라가있다. 백자접시는 주거지 내부에서 출토되었고 태토는 백색으로 소량의 철분이 혼입되었으나, 비교적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은 청백색을 띠며 굽 안바

닥을 제외하고 전면에 사유하였으나 굽 주변으로 묻혀있었다. 암키와는 주거지 내부 수혈1에서 출토되었으며 하단부가 결실되었다. 색조는 명황색을 띠고 있으며 일부 암갈색도 나타난다.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도는 경질에 가까운 편이나 표면의 박리가 심하게 이루어 졌으며, 외면에는 특별히 문양을 타날하지 않고 물손질정면한 흔적만 확인되고 있다.²⁴⁾

(2) 분묘

석남동 유적에서 발견된 분묘의 종류는 토광묘, 회곽묘, 횡혈식 토광묘가 발견되었다. 토광묘는 평면형태 장방형이고, 1단 굴광으로 조성되었는데, 토층 양상이 ‘U’자형인 것으로 보아 내부 목관을 사용하였다. 분묘의 발견에서 가장많이 발견된건 토광묘이다.²⁵⁾

다만 석남동 유적의 특이점은 횡혈묘이다. 횡혈묘는 총 2기가 발견되었는데, 해발 19m 정도에 서로 5m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치되었으며, 매장주체부의 묘제는 토광묘이며, 하단부에 묘광과 비슷한 세장방형의 수혈이 확인되는데 매장주체부인 묘광과 터널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석남동 유적에서 확인된 횡혈묘는 수혈부의 하단(입구부분)에 바닥으로 내려가기 편하도록 계단식으로 조성되었다. 다른 유적에서는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경사도를 가지고 있지만, 석남동 유적과 같은 구조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목관을 안치한 후 흙을 채워 연도와 수혈부를 막아서 마무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봉토는 조성했을것으로 추정하지만, 조성시기의 선후관계를 밝힐수는 없다. 석남동 유적과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20여기밖에 보고된 사례가 없으며 이는 특이한 장법(葬法)이다.

부장시설로는 요갱과 감실이 확인되었고, 감실에서 백자 발, 백자 단지

22) 한성문화재연구원, 『인천 석남동 유적』, 디자인 예답, 2021 39~41쪽

23) 한성문화재연구원, 『인천 석남동 유적』, 디자인 예답, 2021 39쪽

24) 한성문화재연구원, 『인천 석남동 유적』, 디자인 예답, 2021 41쪽

25) 한성문화재연구원, 『인천 석남동 유적』, 디자인 예답, 2021 43쪽

가 출토되었다. 횡혈식 토광묘는 2기가 발견되었다. 횡혈식 토광묘는 사면 하단부에 폭이 비슷하거나 약간 좁은 장방형의 연도를 조성하고 토광묘 하단벽을 굴토하여 통로를 조성하였다. 토광묘에서 목관의 흔적과 관정, 보강토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1차적으로 목관을 사용하여 시신을 안치하고 이후 배우자를 합장하기 위해 토광묘 하단부를 뚫고 시산만 넣어 합장한 것으로 보인다. 출토된 유물로는 관정이 발견되었다. 종합적인 분묘의 형태를 볼 때 조성 시기는 15세기 초에서 16세기로 판단된다.²⁶⁾

(3) 교통호

교통호는 1기가 발견되었으며, 교통호는 해발 15~18m사이에 등고선 방향으로 조성되었다. 길이는 약 47m, 폭은 144cm이며, 단면은 'U'자 형태이다. 인위적으로 등고선 방향에 맞춰 조성된 점과 주변에서 탄피가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교통호로 추정된다.²⁷⁾

(4) 수혈유구

수혈은 2기가 발견되었으며, 해발 24~25m 사이에 풍화암반층을 굴토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단면은 'U'자 형태이다. 수혈유구 1호는 풍화암반으로 이루어진 기반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으며, 유구의 동벽은 근래에 조성된 교란구덩이로 인하여 훼손되었다.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규모는 잔존 최대 지름 72cm, 깊이 58cm 정도이다. 수혈유구 2호는 1호와 같이 풍화암반으로 이루어진 기반토를 굴착하고 조성되었으며 지금 55cm, 깊이 20cm 정도이다.²⁸⁾

종합적으로 석남동 유적에서 발견된 유구는 조선시대 주거지 1기, 민묘

7기, 현대 교통호 1기 수혈 2기 등 총 1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백자발, 접시, 단지, 암키와, 도기편, 관정등이 있다. 석남동 유적의 특이점은 횡혈식 토광묘로서 횡혈식 토광묘는 매장주체부와 연두부로 구분되는데, 층위에서 선후 관계가 확인됨으로서 유구의 성격에 대해 정밀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 유적지이다. 또한 매장주체부를 조성하여 무덤으로 사용한 곳이며 피장자의 배우자를 합장하기 위해 연도부를 조성하여 합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⁹⁾

5)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 복식

조선시대.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118-5번지에서 발견되었다. 해당 지역은 석남동과 원창동의 경계부분으로 계양산에서 천마산을 거쳐서 남북방향으로 흘러내린 지맥으로부터 서쪽 바닷가쪽으로 내리뻗은 야산의 남동사면이다. 2004년 12월에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으로 산자락을 절개하는 작업 중 노출된 회곽묘에서 수습되었다. 석남동 회곽묘가 발견된 곳은 지난 1998년부터 도로공사가 시작되었고, 발견된 회곽묘는 지표에서 2m 밑에서 발견되었다. 조사 당시에는 도로공사로 인해서 지형이 변경된 상태였다. 무덤의 정면은 서구지역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입지로서 무덤의 입지로는 최적의 곳이다.³⁰⁾

회곽묘의 묘광은 적갈색 사질점토층과 풍화암반층을 굴토하여 조성되었고, 묘광의 중앙에 길이 240cm, 너비 92cm, 두께 88cm의 목곽이 존재하였다. 목곽의 장축방향은 정북에서 20도 가량 서쪽으로 틀어진 상태로 산의 능선방향과 일치하였다. 목곽의 4면과 바닥이 각각 두께 30cm, 20cm의 회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회벽과 토광벽면 사이를 두께 10cm의 솟으

26) 한성문화재연구원, 『인천 석남동 유적』, 디자인 예담, 2021 42~60쪽

27) 한성문화재연구원, 『인천 석남동 유적』, 디자인 예담, 2021 60~61쪽

28) 한성문화재연구원, 『인천 석남동 유적』, 디자인 예담, 2021 63쪽

29) 한성문화재연구원, 『인천 석남동 유적』, 디자인 예담, 2021 64~69쪽

30) 인천시립박물관,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2005 17쪽

로 보강하여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전형적인 묘제형식을 따르고 있다.³¹⁾

목곽의 내부는 길이 200cm, 폭 54cm의 목관이 안치되어 있었다. 목곽의 내부에는 관이 약간 떠 있을 정도로 물이 차있는 상태였고, 외면이 검은 색으로 유칠 되어 있는 상태로 목곽과 마찬가지로 소나무로 제작되었다.



사진4
여자단령(출처:인천시립박물관,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2005, 6쪽)



사진5
대금형 상의(인천시립박물관,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2005 7쪽)



사진6
대금형 상의(인천시립박물관,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2005 7쪽)



사진7
여자단령(출처:인천시립박물관,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2005, 6쪽)

목관의 내부에는 염습한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다. 시신 위에는 보공용 복식 수점이 발견되었다. 복식과 염습은 내부에 차있는 물에 잠겨 있는 상태였고, 발견 당시 목관 일부를 해체하여 물을 제거한 후 복식을 수습하였다. 목관과 목곽 사이에는 삽 2점이 좌우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목관 안에 있던 회곽의 주인공은 키 150cm의 여성이며 미이라화 된 상태이다. 시신은 관 바닥에 두께 2.5cm의 솜을 깔 후 그 위에 설치한 길이 180 * 폭

31) 인천시립박물관,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2005 17쪽

39 * 두께 1.8cm의 칠성판 위에 안치되어 있었다.³²⁾

석남동 회곽묘에서 출토된 유물의 종류는 상의 12점, 치마 6점, 바지 5점, 단령 1점, 말근 1점, 장옷 2점, 답호 1점, 철릭 1점의 의복류 29점과 모자 2점, 너울, 버선, 주머니, 명목, 악수 등의 소품류 7점과 기타 이불과 질물과 편류가 8점 발견되었다. 그리고 표주박, 구슬, 삽을 포함하여 모두 49점의 유물과 그 외에 형태를 알 수 없는 섬유 문치가 있었다.³³⁾ 그리하여 총 50점의 유물이 존재하였다. 직물류 유물은 출토된 직후 젖은 상태 그대로 모두 비닐봉투 안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서 직물의 퇴화가 진행되어 직물에 곰팡이 얼룩이 생겨 손상이 생겼다.

석남동 회곽묘 복식의 특징은 직금단(織金緞) 직물이 사용된 여성단령과 대금형 상의와 원용문(圓龍紋)의 장옷과 복식사상 처음으로 말근(抹裙)과 상의류인 대금형 장저고리가 수습되었다. 또한 회곽묘는 무연고로서 시대 구분과 피장자의 신분은 알수가 없다. 다른 특징은 신분을 알 수 있는 명정과 구의(柩衣)는 거의 훼손되어 명정에는 ‘지구(之柩)’라는 글자만 남아 있었다. 회곽묘에서 발견된 여성단령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발견되는 여성단령들은 습의(襲衣)를 입은체로 발견된 것과 달리 보공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남성의 답호가 수습되어 보니 15~16세기 복식으로 추정되었다.³⁴⁾ 현재 출토복식은 인천시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사 상』,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韓國의 寺址(폐사지) 현황조사보고서 上-서울, 인천, 경기북부』, 조계종출판사, 2010,
- 한성문화재단연구원, 『인천 석남동 유적』, 디자인 예담, 2021
- 인천시립박물관,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2005

32) 인천시립박물관,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2005 17~18쪽

33) 인천시립박물관,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2005 18쪽

34) 인천시립박물관,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2005 110~112쪽

III.



III. 백석동

1. 백석동의 연혁과 지명

백석동은 검단 지역이 김포군에 속했을 때는 인천시와 김포군의 경계에 위치하였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에 부평부 모월곶면(毛月串面)에 속하였는데 1914년 3월 1일에 부천군이 신설되자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한들·독정이·거월리·너·도마매·골말·종알·소댕이 등을 합하여 백석리라 하였고 부천군 서곶면으로 편입되었다. 1940년 4월 1일, 서곶면 전체가 인천부로 편입되면서 백석리도 인천부의 일부가 되었는데, 일제는 한국식인 동리의 이름을 일본식인 정명(町名)으로 바꾸었는데, 백석리는 운요오쵸(雲陽町)가 되었다.¹⁾ 1946년 1월 1일, 일본식 동명을 변경하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다시 백석동으로 개칭되었다. 1968년에는 구제 실시로 북구에 편입되었다가 1988년 북구에서 분구되어 서구에 편입되었다. 『서구사』 등에 전해지는 지지명들을 보면 백석마을은 서곶로에서 검단으로 가기 전 왼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한돌, 한들, 한둘 등으로 부르는데 이것은 흰 돌(白石)의 변음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한들은 마을 뒷산인 한뫼산에 흰 돌이 많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한들’은 ‘넓은 들’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금의 지형과도 맞고 마을 어른들도 ‘한들’이라 부른다. 구한말 친일파인 송병준이 막은 한들방죽이 있다. 이 마을은 조선조 선조 때 부평부사를 지내고 훗날 우의정을 역임한 심수경(沈守慶)의 후손들인 풍산심씨(豐山沈氏)가 집단 거주하고 있다. 독정이는 서곶로에서 쓰레기매립지와 천주교묘지로 가는 갈림길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독정이는 독재이 또는

음달마을이라고 부른다. 백석동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웅기 가마가 있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반면 <인천지명고>에는 광산 김씨 선대 중 관찰사를 지낸 이가 이곳으로 이주해 와 자기의 아호를 딴 ‘독정(篤亭)’이란 정자를 지은 뒤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독정은 이웃한 검단에도 있어서 백석동의 독정을 윗독정, 검단의 독정을 아랫독정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가장 큰 산이라는 의미의 ‘한뫼산’,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는 ‘둥굴재산’, 소가 누운 것 같다는 ‘와우산’, 그 생김새가 코끼리 같다는 ‘상산’, 흰 돌이 많다는 ‘백석산’ 등으로 야산군을 이루고 있다. 독정이 사거리에서 서쪽에 있는 바닷가에 닿아있던 마을을 거월리라고 한다. 거월은 큰 달이란 뜻으로 이 마을에서 달이 유난히 크게 보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한들마을 서남쪽 너머에 있는 마을로 천주교 공소가 있는 마을로 ‘넙말’이 있는데 이는 너머말이 변형된 명칭이다. 거월이하고 붙어 있는 마을로 소댕이 혹은 소데이라고 부르는 지명이 이 있다. 이곳은 매립지로 가는 길에 있다. 소데이는 삼한 때부터 하늘에 제사지내는 특별구역 소도(蘇塗)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소도는 후대에 솟터, 솔터, 소데이 또는 소댕이 등으로 변했지만 모두 선사시대부터 농사의 풍요, 마을의 안녕을 비는 우리의 고유 신앙이었다. 이렇게 볼 때 소데이는 예전에 소도가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김포군에서 발간된 《지명유래집》에는 거월이 북쪽에 소데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넙말 서쪽끝으로 한들방죽이 있는 곳에 포구가 있었던 도마매가 있고 마을회관 북쪽 골짜기에 골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 또한 거월이 동쪽으로 쓰레기 고가도로 사이에 종알 또는 종란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종알거리며 넘는 고개라서 종알고개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백석마을 뒷산으로 산의 형태가 둥글고 재(고개)가 있다고 해서 둥굴재산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동구재산은 둥굴재산의 변음이며, 중구현은 이것을 한자를 빌어 표기한 것이다.

1) 인천광역시,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310쪽.

독정마을 뒷산을 와우산이라고 하는데 산의 형태가 마치 소가 누워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와우산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송장이 누워 있는 형상이라서 송장혈이라고도 부른다. 동굴재산 서쪽에 있는 산을 행자산, 행주산, 도마매산, 골말산 등으로 부른다. 행자산은 행주산을 한자로 표기한 것 같으며, 도마매에서는 이 산을 도마매산, 골말에서는 골말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백석 초등학교 북쪽에 골짜기가 모가 졌다고 해서 각골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백석 초등학교 뒤 백석목장이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윗독정 즉 음달말이 들어 있는 골짜기를 우골이라고 부르는데, 와우산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추정된다. 우골 동쪽으로 등성이 너머에 안골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맨대울에서 남쪽으로 등성이 너머에 있는 골짜기를 청석골이라고 한다.

현재 한진 실업고등학교가 있는 골짜기를 심골, 소용곡이라고 하는데 소용곡은 심골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골 아래로 큰길따라 길게 뻗은 골짜기는 ‘오랑대골’, ‘오랑대골’, ‘오랑대골’ 등으로 불리는데 현재 백석 고등학교가 위치한 곳이다. 심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는 작술이라고 불린다. 큰 길에서 백석마을로 넘어오는 고개를 도당재 혹은 도장재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곳에서 도당굿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청석골 쪽에서 시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서피고개 혹은 세피고개라고 한다. 도마매 근처에 한들방죽이 있다. 이 방죽은 구한말에 착공했다가 1919년에 송병준(宋秉駿)이 완공하였다. 방죽을 막음으로써 생긴 들이 한들방죽들이다. 그리고 한들방죽 안에 백석염전이 있었으며 인포염전이 한들방죽 밖에 있었다고 한다. 인포염전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인천과 김포사이에 있다고 해서 인천의 인(仁)과 김포의 포(浦)를 따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오랑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개울은 오랑천이라고 불린다.

2. 백석동의 문화유산



그림4 백석동 문화유산 분포

1) 백석동 유물산포지

고려 및 조선시대. 백석동 유물산포지는 2004년 인하대학교 박물관의 조사에 의하여 처음 보고되었다. 유물산포지1은 골막산의 남쪽 능선의 아래에 위치하며, 현재는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가다 보면 좌측으로 봉수대 길과 만나게 되는데, 이 봉수대길을 따라 약 500m를 가다 보면 왕길 고가차도가 나오고, 이 고가차도를 못 미쳐 오른쪽에 황룡사라는 신축된 절이 보인다.²⁾ 바로 이 절의 남동쪽에 위치한 경작지가 백석동 유물산포지 1이다. 이곳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도기, 자기, 기와편 그리고 즐문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유물산포지2는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산47-1임 일대이며 인하대학교 박물관의 조사에 의하여 처음 보고되었다. 이곳은 동그재산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온 능선의 하단에 위치하며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백석중학교와 백석고등학교 사이에 난 길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

2) 仁川廣域市, 『文化遺蹟分布地圖』, 仁川廣域市 外, 169쪽.



사진8 한들유적 현재 모습

로 나지막한 능선이 보이는데 이 능선의 일대와 능선의 남서쪽 경작지에서는 백제 시대의 토기편, 기와편, 도기, 자기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산포지3은 주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89,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산26-1,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산28-3 일대이며 한진고등학교의 북동쪽 일대에 위치한 경작지와 해발 41.5m의 작은 독립 구릉 지대에서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구릉의 남서쪽 일대는 현재 묘목 밭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묘목밭과 공장이 이 자리에 조성되면서 그 지형이 일부 훼손되기는 하였지만, 나머지 부분은 원래의 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토기편, 도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유물산포지3의 경우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의 개수는 앞의 두 곳(유물산포지1,2)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이곳은 원래의 지형이 잘 남아 있어 주변과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요망된다.

이 지역들은 현재 모두 개발되어 현재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2) 한들유적

삼국시대~조선시대.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61. 한들유적은 골막산과 동그재산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구릉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은 골막산과 동그재산의 남사면이며, 상대적으로 가파른 산지와 달리 이 지역은 대부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경계 부근은 사면을 따라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동쪽은 동그재 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구릉의 가지능선이 있으며, 그 동쪽으로 교육시설이 들어서 있다. 남쪽은 동-서 방향의 도로를 따라 각종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다.

한들방죽의 1지점은 면적의 서쪽과 중앙에 해당하며 골막산과 동그재산 사이의 완만한 남사면에 해당하는 구릉지로, 곳곳에 민가가 들어서 있다. 또한 구릉지는 평탄화 작업을 통해 밭 등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 지역은 산의 지형을 따라 곡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개간 후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2지점은 면적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그재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가지능선과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다. 구릉의 정상부는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의 구릉 하단부는 경작지, 서쪽의 구릉 하단부는 민가와 공장 등이 들어서 있다. 또한 구릉의 사면부에 곳곳에 민묘가 위치하고 있다.

3지점은 북동쪽에 위치하며, 동그재산의 동사면과 동쪽의 구릉 사이의 곡부와 동쪽 구릉의 남사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은 대부분 논과 밭 등의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고, 북쪽은 지점의 경계를 따라 포장된 길과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1지점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하여 신석기시대 수혈, 조선시대 주거지, 건물지, 토광묘, 탄요, 수혈 등이 확인되어 주로 생활과 관련된 유적이 많이 출토되었으며 2지점 또한 수혈과 주혈이 주로 확인되었으나 구릉의 서사면 하단부에서 건물지 2동과 근처에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3지점에서도 시대를 알 수 없는 석렬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 한들유적의 주된 성격은 신석기~조선시대의 생활 유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³⁾

3) 백석동 광산김씨 묘역



사진9 백석동 광산김씨 묘역

조선시대. 서구 백석동 산 3-2. 미래유산. 광산 김씨(光山 金氏) 양간공파(良簡公派) 판군기감사공파(判軍器監事公派)의 21세손 김달도(金達道)와 그의 아들 김호(金浩), 손자 김우서(金禹瑞) 등의 묘가 있는 묘역이다. 김달도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도경(道卿)이고 벼슬은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부친은 계성(繼性)이고 부인은 평산 신씨이다. 성종 3년(1742) 문과로 출사하였으며, 충청도관찰사, 호조참판 등을 거쳤다. 22세손 김호는 충청도 관찰사를 지냈고, 김달도의 아들이다. 부인은 전의 이씨로 이청신의 딸이다. 23세손 김우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김호의 아들이고, 자

는 천석(天錫)이다. 연산군 11년(1504) 식년시 문과에 병과 16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1507년(중종 2) 당하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좌랑(佐郎)이 된지 20일 만에 도사(都事)로 승직하였으나, 물의로 인해 벼슬이 갈렸다. 1510년(중종 5)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이 되었고, 이어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이 되었다. 그 후 의정부 사인에 올랐고 개천군수(价川郡守)와 제주목사를 지냈으며 경기도 수군절도사, 북도병사와 방어사를 역임했고 후에 대사성에 추증된 인물이다. 묘역에 위치한 석물들은 비교적 최근인 1981년에 건립하였다.

광산 김씨 묘역은 김달도의 봉분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김호의 봉분이 위치하고 있는 곳 사이의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으며(산 길로 약 70~80m), 김달도의 묘역이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김달도의 묘역 위쪽으로는 김필(金縢)의 봉분이 위치하고 있다. 김달도 묘비 비신(碑身)의 규모는 26×109×14cm이다. 김호의 묘역에는 봉분 앞에 비석이 있고, 상석과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이 있다. 비신의 규모는 45×104×17cm이다.

4) 도마매 포구 터

시기 미상. 서구 백석동 161. 도마매는 백석동의 곡물을 실어 나르고 외부에서 온 새우젓 배들이 드나드는 중요한 포구였으나, 동아매립지(동아건설)가 생기면서 포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해방 후에는 도마매와 인천 북항을 오고 가는 '똑딱이배'가 사람들을 태우고 다녔으나 이 또한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도마매 포구를 오가던 똑딱이 배는 백석동의 지주였던 노 씨가 운영해오다가 다른 사람이 맡게 되었고, 아침에 물 때에 맞추어 나가고 오후에 물이 들어오면 들어왔다. 하루에 한 번 꼴로 운항하는 셈이었다. 현재는 305번 도로와 수도권매립지 연결 도로가 교차하는 부근에서 305번 도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3)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인천 백석동 한들유적』, 미래문화재연구원, 2021, 29쪽.

600m정도 내려온 지점이 도마매 포구가 있던 자리이다.

도마매는 작은 포구로 수확한 곡식들을 외부로 내보낼 때에 배들이 몰려 들어왔고, 평상시에는 새우젓 등 해산물을 파는 배들이 한두 척 정도 들어오는 곳이었다. 새우젓 배가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나가 새우젓 독을 운반했고, 하나의 독을 몇몇 집이 나누어서 구입했다. 새우젓 구입은 외상이었으며, 가을철에 수확을 하면 쌀로 대신 주었다. 새우젓 배는 인근 섬에서도 들어왔으며, 1960~1970년대에는 새우젓 이외에도 생선과 굴을 실은 배들이 드나들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5) 수도권 매립지



사진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현대.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드림파크 야생화공원/인천서구 거월로 160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김포매립지는 1980년대 중동지역 수주 공사가 사양길로 접어든 대형 건설회사들의 국내

유입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동아건설이 국책사업으로 김포지구 해안매립지 간척지 개발에 따른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경지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인근 어민들을 설득하여 총 1,150만평을 조성하였다. 그러다가 매립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6백여만 평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도 발표되면서 생활터전이었던 어장을 잃고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도 상실된 지역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곳이 되었다.⁴⁾

1980년대 중반 서울의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이 포화되어 폐쇄될 상황이 이르렀지만 수도권 주변에서는 제2의 매립지를 찾을 수 없었고 그러던 중 서울에서 가까운 김포매립지가 최적지로 선정되어 1987년 11월 동아건설과 환경처가 간척지 중 630만평을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는 동아건설이, 용역사업은 동아건설에서 추천한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조건으로 추진되었다. 현재는 드림파크 스포츠센터가 지어지고, 야생화 단지로 조성되었다. 김포매립지의 나머지 절반은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로 결정되었고 지금은 청라국제도시가 되었다.

4) 장정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와 그곳의 사람들』, 국립민속박물관, 2018, 14쪽.

IV.



IV. 검암동

1. 검암동의 연혁과 지명

검암동은 조선시대 부평부 모월곶면 소속으로 바로피, 간재울, 검바위 등 세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던 곳이다. 1789년(정조 13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에는 한자 표기가 오늘과 다르게 검암리(黔巖里)로 등재되어 있었다. 바로피는 서곶로를 중심으로 위쪽이라 상동이라고도 하고, 검바위는 중간이라서 중동이라고도 하며, 간재울은 아래쪽이라 하동이라고도 한다. 옛날에 바로피에 면사무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모월곶면의 중심지였던 듯한데 그러다 부평부가 관할 동리 명을 확정할 때 세 취락을 검암리와 간재리로 구분해 명명하였는데 구한말에 다시 검암리 하나로 통합되었다.¹⁾

그 후 1914년 3월 1일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며 부천군을 신설할 때, 부평부 모월곶면과 석곶 서곶면 하나로 묶었으므로 검암리도 부천군 서곶면 소속이 되었다가 1940년 4월 1일 부령 제40호와 경기도령 제5호에 의한 인천부역 제2차 확장이 있을 때 서곶면(西串面)은 인천부에 편입되고 이곳에 서곶출장소를 두게 되었는데 이때 서곶면 전체가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검암리도 인천부의 일부가 되었다.

일제는 편입 즉시 동의 이름을 일본식인 정명(町名)으로 바꾸었는데, 검암리는 우라바에쵸가 되었다. 1945년 이후 정부는 일본식 지명을 없애는 일에 나섰고 1946년 1월 1일, 인천부 고시 제62호에 의거하여 이곳은 검암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다시 시(市) 단위의 마을은 동(洞)으로 칭하는 관

례에 따라 검암동이 되었다. 마을별 지명 유래와 이름을 살펴보면 모월곶면의 모월곶은 지형이 마치 반달같이 생겼는데 작은 맥이 터럭 같이 뻗어 내려서 터럭이 많은 반달같은 면이라는 뜻이다. 전설에 의하면 본래 이름은 물이 많은 고장이라 물곶(水串)이었다고 한다. 또한 검암동 동쪽 끝 마을인 상동(上洞)을 바르미 마을 또는 바름이 마을이라고 불렀는데 바르피란 바로 산 밑 마을이라는 뜻이다. 검바위란 마을 산에 검은 바위들이 많으며 또한 허암산 서쪽 기슭에 큰 검은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검바위의 검은 앞의 검단면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검’계의 어휘로 ‘검’은 신(神) 또는 왕의 신분에 해당하는 칭호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큰 바위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였으니 검바위 마을은 신 또는 존장의 마을이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큰 마을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 검바위 마을은 부평군 모월곶면의 면소재지로 면내 가장 큰 마을이었으며, 발아피 밑의 장모루는 옛 고구려 때의 지명으로 추측될 뿐 아니라 부평의 옛 중심지이며 읍지(邑址)였을 가능성이 큰 것을 생각할 때 그 뜻의 타당성을 이해해볼 수 있다. 간재울은 허암산 서쪽 줄기가 해변가에 이르는 끝머리의 마을로 그 좌향이 간좌곤향(艮坐坤向) 이어서 간좌하던 것이 간재로 변한 것이다. 백석마을은 ‘한돌’ 또는 ‘한들’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마을 뒷산인 상산(象山)에 흰돌(白石)이 많아서 생긴 마을 이름이다. 독재이 마을은 독정(篤亭)의 변음으로 광산김씨 선대에서 감사(監事)를 지냈던 사람이 독정이라는 정자를 세웠으므로 생긴 마을 이름이다. 산 밑 마을이라서 동쪽산에 둥근 달이 너무 크게 보여 큰 달이라서 거월(巨月)이라 부르게 되었다. 시시내는 계양산 북맥의 물 줄기가 시발한 곳이라서 생긴 이름이다. 원래 깊숙한 갯골이었는데 보뚝을 쌓아 논을 만드니 갯골이 시내(川)가 되어 냇물이 비로서 시작된 곳이라서 시시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서곶면은 1914년 부평군 모월곶면과 석곶면을 통합하여 서곶면이라 한 것인데 이것은 서곶(西串)이 군소재지의 서쪽 해안에 길게 뻗어 있으므로 서곶면

1) 인천광역시, 『인천의 지명(상)』,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309쪽.

이라 한 것이다. 검암리를 1940년 일제가 과생정(瓜生町)으로 개칭하였는데 그 유래는 미상이다. 운양이라는 명칭은 운양호 사건을 일으킨 일본 군함 운양호(雲揚號)에서 딴 것이다. 러일전쟁 때 인천 앞 바다에서 러·일 해전에 참전한 일본 군함 춘일환(春日丸)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

2. 검암동의 문화유산



그림5 검암동 문화유산 분포

1) 허암 정희량 유허지



사진11 허암 정희량 유허지

조선시대. 2009년 3월 2일. 문화유산.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 58-4. 허암 정희량 유허지(虛庵鄭希良 遺墟址)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조선시대 연산조의 문신 정희량이 은거하던 옛집

터이다. 2009년 3월 2일 인천광역시의 기념물 제58호로 지정되었다. 정희량은 1469년(예종 1) 서울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순부(淳夫), 호는 허암(虛庵). 동지충추부사 정충석(鄭忠碩)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호조참의 정침(鄭忱)이고, 아버지는 철원부사 정연경(鄭延慶)이다. 어머니는 경간(慶侃)의 딸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사림파의 종조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492년(성

종 23) 생원시에 장원으로 합격했으나, 성종이 죽자 태학생(太學生)·재지유생(在地儒生)과 더불어 올린 소가 문제되어 해주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1495년(연산군 1)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이듬해 예문관검열이 되고, 승문원의 권지부정자에 임용되었다. 이듬해 김전(金詮)·신용개(申用溉)·김일손(金翹孫) 등과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될 정도로 문명이 있었다. 그러나 무오사화 때, 사초문제(史草問題)로 윤필상(尹弼商) 등에 의해 신용개·김전 등과 함께 탄핵을 받았는데, 난언(亂言)을 알고도 고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장(杖) 100, 유(流) 3,000리의 처벌을 받고 의주에 유배되었다가, 1500년 5월 김해로 이배되었다. 유배에서 풀려나 직첩을 돌려 받았으나 대간 홍문관직에는 서용될 수 없게 되었다. 그 해 어머니가 죽자 고향에서 수분(守墳)하다가, 산책을 나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총민박학(聰敏博學)하고 문예에 조예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양학(陰陽學)에도 밝았으며, 영달에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 저서로 『허암집』이 있다. 정희량은 생전에 술과 차를 좋아하였는데, 이에 관한 시를 남겼기 때문에 후에 이곳에는 <허암차샘비>를 세워두었다. 정희량이 지은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밤이 얼마나 되었는지 눈이 오는데 / 옛집 푸른 등불아래 추위 잠도 못이루네
 상머리에 이끼 긴 낡은 병을 가져다가 / 푸른 바다같은 맑고 찬 샘물을 쏟아 붓고
 문무의 화력을 알맞게 피우니 / 벽 위에 달 떠오르고 푸른 연기 피어나네
 술바람은 우수수 빈 골짜기를 울리고 / 날아서 흐르는 물이 부딪쳐 긴내에 울리듯
 성난 뇌성과 번개는 아직 그치지 않고 / 급히 가던 수레가 넘어지듯
 잠깐 구름이 걷히고 바람도 자니 / 파도는 일지 않아 맑고 잔잔하네
 큰 표주박을 한 번 기울이니 얼음 눈처럼 빛나고 /
 간담이 행하게 뚫리어 신선과 통한다네
 천천히 맛보니 혼돈 구멍을 뚫어 / 홀로 신마를 타고 선천 세계에 노니네

예전 마음속의 자갈밭을 돌아보니 / 요마(妖魔)와 속념이 모두 망연해지네
 다만 마음의 근원을 활짝 트여 / 만물을 초월하여 하늘 밖에 노닐을 깨달았네
 점차 가경이 다한 묘처에 이르러 / 박수치며 낭랑하게 이소경을 읊조린다.
 내 들으니, 천상의 진인은 깨끗함을 좋아하며 / 이슬을 마시며 배설도 안 한다지.
 노을과 옥을 먹고 수명을 연장하고 / 골수를 씻고 털을 깎아 동안이 되었네
 나도 세상에 묻는 것이 이와 같은데 / 어찌 고목과 오래 살기를 다투리
 그대는 못 보았는가 / 노동 시인은 굶주림에도 삼백 편의 시를 즐긴다는 것을
 도덕경 오천마디는 부질없이 아득한 넓은 글자라오²⁾

2) 검암동 유물산포지 1,2

청동기~고려시대. 검암동 유물산포지1(고려시대~조선시대), 검암동 유물산포지2(청동기시대~고려시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55(검암동 유물산포지1)/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55-2(검암동 유물산포지2). 검암동 유물산포지 1은 2005년 인하대학교 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보고된 곳이다. 공촌 사거리에서 검단 방면으로 약 500m를 가다보면 왼쪽으로 대인 고등학교가 보인다. 고등학교의 뒤편으로 난 작은 길을 따라 약 200m를 가다보면 허암산에 이르게 된다. 허암산 북동쪽 능선 일대에서 도기편과 자기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으며, 동쪽 해발 40m 정도의 곡간부에서 고려 시대 분묘에 매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 3점과 청동합 1점, 청동수저 1점 등이 수습되었다. 이 유물은 대략 13세기경에 매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묘에서 수습된 청자는 지방 가마에서 구운 중하품에 속하는 것이지만 항(缸)이라는 보기 드문 기종으로 청자에서 분청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

검암동 유물산포지2 또한 2005년 인하대학교 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보

2) 鄭希良, 『虛庵遺集』 卷1, 「夜坐煎茶」

고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청동기 시대부터 고려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허암산 남서곡간부의 경작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돌끌 1점과 고려시대 도기편과 자기편들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수습된 돌끌의 폭은 약 5cm 정도의 외날로 몸통 부분은 결실된 채 수습되었다.

3) 송운 묘

조선시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13-3. 검암 하동 경로당 앞산에 송씨 묘역에 20여 기의 묘가 있는데 이 중 송운의 묘가 있다. 이 묘에는 묘비와 상석 문인석이 좌우 1개씩 있는데 상석은 근래에 만들어진 것이다. 묘비에는 ‘성균생원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진천송공휘운 배정부인해주정씨지묘(成均生員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鎭川宋公諱玠 配貞夫人海州鄭氏之墓)’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해당 주소는 도로밖에 없어서 이장된 것으로 보인다.

4) 발아장터

고려시대, 검암동 동쪽 끝 마을로 상동 또는 ‘바름이 마을’이라 하는데, 옛 고려 때부터 발아장이 있던곳으로 어음의 변화로 발아장이 ‘바름이 마을’로 되었다. 이 곳 남쪽의 고개를 발아뫼(바리미고개) 또는 ‘작은 정매이 고개’라 불러오고 있다. 18세기 이후 조선의 장시 시장권이 점차 확대되었다. 군현을 단위로 한 시장권을 뛰어 넘어 몇 개의 마을을 묶는 시장권이 형성되고, 그 중 일부는 지역적 시장권을 벗어나 전국적 범위로 시장권을 확대해나갔다. 장시 간의 연계가 확대되어서 지역적 시장권이 형성됨에 따라 장시간에는 흡수·통합·신설·폐지라는 장시 시장권의 변동이 나타났다. 또한 도시 시장의 발달에 따라 도시 시장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장



지도1 발아장터의 위치

시가 새로이 생겨나기도 했다. 18세기 이후 교통의 발달로 인해 사람과 물자의 유통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주요 교통로에는 여행객들이 묵고 가는 점막(店幕)이 생겼는데, 이 점막의 주된 이용자가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점막도 단순한 숙박시설에서 벗어나 상품 교환이 행해지는 시장의 기능을 지니게 되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점막들 가운데 대도시 시장을 연계하는 중간 지점의 점막들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대부분 장시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³⁾

서구의 장시인 발아장도 위와 같은 과정 속에서 탄생하였다. 발아장에 대한 기록을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Ⅵ 1842년 《부평부읍지》 시장 :

발아장【관아로부터 북쪽으로 10리쯤 떨어져 있고, 황어면에 있다. 3일과 8일에 열린다.】

Ⅵ 1871년 《부평부읍지》 시장 :

발아장【도호부 북쪽 10리 황어면에 있다. 매 순마다 3일과 8일에 열린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사 상』,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324쪽.

이처럼 서구의 발아장은 원래 부평 모월곶면 검암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1842년 이전 어느 시기에 부평 황어면으로 옮겨 갔으며, 17세기 이후 5일장이 보편화되었던 것처럼, 3·8일 장(3일·8일, 13일·18일, 23일·28일)으로 열렸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장사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가장 많은 것은 미곡·면포·어물이었다. 그 다음으로 마포나 소와 송아지, 연초, 콩, 보리 등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이러한 미곡이나 면직물품에 비해 수공업 제품의 전국적 유통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발아장에서 유통되었던 상품은 발아장이 위치한 부평 지역의 토산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지리지의 기록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⁴⁾

|| 《세종실록》지리지 부평도호부 토의(土宜):

오곡과 조·팥·녹두·뽕나무·삼이며, 약재(藥材)는 사자발쑉【썩 좋다.】, 샷갓나물이다.

|| 《신증동국여지승람》부평도호부 토산:

소금, 조기, 토화, 굴, 부레, 낙지, 맛조개, 소라, 청해, 게, 곤쟁이, 중하

|| 《동국여지지》부평도호부 토산:

흑점석【안남산에서 난다.】, 소금, 조기, 미네굴, 굴, 부레, 낙지, 맛조개, 소라, 게, 곤쟁이, 중새우 등이 있다.

|| 《여지도서》부평도호부 물산:

소금, 참조기, 미네, 굴, 부레, 낙지, 맛조개【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소라, 방게, 게, 곤쟁이, 중새우 등이 있다.

|| 1842년 《부평부읍지》 토산:

소금, 조기, 미네굴, 부레, 낙지, 맛조개, 소라, 방게, 게, 곤쟁이 등이 있다.

|| 《여도비지》부평도호부 토산:

소금, 게, 대합조개, 새우, 소라, 낙지, 석화, 토화, 황석어, 준치 등이 있다.

|| 《대동지지》부평도호부:

물고기와 게 등 15종과 소금이 있다.

|| 1871년 《부평부읍지》 토산:

소금, 참조기, 미네굴, 낙지, 소라, 방게, 게, 곤쟁이, 중간 크기의 새우 등이 있다.

|| 1899년 《부평부읍지》 토산:

소금, 조기, 미네굴, 굴, 부레, 낙지, 맛조개【옛날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소라, 방게, 게, 곤쟁이, 중새우 등이 있다.

발아장은 조선 전기에 ‘쑥시장’으로 알려져 전국의 보부상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세종실록에서는 서구에서 생산된 ‘사자쑥’이 약효가 좋아 중국과 일본에도 알려졌으며, ‘쑥당의 고장’으로 불리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조선 전기에는 발아장에서 미곡과 사자발쑉, 샷갓나물 등이 주로 유통되었을 것이나, 조선 후기로 가면 수산물 위주로 유통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발아장이 황어장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황석어에서 유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설 계양산의 북쪽 바로피에는 구슬원(球瑟院)이라는 여각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시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발아장이었다. 발아장 아래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우물을 은우물 또는 은지(銀地)라 불렀다. 은(銀)이라는 뜻을 갖게 된 이유는 다음의 고사에서 유래했다. 옛날 고려 때에는 배를 이용해 중국으로 가려면 대개 강화 교동에서 떠나야 했다. 삼남지방 사람들은 이 구슬원에서 숙박을 하고 당일로 교동까지 하룻

4)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사 상』,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325쪽.

길을 잡고 있었다. 옛날 이 근방은 촌가였는데 구 씨 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난리가 나서 급히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많은 은덩어리들을 숨길 곳이 없어 고심 끝에 이 우물 속에 은덩어리들을 숨겨두고 몸을 피했다. 그 후 난리가 평정되어 부자 구 씨는 돌아와서 우물을 뚫리며 은덩어리를 찾았으나 은덩어리는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잠시 피난 간 사이에 누가 가져간 것이라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5) 장모루



지도2 장모루의 현재 위치

고려시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368-1. 고려 대에 지금의 시청동 장모루 마을에 길손이 묵는 여각(旅閣)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개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이 곳에는 늘 길손이 많았다. 아마도 서해를 향해하여 연희동이나 경서동의 포구에 서 배를 내려 육로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

5)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사 상』,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580쪽.

고려시대 말, 전라도의 한 선비가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개경으로 가던 길에 장모루 여각에서 묵었는데 이곳의 구씨(具氏) 집안 처녀에게 반해 며칠을 보내고 급하게 개경으로 갔으나 과거 응시에 지각하여 실격하고 말았다. 그는 귀로에도 이곳에 들러 그 처녀와 사랑에 빠져서 몇 달을 보냈다. 그의 가문에서 그를 찾아서 올라와 강제로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러게 구씨 처녀와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 구절의 시문이 유행처럼 퍼졌다.

桂陽山下侵具女 己酉年鵬 頭怨無心

계양산 아래서 구씨녀를 범하여, 기유년 과거에 낙방하니,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뒤로 과거를 보러 먼 길 떠나는 청년 선비에게 삼남의 가문에서는 이 시를 써 주어 사랑에 빠지는 일을 경계하였다고 한다.

6) 보명학교 터



사진12 검암도서관(보명학교 터)

일제강점기. 현 검암도서관 자리가 옛 보명학교 타이다. 보명학교는 서구 검암동 지역에 지역 유지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사립학교였다. 교장에는 정홍석이 선임되었고, 감독에는 심상덕, 교사로는

정태현이 직무를 맡았다는 기록이 1907년 9월 29자 대한매일신보의 기록에 남겨져 있다.

정홍석은 「부평팔경」을 쓴 정지석과 십촌 지간으로 검암동 토박이인 해주정씨다. 보명학교가 위치한 곳은 발아현으로 가는 입구이자 발아장이라는 큰 저자가 썼던 곳인데 상동 입구 정미소 아래의 한 건물로 추정된다.⁶⁾

검암동은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화되어 옛 자취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보명학교의 정확한 위치도 찾기 힘들다. 학교를 세웠던 정홍석은 학교 문을 닫고 인삼 판매사업을 하러 상하이로 떠났는데, 1910년 일본 상하이 총영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 강제합병에 대한 상하이 체류 한인들의 성향을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그 자료에서 정홍석의 이름이 처남 윤홍삼과 함께 등장한다.

정홍석은 1920년대에 상하이를 떠나 중국 윈난(雲南)으로 갔고 가족을 불러 합류했다. 그곳에 있는 강무학교(무관학교)에 조선인 청년들이 입학한 것과 관련된 기록이 일본 영사의 보고서에 남아 있다. 윈난 강무학교는 중국 윈난성 쿤밍(昆明)에 있었고 지금 건물이 보존되어 있다. 검암동 정씨 가문은 위의 정홍석과 정태현 외에도 근현대사에서 교육자를 많이 배출했다. 정지석은 1895년 관립한성사범학교 속성과를 졸업한 서곶 최초의 공립학교 교사였다. 정광근은 운영난에 빠진 검암동의 고려중학교를 인수해 인광중학교로 개명하고 오늘의 서인천 고교에 이어가게 한 참교육자였다.

7) 검바위

시대미상. 서인천고등학교 안에 들어가면 검바위공원이 있고 그 안에 검은 색의 바위인 검바위가 존재한다. 검바위가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 이

6) 강덕우 외,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9쪽.

지역에 존재했던 자연마을인 ‘검바위’와 ‘검암동’ 및 현재 인천지하철 2호선 역명인 ‘검바위역’이 모두 이 바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바위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매우 적기 때문에 검바위가 주변 지명 및 마을이름의 유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 될뿐 그 이상의 정보는 현재 없는 상태이다.



사진13 검바위

8) 검암동 상수리 나무

시대미상. 검암동 상수리 나무는 서곶로와 승학로가 교차하는 검암사거리 옆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2년 9월 29일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나무의 수령은 300년이며 높이는 28m이다. 검암동 상수리 나무에서는 농사가 끝나는 10월 중 추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마을의 평안을 위해 ‘바르미(상동)’, ‘검바위(중동)’, ‘간재울(하동)’의 주민들이 모여서 당제를 지냈다. 현재 당제는 2021년부터 인천서구문화원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검암동당제추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또한 2021년~2023년까지는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서구청의 지

원을 받아 당제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주변에 보호펜스가 쳐져 있다.



사진14 검암동 상수리나무

참고문헌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인천 백석동 한들유적』, 미래문화재연구원, 2021
- 장정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와 그곳의 사람들』, 국립민속박물관, 2018
-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북서곶』,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7
-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이야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 『인천서구의 민속신앙 「동제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05

V.



V. 시천동

1. 시천동의 연혁과 지명

시천동은 예로부터 계양산(桂陽山) 계곡에서 흐른 물이 시내를 형성하여 시냇물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래서 계양산 북쪽 줄기의 물줄기가 발원한 곳이라 하여 ‘시시내’, 즉 시천(始川)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금도 아라뱃길 이남에는 ‘시천천’이란 하천이 흐르고 있다.

한강 서쪽 방향에 솟은 계양산 쪽으로 깊숙이 들어앉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고려시대 때 전략상 요충지였으며 점말은 동이를 구워 파는 동이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최근에도 이 지명이 사용된다. 그러나 지금은 민가가 거의 없다.

안공은 갯골에서 동쪽 성황당 고개로 올라가는 곳에 있다. 갯골은 시천동의 끝부분 과거 방파제를 막기 위해 전에 이곳까지 배가 들어와서 붙여졌던 모습이다. 윗말은 시천동의 본마을 북쪽에 있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에 속했다가 고구려 점령시 주부토군(主夫吐郡)에 속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장제군(長堤郡)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고려시대에는 수주(樹州)로 불렸으며 일설에 의하면 부평을 통치하던 소재지로 현재는 화산 앞에서 검암동 바라피 마을까지 이르는 이 구역을 장모루(長牟婁)라고 부른다. 그러나 현재에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후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 길주목(吉州牧), 부평부(富平府)로 개칭되면서 이 지역에 속했다.

조선시대에는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 1413), 구한말에는 한동안 황허현(黃魚縣)에 속해 있었으나 곧 부평군(富平郡, 1895) 모월곶면(毛月串面)에

속했다. 일제강점기 전반(1910)에는 인천부에 속했다.

1914년에 부평군 모월곶면과 통합하여 부천군 서곶면이 되었고, 1940년 인천부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편입 즉시 한국식인 동리의 이름을 일본식 정명(町名)으로 바꾸었는데 시천동은 하루히쵸(春日町)가 되었다. 이는 러일전쟁 때 인천 앞바다에서 러시아 군함인 와리야크호를 격파한 하루히마루(春日丸)에서 따온 것이다.

광복 후 정부는 일본식 지명을 없애는 일에 나섰고 1946년에 시천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그동안 시천리라 불렀던 시천동은 시 단위의 마을은 동으로 칭하는 관례에 따라 시천동이 되었다.

1949년 인천부가 인천시로 승격되었고, 1958년 10월 1일 인근의 백석동과 검암동을 통합해 백석동과 검암동을 통합해서 백석·시천·검암동이라고 불렀다. 1968년 인천시가 구(區) 체제로 개편되면서 시천동은 인천시 북구 서곶출장소에 편입되었다.

1977년 5월 10일에는 통합된 백석·시천·검암동을 백성동 하나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1978년 7월 1일에는 다시 세 마을을 원래대로 분동하면서 시천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1988년 인천시 북구와 남구 일부가 서구로 분리되면서 시천동은 서구 관할의 법정동이 되었다.

원래 시천동 정가운데로 굴포천이 흐르고 있어도 굴포천은 그리 크지 않아 현재처럼 단절된 구조는 아니었다. 그러나 1987년 홍수가 발생해 굴포천 방수로 작업을 시작하여 시천동이 굴포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구조를 취하게 되었고, 2010년대 초반 굴포천 방수로가 경인아라뱃길로 완공되었다. 또한 삽작곡(挿紫谷)이라는 골짜기가 꽃피 바로 밑에 있는데 이는 나무를 꽃아 심었다는 뜻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에는 변전소가 들어와 있다.

2. 시천동의 문화유산



그림6 시천동 문화유산 분포

1) 시천동 유물산포지 1

고려 및 조선시대. 시천동 유물산포지 1은 시천동 산12-8이 소재지다. 1994년 인하대학교 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보고된 유적이다. 이후 인천시립박물관에 의해 시천동 유물산포지 1로 재보고되었다. 검암 2지구 동편으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유적은 이 마을 내 굴포천 도로변의 구릉 남안에 위치한다. 꽃매산의 북동편 능선 남안 밭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고려와 조선시대 때의 도기, 자기, 기와편 등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¹⁾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2) 시천동 유물산포지 2

시대미상. 유물산포지 2는 시천동 3-1이 소재하고 있다. 2004년 인천광

1) 『仁川北部 綜合學術調査』,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신공항고속도로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인하대학교박물관, 1994.

역시립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시천동 유물산포지 2로 보고되었다. 시천동의 서구와 계양구 경계 부분에는 꽃매산이 위치한다. 꽃매 주말농장 북편의 능선 밭 일대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과거에는 논으로 사용되다가 밭으로 전환된 곳이라고 한다. 과거의 조사에서 자기편이 확인되었다.²⁾

3) 시천동 진주 류씨 묘역

조선시대. 진주 류씨는 경상남도 진주시를 본관으로 갖는 한국의 성씨다. 시조는 고려의 개국공신 대승공 류차달이다. 진주 류씨는 두 계통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진(移晉)은 문화 류씨 시조 대승공 류차달의 10세손 류인비(柳仁庇)를 시조로 하고, 토진(土晉)은 고려 중기에 금자광록대부중서령좌우위상장군(金紫光祿大夫中書令左右衛上將軍)에 이르고 진강부원군(晉康府院君)에 봉해진 류정(柳挺)을 시조로 한다.

시천동에 있는 진주 류씨는 이류로 그중에 영천공파이다. 영천공파의 시조는 류인비의 15대손인 류창진(柳昌辰)이며 그의 3대손인 류세만(柳世萬)이 1685년(숙종 11년)에 시천동에 터를 잡았다. 이는 진주 류씨가 광해군 대부터 세력을 잃은 북인세력에 속해 정치권력에서 밀려났기 때문이었다.

아라뱃길 시천동 일대는 진주류씨 영월공파의 집성촌이 되었고 18명의 과거 합격자를 배출했다. 2011년 아라뱃길이 완공되면서 진주 류씨 집성촌은 아라뱃길 속에 잠겨버렸다. 이에 진주 류씨 집안사람들은 2014년 옛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시천동 93-1번지에 집안 사당인 사우(祀宇)를 짓고 이름을 시계정사(柴溪精舍)라 지었다.

시천동 진주 류씨의 묘역에는 류춘동(柳春東), 류택동(柳宅東), 류지흡

2) 『仁川北部 綜合學術調査』,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신공항고속도로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인하대학교박물관, 1994.

(柳之翕) 등 7기의 합장묘가 있다. 통정대부대사간 류택동의 묘, 묘비 뒷면에 그의 이력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고 비는 1989년에 건립되었다. 비문에 의하면 1837년(헌종 3년)에 문과에 급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류지흡의 묘비 뒷면에는 가계도를 기록하여 놓았다.³⁾ 그러나 지금은 지면이 바뀌었으며 묘역의 일부만 남아있다.

4) 시천동 원주 원씨 묘역

조선시대. 시조는 당 태종이 고구려에 파견한 8학사 중 한명인 원경(元鏡)이다. 그는 당나라에서 금자광록대부평장사(金紫光祿大夫平章事)를 지냈으며, 고구려에 와서 두 나라의 국교 회복과 고구려 보장왕(寶藏王)의 책봉에 힘썼으므로 보장왕이 그를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봉하였다.

운곡공계, 원성백계, 시중공계 세 계통으로 나뉘며 운곡파(耘谷派)는 원경의 계통이며 원성백파(原城伯派)는 고려를 개국할 때 공을 세워 통합 삼한벽상 개국익찬일등공신으로 정의대부 병부령을 지냈으며 원성백에 봉해진 원극유. 시중공파(侍中公派)는 고려 신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우시랑을 역임하여 원주를 본관을 삼은 원익겸이 세계를 이어왔다. 이 외에 상호군을 지낸 원충갑을 시조로 하는 충숙공계가 있었으나, 원충갑이 원성백계의 원극유의 11세손임이 밝혀져 원성백계와 합보되었다.

시천동 원주 원씨 묘역에는 원주 원씨의 중시조 원만시(元萬始)와 성거(聖舉), 해익(海翼)의 합장묘와 만언(萬言) 합장 묘단이 있다. 원만시의 묘 앞에는 상석과 묘비, 망주석, 문인석이 있다. 묘비는 1997년에 건립된 것으로 만시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있다.⁴⁾ 대표적인 인물인 원만시는 증좌승지, 행승의랑을 역임했고 원관(元灌)은 현감으로 관

3) 『桂陽史』,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1.

4) 『桂陽史』,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1.

직에 진출했다. 그러나 지금도 남아있으나 지면이 바뀌어 있다.⁵⁾

5) 시천동 느티나무



사진15 시천동 느티나무

시대미상. 시천동 162-23번지에 위치하며 1982년에 시천동의 동목이자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수령이 250년가량 된 이 느티나무는 높이 20m, 나무둘레 3.7m의 거목으로, 원래는 과거 마을회관 옆 시천동 107번지에 위치해 동민들의 쉼터로 애용되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굴포천 방수로공사와 관련해 주변이 철거되면서 2002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현재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수목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게 보존되고 있다.

5) 지면이 바뀐 것이 나중에 확인되어 '시천동 문화유산 분포'에 넣을 수 없었다.

6) 황해사(黃海社) 간척지

일제강점기.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64 일대에 위치한다. 황해사는 일본인 마츠야마 츠네지로(松山常次郎)가 1918년 3월에 수리사업의 측량설계와 수리 및 철도 공사의 청부를 명목으로 창설한 토목회사 자리이다. 이 회사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을 등에 업고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고 대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하여 대토지 경영을 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시류하천의 간척지를 비롯하여 부평수리조합, 함안 1·2차 수리조합, 연해수리조합 등이 있다. 이는 송병준의 한들방죽이 성공해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온 것을 본 직후였다.

이 회사는 썰물 때 흰하게 드러나는 갯벌을 논으로 만들기 위해 청라도까지 독을 쌓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내부 사정 때문인지 실제로 일을 착수하지도 않은 채 그 건물은 비워졌다. 황해사가 눈독을 들였던 그 갯벌은 결국 80년이 지나 동아개발이 매립에 성공했다.

이 기록은 2004년도에 간행된 첫 『서구사』의 기록으로 검암동의 일화(逸話)를 소개하는 한 대목을 발췌한 것이다. 이 구절만으로도 당시 일본인들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토지 침탈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한 예가 바로 황해사이기도 한 것이다.

황해사는 당시 경성부 영정(榮町), 곧 용산구 신계동 6번지에 본점을 두고 인천에도 두었는데 1921년도 자료를 보면 사업목적이 조선 및 만주 시베리아, 중국 청도에 있는 농사 경영 및 식림. 신탁업, 광산업, 전기 사업 경영 및 토지 매매 및 중개업. 전 항의 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측량, 설계, 청부, 기타 부대사업으로 되어있을만큼 토지 관련 사업을 주로 하는 전문 회사였던 것이다.

특히 1921년 6월 8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황해사 사장 마츠야마 츠네지로는 인천 앞바다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 사업은 경비 문제 등으로 실현에 옮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밖에도 부천, 김포에 연한 부평 평야 3500정보에 대한 수리사업을 위해 그 측량을 맡는 등 인천 인근에서의 사업에도 열을 올린 것을 알 수 있다.

『서구사』에는 기록이 없지만, 2004년 시립박물관에서 행한 인천북부 종합학술조사에 의하면 황해사가 시천동 164번지, 시천천 하류 일대를 간척해서 관리했다는 조사 기록도 보인다.

신문기사에는 황해사가 황해도 장연군 대구(大救), 용연(龍淵) 2개 면(面)의 임야 개간권을 총독부로부터 대부분은 황해사가 토지 연고자들에 대해 협박 또는 농락을 일삼으면서 연고권 매수 대금을 1년 이상 지불하지 않고 있어 원성이 자자하다는 제목이 있다. 황해사는 이런 식의 야비한 행태를 여러 곳에서 드러내기도 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송병준이 국유미간지 개간이라는 미명으로 한들방죽을 개간한 전례를 보고 검암리와 청라도를 잇는 갯벌에 독을 쌓고 간척을 통해 그 갯벌을 논으로 만들려던 계획을 가지고 달려들었던 황해사가 슬며시 꼬리를 감춘 것은 실제로 ‘내부 사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보다 알짜배기 노른자위 사업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다. 황해사에 의해 관리되던 시천하류 간척지는 해방 이후 해안 가까운 곳에 염전이 조성되고 일부는 경지로 불하되었으나 현재는 동아산업개발에서 택지 조성을 하였다.

시천천 하류의 간척지는 『문화유적분포지도』에 ‘황해사간척지(黃海社干拓地)’에 나오고 있다. 황해사는 함안수리조합·부평수리조합·연해수리조합 등에서 발주한 대규모 수리사업의 토목공사를 수행했다. 즉 황해사의 사업목적은 수리사업의 측량설계와 수리 및 철도공사의 청부에 있었던 만큼 황해사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간척사업의 청부 시행업자로 볼 수 있다.

즉 시천천 하류 간척지는 조선후기 혹은 20세기 초에 세워진 한들방죽

이 무너져 시천천 하류 일대는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13년 백석리 일대의 국유미간지(國有未墾地) 개간의 허가권을 얻은 송병준이 간척 사업에 계속 실패를 하다가 1915년 이후 어느 시기에 황해사에 청부를 맡겨 공사를 재개하고 1919년 간척지를 완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병준은 1920년대 이후 지나친 사업 확장으로 부채가 급속히 늘고 자본은 감소하며 잇단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1927년 그의 사후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토지는 평안북도 안주와 경기도 개성 등에 683만평이라는 여전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서구 지역의 간척지는 없었다. 따라서 백석·시천·검암의 간척지는 사업 후 곧바로 타인에게 전매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에 동아건설이 산업단지와 농지를 만들기 위해 매립하였지만 나중에 LH공사에 매각하여 개발하였고 지금은 경인아라뱃길로 사용중이다.

7) 한들방죽



사진16 한들 방죽

일제강점기. 방죽은 하천부(河川部) 등에서 수위(水位) 이하에 구조물을 구축할 때 물을 차단하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본 구조물 설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설적(假設的)으로 구축되는 벽 혹은 제방(堤防)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서곶'과 '검단' 등의 해안 쪽에 있는 마을들은 대부분 예전에는 갯벌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나라

의 살림살이가 어려워 해안가 지역에서는 대규모 제방 공사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양의 돈 많고 권세 높은 사람들이 제방을 쌓고 해안가 지역에 간척하려 하였다. 그러나 간척사업이 쉽게 되지는 않았다. 특히 '갯골'이라 부르는 곳의 매립이 매우 어려웠다. 갯골은 갯벌 가운데서도 뱀처럼 굽은 상태로 뿔려있는 곳을 가리킨다. 갯골은 밀물과 썰물이 빠르게 드나드는 곳이라 더욱 매립이 어려웠다. 한들방죽을 쌓을 때도 이 갯골이 문제였다.

한들방죽 안쪽의 간척지는 제방축조 이후에도 여전히 농경지로 경작되지 않고 있다. 백석방죽, 흰들방죽, 거지방죽이라고도 불리는 한들방죽은 청대방죽보다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봉죽'이라고도 한다. 구한말에 착공하였다가 실패하고 1919년에 송병준이 완공한 방죽으로써 1960년대에는 노선재라는 사람의 소유가 되어 노선재 방죽이라고도 한다.

거지방죽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곳은 과거 드넓은 갯벌이었다. 서울의 돈 많고 권세 높은 사람들이 독을 막고 간척하려했다. 그러나 썰물 때 간신히 갯벌을 파 놓으면 밀물이 밀려와 모두 덮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마지막에 돈을 대며 덤빈 사람이 친일파이자 재력가인 송병준이었다. 공사를 시작했으나 제방이 거둬 터져 몇 달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한들방죽을 한창 쌓고 있던 어느 날, 방죽 공사의 현장 책임을 맡은 사람이 무너진 독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아무리 매립을 하려 해도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독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 도무지 방죽을 쌓을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그 때 탁발을 하러 나선 한 스님이 바람을 메고 지나가고 있었다.

방죽 공사 책임자는 스님에게 이 일을 상의하자 스님은 독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원해 주었다. 그리고는 가던 길에 혼잣말로 "물길 막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스님의 말을 들은 방죽 공사 책임자

는 그 방법을 물었다. 그러나 방죽 공사 책임자의 간곡한 부탁에도 스님은 입을 닫고 고개만 저를 뿐이었다. 방죽 공사 책임자는 다시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다. 그러자 스님은 방죽 공사 책임자에게 독이 무너지지 않게 할 방법을 일러주었다.

스님은 독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시대 때 서라벌에서 에밀레종을 만들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준 스님은 방죽 공사 책임자에게 인사를 하고는 길을 떠났다.

스님이 가고 나서 한들방죽 현장 책임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독을 쌓을 때 사람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 다시 독을 막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독이 무너졌다. 다시 막으려 해도 계속해서 독이 무너졌다.

한편, 그 무렵 방죽을 쌓는 공사장에 일꾼들이 밥을 먹을 무렵이면 가끔 찾아와 배를 채우고 가는 ‘장쇠’라는 거지 총각이 한 명 있었다. 방죽 공사 책임자가 공사장에 찾아와 일꾼들이 남긴 음식을 얻어먹는 장쇠를 불러서 물어보았다. “네가 혹시 원하는 소원이 있느냐?”, “배가 터지게 고기 반찬을 먹어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고기반찬을 실컷 먹으면 죽어도 좋으냐?”, “네, 죽어도 좋습니다.” 방죽 공사 책임자는 그날부터 장쇠에게 쌀밥과 고기반찬을 배부르게 먹게 하였다. 한편, 일꾼들에게는 독 쌓을 돌과 흙을 미리 날라 오게 시켰다.

며칠이 지난 후 다시 독 막을 준비가 모두 끝났다. 방죽 공사 책임자는 장쇠에게 술을 잔뜩 먹였다. 술을 많이 받아 마신 장쇠는 그만 취해서 쓰러졌다. 장쇠가 쓰러지자, 방죽 공사 책임자는 바다와 토지의 신에게 상을 차려 놓고 기원을 하였다. 그러자 방죽 공사 책임자가 절을 하자마자 일꾼들은 상에 차린 제물들과 함께 술에 취한 장쇠를 갯골에 던졌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돌과 흙으로 메워 버렸다. 바닷물이 다시 밀려올 때까지 죽을힘을 다해 독을 쌓았다.

장쇠를 묻고, 독을 쌓기 시작한 지 반나절 정도 되어서 바닷물이 갯골을 따라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방죽 공사 책임자와 일꾼들은 죽은 장쇠를 위로하며, 독 위에서 수없이 절을 하였다. 마침내 바닷물이 모두 들어왔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 썰물이 시작되자 방죽 공사 책임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방죽 공사 책임자와 일꾼들은 독 쌓기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장쇠를 위해 다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거지 장쇠를 묻고 쌓은 한들방죽이기에 ‘거지방죽’이라 부르게 되었다. ‘거지를 묻고 쌓은 인천광역시 백석동의 한들방죽’은 서해안 일대 간척사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명유래다. 한 사람을 희생해 가면 쌓을 정도로 어려웠던 ‘한들방죽’을 강조하고 있다.⁶⁾

방죽의 축조 연대나 주체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제방축조 기술은 18세기 강화의 선두포축언(船頭浦築堰)이나 시흥의 진흥청신언(賑恤廳新堰)과 같은 대공사를 성공시킨 사례가 있었던만큼 한들방죽 축조가 당대 기술로 어려운 공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1911년 지형도에 이미 제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조선시대 말 무너진 방죽을 다시 수축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1916년 지형도에는 한들방죽 안쪽에 새로운 제방을 세우고 저수지를 만든 모습이 보인다.

새로 개간된 간척지는 지속적으로 하천의 물을 유입시켜 염기를 제거하는 숙답(熟답)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중으로 제방을 쌓고 하천수를 담수시키는 숙답의 과정은 보통 2~4년이 소요되므로 시천천 하류의 간척지는 늦어도 1920년 이후에는 경작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소실이 되

6) 『옛날옛적에 인천은』, 인천:인천광역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어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8) 구슬원 터(球瑟院 址)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통치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과 통신 그리고 운수조직이 정비되어 갔다. 숙박시설도 초기에는 이러한 방향에서 원(院)이 설치되었다. 원은 숙박시설로 관리나 백성들의 출장이나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로의 요충지나 인가가 드문 깊은 산속에 설치되었다.

조선은 개국 초에 승유억불정책을 내세워 사찰을 정리함과 동시에 종래에 사찰이 운영하던 원까지 모두 국유화하여 역참제(驛站制)의 보조기관으로 삼았다. 그런데 원은 사용자가 국한되어 있었고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조선 초부터 폐지된 곳이 많았다. 이에 1445년(세종 27년)에는 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근 주민 중에서 덕망 있는 사람을 뽑아 운영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원주전(院主田)을 지급하여 원의 경비로 쓰게 했다.

원은 교통상의 요지만이 아니라 산속이나 험한 길가에도 설치되었다. 그리고 원은 교통의 편의 제공 외에도 빈민 구제의 역할도 하였다. 실제로 조선왕조는 서울 근요의 홍제원(弘濟院)·보제원(普濟院)·이태원(梨泰院) 등에 빈민과 기민을 응급 구호하기 위해 진제장(賑濟場)을 설치 운영했다.

이는 본래 지방에서 서울로 몰려들어 무위도식하려는 무리들을 일시적으로 진휼하여 그들이 도성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보려 한 데 그 설치의도가 있었다. 정부는 진제장에 의원을 배치하여 병자를 치료해 주기도 하고 제용감(濟用監)으로 하여금 옷을 지어주게도 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전국 원의 수효는 대략 1,300여 개소였다. 대체로 도로 가까운 곳에 설치된 원은 30리에 하나씩 설치하였으나 지

형조건에 따라 평지에서는 다소 멀고 산악지대에는 가깝게 두었다. 그러나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원은 거의 폐허화되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만간에서 사사로이 개선한 점(店)을 이용했다.

점은 대개 원 터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원의 이름이 점의 이름으로 된 곳이 많았다. 여행자가 점에서 숙식할 때는 방화전(防火錢)이라 하여 숙식비를 지불하였다. 점은 조선후기에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교통이 빈번해지면서 주점·주막으로 부르던 거릿집으로 발전해갔다. 『대동지지』에 의하면 각 역로 주변에 국가가 공무 여행자들의 숙식을 위하여 원을 세웠으나 임진왜란 이후 대부분이 문을 닫고 점사(店舍)가 새로이 생겨났고 원 이름이 그대로 점 이름으로 된 곳이 많다고 하였다.

지금의 서구지역이었을 부평지역에 설치되었던 원으로 시천동에 구슬원이 있었다. 구슬원에 대해서는 1530(중종 25년)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평도호부 역원조와 1656(효종 7년)년 편찬된 『동국여지지』 부평도호부 우역(郵驛)조에는 구슬원이 “부 북쪽 10리 되는 곳에 있다.”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760(영조 36년)년경 편찬된 『여지도서』의 수원진과 부평부 역원조에는 구슬원이 “관아의 북쪽 10리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1871년 『부평부읍지』 역원조에는 “부 북쪽 10리 되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지리지의 기록에 의하면 구슬원은 1530(중종 25년)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발간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871년(고종 8년) 『부평부읍지』의 기록에는 구슬원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나 구슬원은 1871(고종 8년)년 이전 어느 시점에 주막의 형태로 변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현재 시천동의 구슬원은 원사(院舍)의 초석이 8개나 있다고 전해지나 현재는 흔적이 없다.

9) 유희강 생가 터



사진17 유희강 생가 터

일제강점기~현대. 유희강은 호가 검여(劍如)이며 소완재주인(蘇阮齋主人), 시계외사(柴溪外史), 불함도인(不咸道人), 몽학선관주인(夢鶴仙館主人)이라는 별칭이 있다. 가학으로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다. 1937년 명륜전문학원을 졸업한 뒤 북경(北京)에 가서 서화 및 금석학을 배웠다.

1939년 북경 동학회어학교(同學會語學校)를 졸업하였고, 1940년에는 『강서시보(江西時報)』의 편집장을 역임하였다. 1945년 광복군 지대장(支隊長)의 비서로 있다가 해방과 함께 1946년 귀국했다.

1946년 귀국한 뒤 인천시립박물관장·인천시립도서관장 등을 역임하고, 인천교육대학 강사로 활동하다가, 1955년 대동서화 동연회(大東書畵研究會) 회장 및 미술가협회 중앙위원을 역임했고, 인천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1962년 서울 관훈동에 검여서원(劍如書院)을 열어 서예연구와 후학지도에 힘썼으며, 홍익대학교 등에 출강하였다. 1968년 뇌출혈로 인한 오른쪽 반신마비를 극복하고 왼손으로 연구를 계속하여 인간승리의 극적인 일화를 남겼다.

1953년 제2회 국전에 입선, 제4회에 특선하고, 제5·6회 문교부장관상을 받은 이래 추천작가·초대작가·심사위원을 지냈으며, 1959년 제1회 개인전을 비롯한 6회의 개인전과 한국서예가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현대서예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글씨는 전·예·해·행서에 두루 능하였고, 초서는 그다지 즐기지 않았으며, 전각과 그림에도 능하였다.

전·예서는 청나라의 서도가인 등석여(鄧石如, 1743~1805)를 토대로 하였으며, 해·행서는 처음에는 황정견(黃庭堅)과 유용(劉鏞)을 섭렵하다가

차차 북위서(北魏書)를 가미하여 웅혼(雄渾)한 기운이 담긴 서풍을 이루었다. 금석문으로 경기도 안산시의 『성호이익비명(星湖李瀾碑銘)』이 있다.

유희강 생가 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57-2 매화마을에 있으며 생가 근처에는 40여 년 이상이 된 매화나무를 심어 매화동산을 만들었으며 추위(시련)를 이겨내고 꽃을 피워 봄을 알리는 매화를 예찬한 시인 안민영의 매화사와 우리나라 최초의 매화시를 지은 신라 말기의 문인 최광유가 지은 뜰매화가 쓰여 있는 비석을 확인할 수 있다.

생가 터는 인천 서구 검암동과 시천동이 맞닿은 자리다. 마을 앞의 동산에 산수유, 진달래가 가득 피어서 조선시대의 마을 이름은 ‘꽃피’였다. 그 자리에 다시 꽃나무를 심고 정자를 지어서 ‘꽃마루’라고 이름을 붙였다.

유희강 생가 터는 유희강과 관련된 사적지인 만큼 유희강의 글이 있다. 1961년에 쓴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침내 일을 성사한다는 뜻에 유지자 사경성(有志者事竟成), 1963년 책을 쌓아둔 것이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낫다는 뜻에 적서승금(積書勝金), 유희강이 왼손으로 쓴 탐매도를 볼 수 있으며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도산월야영매도 볼 수 있다.

후원으로 향하면 창덕궁의 불로문(不老門)을 본 뜬 불로문을 볼 수 있으며 후원에는 옹기원(甕器院)을 볼 수 있다. 이곳의 옹기에 매화나무 열매인 매실을 저장하고 관리한다. 그 외로 옛 사대부가의 상징이자 전정(前庭), 주정(主庭), 후정(後庭)으로 연결된 문안에 또 세운 문인 중문(重門)과 매화, 죽림이 유희강의 생가 터를 장식하고 있다.

10) 시천동 류씨 과거 답안지(시권)

조선시대. 시권이란 과거응시자들이 제출한 답안지 혹은 채점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과거시험이 끝나고 채점이 된 이후 시권은 합격시권과 낙방시권으로 분류하며 합격시권은 합격증서인 홍패(紅牌)·백패(白牌)와 함

께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래서 시천동 류씨 집안에 시권이 남아있게 된 것이다.

입향조 류세만의 증조 영원공 류창진 이후 5대에 걸쳐 과거 합격자를 내지 못하였던 시천동 류씨 집안인 시시내문증은 류지우를 시작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지만 대부분은 중앙정치무대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

시시내문증의 문과 급제자들 중 류지우가 정5품인 예조정랑과 병조정랑, 류춘동은 고산찰방을 거쳐 정5품의 이조정랑, 류지익도 정5품 사헌부 지평이 그들이 지낸 가장 높은 관직이다. 그러나 1837년(헌종 3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 홍문관 수찬 등을 지내고 1856(철종 7년)년 65세 나이로 중시(重試)에 합격한 류태동은 승정원 동부승지·영흥대도호부사·승정원 좌부승지들의 관직과 3차례의 대사간을 역임하면서 시시내문증은 당상관을 배출한 가문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동생과 종형제인 류택동과 류정동은 문과에 급제하지는 못했지만 각 정6품인 공조좌랑·인동도호부사, 류국형은 북부도사의 관직을 지냈다. 그 외 류지광·류지습·류래형·류정무·류희태는 사마시에는 합격하였으나 문과급제와 관직 진출에는 실패했다.

문증에서 소과를 거쳐 가장 먼저 문과에 급제한 류지우는 1774년(영조 50년) 식년시의 진사시에서 3등 35위로 합격했다. 진사시 합격 후 성균관에 들어갔고 1794년(정조 18년) 정시(庭試) 문과에서 병과(丙科) 21위로 합격했다.

문과 급제 후 같은 해 성균관 전적을 시작으로 1799년(정조 23년) 정 5품인 예조정랑과 병조정랑을 지냈다. 그해 9월에 임금의 어가가 궁을 나갈 때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금하지 못하여 그 직임을 맡은 금훤낭청(禁喧廊廳)으로 삭직처분을 받았다. 그해 12월 직첩(職牒)을 돌려받았으나 같은

해 생을 마감했다. 이러한 시천동 문화류씨 시권은 현재 인천서구문화원에 남아있다.

이러한 시천동 류씨 가문에 남아있는 시권으로는 류태동의 시권의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유식년문과전시(丁酉三年式年文科殿試)시권’이고 또 하나는 ‘병진년친림춘당대금병진년문관중시(丙辰七年親臨春塘臺今丙辰年文官重試)시권’이다. 또한 류지흡의 응제시 시권, 류백무(류익무)의 시권, 류서동의 시권, 류정무의 시권 등이 남아있다.

Ⅱ 시천동 류씨 주요 과거 합격자

① 류지광(柳之翺, 1768~1823)

류지광은 1797년(정조 21년) 9월 21일 정조(正祖)가 김포의 장릉(章陵)에 행차 행차하면서 어가(御駕)가 지나갔던 김포·양천·화성·부평 등 10개 고을의 유생들에게 보인 응제시(應製試)에서 시로 이하일(二下)의 성적을 거둬 감시(監試, 사마시)에서 초시를 치르지 않고 회시(會試,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 그 후 류지광은 1801년(순조 1년) 증광시의 진사시에서 2등 11위로 입격한 이후 관학에 들어갔으나 문과급제와 관직 진출에 실패했다.

② 류춘동(柳春東, 1776~?)

시시내문중에서 두 번째로 문과에 급제한 류춘동은 소과를 거치지 않고 1803년(순조 3년) 알성시에서 28세 나이로 병과(丙科) 1위로 급제했다. 이때의 과거는 장원(壯元)인 갑과 1인, 아원(亞元)인 을과 1인, 탐화랑(探花郎)인 병과 1인의 전체 3명만을 선발했다.

승정원 가주서로 시작하여 1810년(순조 10년) 병조좌랑·사헌부 지평, 1812년(순조 12년) 사간원 정언·함경도 안변의 고산찰방(高山察訪)을 거쳐 1815년(순조 15년) 정5품의 이조정랑을 끝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관직 생활을 마쳤다.

류춘동을 지평으로 재직할 때인 1812년(순조 12년) 1월 19일에는 사간 이지연(李志淵), 헌납 임업(任燦), 정언 안상묵(安尙默)·박성한(朴聲漢), 지평 박승현(朴升鉉) 등과 사헌부와 사간원이 올리는 차자에 연명하여 국왕의 비답을 받았다.

이 차자는 홍경래의 난 때 관서의 농민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경군(京軍)을 기다리면서 진압하지 못해 사직된 전 평안감사 이만수와 전 병사 이해우를 다시 처벌하여 귀양을 보내야 한다는 것으로 그 결과 비변사에 다시 계를 올려 이만수는 경주부(慶州府), 이해우는 순창군(淳昌郡)으로 귀양을 보냈다.

3일 뒤인 1월 22일에는 홍경래의 난 이후 백성의 안집을 위해 순조가 반포했던 윤음을 한문과 한글로 번역해 집집마다 널리 알려 관서의 백성들이 조정의 혜택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식량과 농사 종자를 넉넉하게 주어서 흩어진 백성의 안집과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는 계책을 국왕에게 직접 올려 홍경래의 난의 수습책을 마련하여 건의하기도 했다.

1813년(순조 13년) 고산찰방으로 재직할 때에 지난 봄 흉년으로 상세(商稅)가 걷히지 않자 상인에게 건어야 할 1년 상세 400냥을 역참에 맡려 있는 역호(驛戶)에게 배정하는 실정을 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받았다. 이는 당시 함경도 암행어사 구강(具康)에 의해 국왕에게 서계로 올라오기도 하였다.

이 사건이 처리 결과는 알 수 없으나 류춘동이 2년 후인 1815년(순조 15년)에 이조정랑을 제수 받은 것을 보아 이로 인해 일정기관 관직에 임명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류춘동은 이조정랑을 지낸 이후 관력은 기록에 보이지 않고 1817년(순조 17년) 류춘동의 부친 류지상(柳之翔)과 지평 신경희의 부친이 함께 70세가 되어 통정대부로 초자(超資) 되었다.

③ 류지익(柳之翊, 1760~1825)

시시내문중에서 세 번째로 문과에 급제한 류지익은 1789년(정조 22년) 식년시의 진사시에 1등 4위로 입격하였고 1805년(순조 5년) 증광시에서 병과 27위로 급제했다.

류지익은 류세백의 후손 중 가장 먼저 문과에 급제한 인물로 소과 입격 이전인 1791년(정조 15년) 응제의 칠언고시(七言古詩)에서 초삼하(草三下)를 맞아 장지(壯紙) 1권을 하사받았고, 1797년(정조 21년) 9월 정조의 김포 장릉 행차 때 어가가 지나갔던 10개 고을 유생 응제 때, 시에서 삼상(三上)을 맞아 『오륜행실』 1권을 하사 받기도 했다. 당시 시제는 「석호가정별업도에 제하다(題石湖佳亭別業圖)」였다.

1805년(순조 5년) 문과 급제 후 류지익은 가주서로 관직을 시작하여 1811년(순조 11년)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능인 휘릉(徽陵)의 별

검(別檢)이 되었다. 1814년(순조 14년) 성균관 종친부의 전부(典簿), 사헌부 감찰(監察)을 지냈다. 그 해 영조와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능인 원릉(元陵) 친제 때 집존(執尊)을 하여 상현궁(上弦弓)을 하사받기도 했다.

1819년(순조 19년) 정5품 사헌부 지평, 1822년(순조 22년) 종6품 외관직인 평안도의 대동찰방을 끝으로 관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문집은 『계은유고(桂隱遺稿)』가 전한다.

④ 류지습(柳之習, 1767~1829)

류지습은 1801년(순조 1년) 증광시 생원시에서 3등 45위로 입격하여 관학에 들어갔으나 문과 급제와 관직 진출에는 실패했다. 또한 류지습은 사마시 입격 전 1797년(정조 21년) 9월 정조의 김포 장릉 행차 때 어가가 지나갔던 10개 고을 유생 응제 때 송(頌)에서 차상으로 소본 『규장전운』 1권을 하사받았다. 당시 송제(頌題)는 계양산(桂陽山)이었다.

⑤ 류태동(柳泰東, 1792~1864)

시시내문중 출신 중 가장 순탄한 관로를 거쳐 정 3품 당상관 대사간까지 지낸 류태동은 1837년(헌종 3년) 식년시에 병과 7위로 급제했다. 급제 후 승정원 가주서로 관직을 시작하여 1839년(헌종 5년) 장령전별검(長寧殿別檢), 1841년(헌종 7년) 성균관 전적,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고 1844년(헌종 10년)에는 봉화현감으로 외직에 나갔다가 1845년(헌종 11년) 사헌부 장령을 지냈다.

류태동은 지평으로 재직할 당시 노모의 병 구호를 위해 사직하는 소를 올리자 사직하지 말고 병간호를 하라는 전교를 받을 정도로

조정에서 신임이 두터웠다. 그러나 장령으로 재직할 당시 대사간 김필, 장령 성용묵 등과 함께 올린 중궁전(中宮殿)의 문후(問候)를 없애지 말라는 연명 차자(劄子)로 신안의 지도(智島)에 유배되기도 했다.

유배에서 풀려난 류태동은 철종 대에 재기하여 1850년(철종 1년) 사헌부 장령에 다시 기용되었지만 당시 영의정 권돈인의 진종(眞宗)의 조천(祧遷)에 대한 의견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간삭(刊削)의 벌을 받았다. 1854년(철종 6년)에는 기문현(奇文鉉)·이명윤(李命允)·한응순(韓應淳) 등 32인과 함께 도당록(都堂錄)에 이름을 올렸다.

홍문관 수찬으로 재직하던 1856년(철종 7년) 65세 나이로 당하관 이하 문·무관의 진급시험인 중시에 병과 3위로 합격하여 정3품 당상관의 반열에 올랐다. 중시 합격 후 호조참의·병조참지·승정원 동부승지 등을 역임했고 1858년(철종 9년)에는 사간원 대사간, 1860년(철종 11년)에는 외직인 영흥대도호부사로 나갔다가 1861년(철종 12년)에는 승정원 좌부승지, 1862년(철종 13년) 호조참의 다음 해 다시 대사간을 끝으로 관직 생활을 마쳤다.

⑥ 류정동(柳鼎東, 1789~1864)

1822년(순조 22년) 식년시 진사시에 3등 27위로 합격했다. 1841년(헌종 7년) 희릉(禧陵) 참봉으로 관직을 시작을 시작하여 1848년(헌종 14년) 정6품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1851년(철종 2년)에는 외직인 충청도 연풍의 현감으로 나갔으나 1852년(철종 3년) 8월 봉수불칙의 죄(烽燧不飭之罪)를 범해 류정동을 비롯한 세 고을의 수령이 장(杖) 80의 벌을 받았고 벌에 해당하는 돈을 내는 수속(收贖)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류정동이 현감으로 있던 연풍과 이웃한 충주·문경의 봉

수대에서 봉화를 잘못 올린 사건이었다. 문경에서 1개의 봉화를 꺼뜨려 연속 3번 올린 것을 연풍 마골산 봉수가 3개의 봉화를 올렸다. 그런데 이를 받은 충주 대립산 봉수는 1번도 올리지 않았다.

봉화가 3거하면 적군이 해안이나 국경에 가까이 접근한 전쟁 상황을 알리는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해당 고을의 책임자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죄를 물은 것이다. 이 사건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류정동은 이후의 관직은 확인되지 않는다.

⑦ 류택동(柳宅東, 1813~1867)

대사간을 지낸 류태동의 동생으로 1849년(헌종 15년) 식년시 진사시에서 3등 32위로 합격했다. 1858년(철종 9년) 후릉(厚陵) 참봉으로 관직을 시작하여 1862년(철종 11년) 전설사 별검, 1862년(철종 13년) 상의원 별제, 같은 해 정6품 공조좌랑을 지냈다. 1863년(철종 12년) 2월 건릉 한식제에서 배향에 기다리지 않은 죄로 경상도 문경에 유배되었고 같은 해 7월에 풀려났다.

고종 즉위 후인 1864년(고종 1년) 직첩을 다시 받아 종친부 전부, 동부 영(令)에 제수되었고 1865년(고종 2년)에는 조세 문제로 죄를 받았으나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교체되지 않고 죄를 댄 채 근무하였고 1866년(고종 3년) 은사되었다. 1867년(고종 4년)에는 왕실의 족보인 『선원속보(璿源續譜)』를 수정할 때 참여하여 아마(兒馬) 1필을 하사받기도 했다.

⑧ 류태형(柳台衡, 1826~1904)

1876년(고종 13년) 식년시 진사시에 2등 7위로 합격하여 1877년(고종 14년) 온릉(溫陵) 참봉을 시작으로 1882년(고종 19년) 후릉 참봉,

1884년(고종 21년) 정6품 공조좌랑, 1885년(고종 22년) 사직서 영을 지냈다. 1889년(고종 26년) 인동 도호부사가 결원이 되자 군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현감에서 도호부사로 승진되었다.

그 후 1889년(고종 26년) 9월 21일 용궁현감(龍宮縣監), 1891년(고종 28년) 7월 29일 안협현감(安峽縣監), 1894년(고종 31년) 9월 28일 삭녕군수(朔寧郡守) 등의 관직을 지냈다. 문집으로는 『삼성재유고(三星齋遺稿)』가 전한다.

⑨ 류국형(柳國衡, 1824~1905)

류국형은 류태동의 아들로 44세 되던 해인 1867년(고종 4년) 식년시 진사시에서 3등 27위로 합격했다. 합격 당시 거주지는 강화였고 합격 후인 1884년(고종 21년) 북부도사를 지냈으나 그 외의 관직은 확인되지 않는다.

⑩ 류래형(柳來衡, 1850~1930)

류래형은 류태동의 동생인 류영동의 아들로 1891년(고종 28년) 증광시에서 3등 463위로 합격했으나 문과 급제와 관직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⑪ 류정무(柳正茂, 1848~1925)

류정무는 1885년(고종 22년) 식년시에서 진사시에서 2등 3위로 입격했다. 1905년(고종 42년) 숙릉(淑陵)의 사초(莎草)를 개수할 때 감동별단에 들어 당시 9품이었던 류정무(柳正茂)의 관품이 6품으로 올랐다. 그 외의 관직은 확인되지 않았다.

⑫ 류희태(柳熙泰, 1863~1927)

갑오개혁 이전 조선왕조의 마지막 과거인 1894년(고종 31년) 식년시에서 3등 138위로 합격하였으나 문과 급제와 관직 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仁川北部 綜合學術調査』,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 『신공향고속도로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인하대학교박물관, 1994.
- 『桂陽史』,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1
- 『옛날옛적에 인천은』, 인천:인천광역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4.
- 인천서꽃초등학교, 『자랑스런 내고장 서구』 새문화사, 1991.

11) 단묘어제



사진18 단묘어제 사진

조선시대. 단중어제라고도 불리며 시천동 류씨 가문에서 보관하던 문서이다. 현재는 불에 타서 사라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단묘어제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단중이 영월로 유배갔을 때

의 강원도 관찰사이기 때문에 유배지에서 단중의 모습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묘어제는 단중의 부인이 자신의 친정인 시천동 정씨에게 보냈다고 하며 시천동 정씨에서는 이것을 사돈인 류승지 선생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시천동 류씨 집안에서 보관해오다가 보일러 고장에 의한 화재로 불에 타서 현재는 사라지고 없고 故 이훈익 선생이 쓴 『인천지』에 단편적인 사진만 전해온다.

VI.



VI. 청라동

1. 청라동의 연혁과 지명

청라(靑羅)라는 지명은 간척사업이 진행되기 전 서해안에 있었던 청라도(靑羅島)에서 유래하였는데, 이 섬은 해발 67.7m, 둘레 5km, 면적 0.79km²에 달하며 서쪽 앞바다의 섬들 중 가장 큰 섬으로 푸른 넝쿨과 관목들이 많다는 뜻으로 ‘파렴’ 혹은 청라도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부평군 석곶면에 속하던 지역으로, 1914년 일제에 의해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부천군 서곶면 관할이 되었다. 1940년 부천군이 인천부로 편입되었고, 1949년에는 인천부가 인천시로 승격되었다. 1968년 인천시가 구(區) 체제로 개편되면서 인천시 북구 서곶출장소에 편입되었다.

원래는 갯벌 지역이었으나, 농지조성의 목적으로 1979년부터 간척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인천시 북구와 남구 일부가 서구로 분리되면서 서구 관할이 되었다.

1991년 동아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한 간척사업이 준공되며 생긴 육지를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청라국제도시가 들어섰다. 2018년 청라국제도시에 속하던 경서동·연희동·원창동 일부 지역이 청라동으로 분동되었다.

경제자유구역구로 지정되면서 청라도의 역사성을 이어받고 “세계의 푸른 보석”이 되라는 의미로 ‘청라지구’라 칭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6월 서구 청라동 주민센터가 개청(開廳)되었다. 2011년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인천 서구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일원의 청라국제도시는 9만 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국제도시로서 송도, 영종과 더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구성하고 있다.

청라동의 중앙에는 청라호수공원이 남북으로 길게 조성되어 있으며, 도시의 한가운데를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는 인공 하천인 커널웨이와 연결된다. 동쪽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해 있고, 공촌천 너머 북쪽에는 골프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청라동의 서쪽에도 주거시설이 입주해 있으며, 청라국제업무단지, 인천로봇랜드 등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400번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이 밖에 경명대로, 경제로, 국제대로, 사파이어로, 봉오대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30번 고속도로), 청라루비로, 청라대로, 청라커널로, 청중로, 크리스탈로 등이 청라동을 지난다. 철로 시설로는 공항철도가 청라국제도시역을 경유한다.

2. 청라동의 문화유산



그림7 청라동 문화유산 분포(청라도 지석묘 외의 유적들은 정확한 주소를 특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표시할 수 없었음.)

1) 청라도 유물산포지

선사시대~조선시대. 2004년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조사에 의해 ‘청라도 유물산포지’로 보고된 곳이다. 청라도는 해발 70m 내외의 구릉 2개가 인접하여 구성된 섬이다. 섬의 서쪽은 매립되어 화력발전소 및 쓰레기 소각장이, 남쪽으로는 이도, 북쪽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다.

청라도 사면 말단부에는 민가 및 소규모 공장들이 조성되어 있으며 경사면 중간 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원지형이 일부 훼손되었다. 유물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시기이며 청라도 전체지역에서 고르게 확인되었

다. 과거의 조사에서 회청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백자 등이 수습되었다.¹⁾ 지금은 그 일대가 개발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다.²⁾

2) 청라도 지석묘

청동기시대. 2004년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조사에 의해 ‘추정 지석묘’로 보고된 유적이다. 청라도의 남동쪽 계곡부의 말단부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경인유스호스텔이 있다. 유스호스텔의 북동쪽의 능선 말단부에서 지석묘 1기가 확인되었다.

지석묘의 개석은 부정형으로 크기는 장축 230m, 단축 210m, 두께 60cm이며 하부에 지석으로 보이는 석재 2기가 확인되며 하부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석묘의 주변으로 지석묘의 개석과 비슷한 크기의 석재들이 다수 확인된다고 한다.³⁾ 경인인유스호스텔은 2003년 이후 청라지구 조성으로 철거되었으며, 이 지역은 현재 바이크파크, RC경기장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위치한 공원으로 조성되어 정확한 유구의 위치추정은 힘들다.

1) 『인천청라지구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2) 『서구사』에는 청라도 유물산포지의 주소를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 251, 산 252 일원”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번이 바뀌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청라동 문화유산 분포’에서 뺐다.

3) 『인천청라지구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3) 장금도 패총⁴⁾

선사시대. 패총은 인천 내륙방향으로 완만하게 발달된 만입부로 해풍이나 해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이다. 장금도 남쪽 구릉의 동사면에서 최초 패총 1개소(A패총)를 확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주변에 대한 확장조사결과 남쪽 구릉의 남동사면에서 소규모의 패각층(B패총)이 추가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패총은 남북 약35m, 동서 7m. B패총은 동서 19m, 남북 7m 규모이다.

패총은 여러개의 층위가 확인되었는데 소수의 신석시대 후기 토기가 출토된 것으로 볼 때 패류의 채집과 퇴적은 그 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동기시대에는 구릉의 사면쪽으로 이동하여 퇴적되는 경향이 확인되며, 청동기시대 전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락동식 토기)를 상한으로 한다.

원삼국에서 삼국시대는 장금도 패총의 중심시기로 퇴적층이 가장 두텁다. 경질무문토기, 격자문이 주를 이루는 적갈색연질타날문토기, 평행타날 또는 격자타날의 회(청)색 경질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이후의 패각층은 어느 정도 안정기를 이루는데, 패류는 전 시기와 유사하나 퇴적의 두께는 얇아져 더 이상 집중된 자원의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남쪽 구릉의 하단부를 전면조사하였으나 패총과 관계된 시기의 유구는 없었으며, 구릉하단부에서 고려시대 이후 우물과 수혈유구, 소성유구 등이 일부 조사되었다.

장금도 패총의 패각은 주종이 굴, 백합, 가무락 등으로 채취기간이 제한적인 것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서해안 일대 신석기시대에서 고려·조선

시대까지의 생계경제를 살펴볼수 있는 중요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진19 청라지구 발굴 전경

그림8 청라지구 발굴 지점

4) 청라도 패총

선사시대. 청라마마을(파렴) 배후의 구릉 사면에서 패총 2개소가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 재퇴적으로 인하여 심하게 교란되었으며 19세기 후반의 조선시대 후기에서 근대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암회청색 도기류를 비롯하여, 백자, 상평통보 등이 출토되었고 패각층 주변에서 석부편과 어망추 등이 출토되었다. 청라도 패총의 패각구성은 동죽, 맛조개, 바지락 등 장금도 패총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는 패류가 굴과 함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데, 패류 이용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바지락의 경우 연중 채취가 가능하여 거주민의 주된 자원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청라지구 패총의 조사) 2004년 5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청라지구 개발사업부지(17,886,000㎡)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장금도 내에서 원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이 다량으로 포함된 유적을 확인하는 등 청라지구 내 여러 섬을 중심으로 4개의 유물산포지(이도, 장금도, 소문첨도)와 추정 지석묘 1기를 확인하였다. 이후 유물산포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 장금도에 가장 큰 규모의 패총을 확인하였고, 청라도와 소문첨도에서 소규모의 패총을 확인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사진20 청라도 패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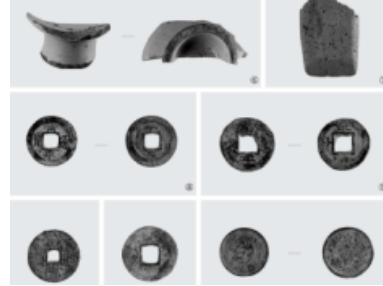


사진21 청라도 패총 출토 유물

참고문헌

-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알기 쉬운 인천서구의 역사와 문화』,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사 上, 下』,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인천 청라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9,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부지 내 인천 장금도 패총』.
- 이준정·고은별, 2009, 『장금도 패총 출토 동물유존체』, 『인천 장금도 패총』, 중앙문화재연구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https://gis-heritage.go.kr>.

5) 소문점도 패총

선사시대. 섬 정상부의 북동사면에서 소규모의 패각층이 일부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패각층 내 출토유물이 적어 자세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어망추의 연대로 볼 때 삼국시대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패각층 외에 고려시대 인골과 함께 청자완 등의 유물도 확인되었다.



사진22 소문점도 패총 전경



사진23 토광묘와 출토유물

VII.



VII. 공촌동

1. 공촌의 연혁과 지명

공촌이라는 최초 지명은 1871년(정조 13) 간행한 『호구총수』에 오늘처럼 공촌리(公村里)로 실려있다. 과거에 본 마을과 갈피(葛山)마을, 그리고 하천 건너편 과기평마을 등 세 개의 자연취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과기평은 공촌, 경서, 검암동의 경계가 합쳐진 곳이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식 지명은 흑전정(黑田町)이었다.

고현리는 삼국시대에 이곳이 부평과 김포의 옛 지명인 주부토현(主夫吐縣)의 소재지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부평에 읍호가 처음으로 붙인 것은 이 ‘주부토현’이 처음이고, “고구려 장수왕 58년(470) 김포반도에 주부토군을 설치했다.”는 기록 한 줄이 역사서에 있다. 이것은 신라 경덕왕 16년(757) 장제군(長堤郡)으로 개칭되었고, 고려 태조 23년(940)에 다시 수주(樹州)로 명칭이 바뀌었다.

주부토군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3세기 가까운 세월과 장제군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2세기 가까운 시간에 통치중심지가 공촌동이었을 것이라고 인천의 원로향토사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옛 문헌기록에 ‘경명현폐현지 계양산북록 만일사하평탄지 민호이백야(景明縣廢縣址 桂陽山北麓 萬日寺下平坦地 民戶二百也, 경명현의 옛 현소재지는 계양산 북록의 만일사 아래 평탄한 땅에 있었음 200호의 백성이 살았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런 추측이 유력하다. 실제로 이 마을에는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주춧돌과 기와조각 따위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고현이’, ‘고련이’ 또는 ‘이십만평’이라고 부른다. 마을 동쪽 산 중턱의 드넓은

지대를 이르는데, 이곳의 면적이 20만 평이 되며 지난날 읍소재지였다고 마을 원로들은 추측하여 말한다.

2001년에 발간된 『계양사』는 고대 계양지역의 읍소재지를 계양산 서쪽 고현벌(古縣平)로 추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 읍치 부근인 경명현 서쪽에서 근래에 돌도끼가 출토된 점, 읍치로 짐작되는 곳에서 온돌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석판이 여러 개 출토된 점, 읍치 추정장소와 가까운 갈피산과 허암봉에서 고인들이 발견된 점, 읍치 위 산 중턱에 신라시대부터 존재했다는 만일사(萬日寺) 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오래된 족보에 고현(古縣)이라는 글자가 나온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리고 공촌동이 읍치로서 타당한 지리적 여건을 가졌음을 열거하고 있다.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장소라는 점, 육로교통이 좋다는 점, 서해의 조수가 빈정천까지 밀려왔을 것이므로 이곳을 작은 포구로 삼을 수 있었으며 이곳에서 멀지 않은 경서동 금산 아래 큰 배를 댈 수 있는 포구가 있었다는 점 등이다.

공촌동과 더불어 근방 검암동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공촌동에서 검암동, 시천동으로 이어지는 드넓은 계양산 산록이 중심지였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발아장과 구슬원이라는 여각(旅閣), 장모루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함께 묶으면 이곳이 옛 부평지구의 통치 중심지였다는 추정이 더 유력해진다.

공촌은 ‘고현’에서 음운이 변한 것이 아니다. 마을 형태가 한자의 공(公)자와 같아서 지어졌다고 전한다. 한 능선의 동서에 마을이 앉아 계양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과기평은 빈정촌, 독점 등을 아우르는 지명이기도 하다. 병인양요 후 이곳에 계우정(桂虞停)이라는 군사기지가 설치되고 기병들이 말을 달려 지나는 곳이라 그런 이름을 붙였다. 이 마을 출신 원로들은 괴기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과기벌’의 음운변화로 보인다.

갈피는 ‘공(公)’자를 이루는 능선 너머 마을로 좁이 유난히 많아 붙여진

지명이다. 흑전정은 임진왜란 때 왜군 지휘관이었던 흑전장정(黑田長政)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다. 장자터라는 곳은 검암동과 경계를 이루는 허암동의 남쪽으로, 옛날에 부자들이 모여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도당미라는 곳은 지금 계양산 관통 도로 길가 서구정수사업소가 있는 부분이다. 옛날 이곳에 도당할머니를 모셨던 터라 지어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갈마산은 계양산과 천마산 사이에 있는데, 마치 짐을 잔뜩 실은 길마처럼 두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은 산이라 그렇게 불렸다. 이 산을 계양산 너머 계산동 사람들은 중구봉(重九峯)이라고 부른다. 고려시대에 불교 행사인 중구절(重九節, 9월 9일) 행사를 이 산에서 지낸 연유로 그렇게 부른다고 전해진다.

공촌동의 유명한 지형지물은 모두 계양산과 연관되어 있다. 계양산은 공촌동과 북구의 계산동(桂山洞), 방축동(防築洞), 목상동(木霜洞)의 경계 지역 안에 있다. 서구에서는 검암동과 시천동이 산과 가깝지만, 주봉(主峰)에서는 떨어져 있고, 공촌동이 가장 가깝다. 깊숙이 산의 품속으로 파고들어 자리 잡고 있는 형상이다. 계양산에는 세 개의 깊은 골짜기가 있다.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범골, 경명현 아래의 깊은 계곡인 산곡(山谷), 계양산 서쪽 산자락 아래에 옛날 절이 있었다는 불당골, 이 세 가지 지명은 지금도 사용된다.

계양산 옆으로 난 낮은 구릉을 타고 넘어가는 경명현(景明峴)이라는 유명한 고개가 있다. 서곶과 부평을 이어주는 유일한 고개였으나 거의 같은 방향으로 경명로가 개설되어 의미가 사라졌다. 이 고개는 고려시대부터 매사냥으로 유명했다. 고려 충렬왕은 경명현에 와서 매사냥을 자주하였고, 경명현 서쪽에 국영매방을 두었다고 전한다. ‘징매’라는 지명은 충렬왕이 매를 징발했다하여 징매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고 설이 유력하다.

이 경명현을 중심으로 동서로 쌓은 성을 중심산성(衆心山城, 계양산성이 라고도 했다)이라 했다. 1870년(고종 7) 서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쌓았는데 공해루(控海樓)라는 문루도 세웠었다. 공해루 200m 남쪽에 ‘중심산성 사적비’가 세워졌는데,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옮겨진 후 6·25전쟁 때 포격으로 망실되었다.

계양산은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알려진 문장가들의 글에 등장한다. 고려 때 이규보(李奎報)의 『망해지(望海誌)』, 풍수가 김위제(金謂礪)의 남경(南京, 오늘날의 서울) 천도 상소문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근방의 문인들이 부평 팔경을 시문으로 묘사하였는데 거의 서곶지역과 계양산의 절승에 대한 것이 제일 많다.

이 산에서 생산되던 부싯돌과 회양목은 품질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팔려나갔다 한다. 부싯돌은 이제 불필요해져 원석이 남아있겠지만 30~40년 전까지 산록에 지천으로 많던 회양목은 멸종되어 버렸다. 계양산에는 만일사를 포함해 12개의 사찰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공촌동은 서곶의 남북을 관통하는 국도에서 깊숙이 들어간지라 한적하고 낙후된 마을이었으나 계양산 관통도로가 생기고, 1991년부터 시작된 연희지구 도시개발로 인해 그 고유의 형질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

2. 공촌동의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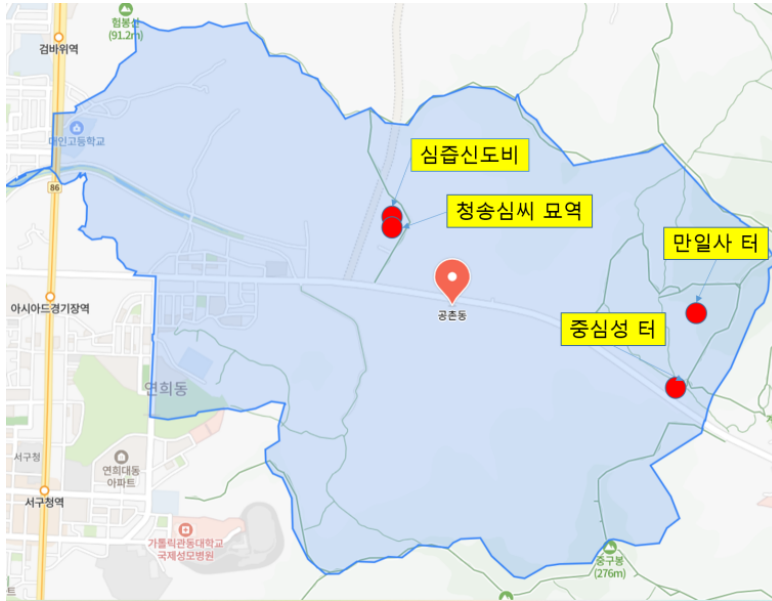


그림9 공촌동 문화유산 분포

1) 심즁 신도비(沈楫 神道碑)

조선시대, 심즁 신도비(沈楫 神道碑)는 1995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제32호로 지정되었다. 이 신도비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25-26 (공촌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조선 인조 때의 문신 심즁(沈楫, 1569~1644)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졌다. 심즁 신도비의 소장과 관리단체는 청송심씨 첨정공파 종중회에서 하고 있다. 신도(神道)란 죽은 사람의 묘로(墓路)를 뜻하며, 신도비란 임금이나 고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무덤 앞 또는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운 비석을 가리킨다.

신도비는 중국 한대부터 종2품 이상의 관직에 있었던 사람의 무덤 근처



사진24 심즁신도비

나 큰 길가에 세우던 돌비로서 한나라 양진(楊震)의 고대위양공지신도비(故大尉楊公之神道碑)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이 나 고관의 무덤 동남쪽에 남쪽을 향하여 세운다. 대체로 고려시대에 시작된 듯하나 『동문선(東文選)』 기타의 문집에 그 비문이 전해질 뿐으로, 3품 이상인 사람의 무덤에 세웠다.

조선시대의 제도에서는 2품 이상에 한하여 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양주에 있는 태조의 건원릉(健元陵)의 것을 비롯하여 안산의 정난종 신도비(鄭蘭宗 神道碑) 등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왕릉에 신도비를 세우는 것은 문종이 금지하였으며, 한편 공신이나 석학(碩學) 등에 대하여는 왕명으로 신도비를 세우게 한 일도 있었다.

심즁의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자순(子順), 호는 남애(南崖), 시호는 효간(孝簡)이다. 승문원판교 심달원(沈達源)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선공감 첨정(繕工監僉正) 심자(沈鎡)이고, 아버지는 목사 심우정(沈友正)이다. 어머니는 광주 안씨(廣州安氏)로 안여경(安汝敬)의 딸이다. 심즁은 1596년(선조 29)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이후 형조, 공조, 예조판서를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이괄의 난 때 인조가 충남 공주로 처소를 옮기는 이어(移

御)를 실행할 때 왕을 모시고 따라감으로써 호종공신이 되었다.

1596년(선조 29)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보직되고, 예문관에 들어가 검열(檢閱)·대교(待敎) 등을 역임하면서 사정(邪正)을 논했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해 한때 은거하였다. 1601년(선조 34)에 예문관검열로 복관되어 여러 요직을 역임하고 수원판관이 되었는데, 당시 간관이었던 정홍익(鄭弘翼)과 함께 무고를 받은 성혼(成渾)을 변론하다가 웅진현령으로 좌천되었다.

1605년(선조 38) 전적(典籍)·예조정랑·정언 겸 문학 등을 두루 거쳐 1607년(선조 40)에는 죽산부사(竹山府使)로 나아갔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장령(掌令)으로 직언하다가 다시 면직되었다. 그 뒤 은계찰방(銀溪察訪)·해운판관(海運判官)을 거쳐 고령현감이 되었으나, 정인홍(鄭仁弘)의 당이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을 비방한 데 반발하다가 대간의 탄핵을 받아 다시 면직되었다.

1614년(광해군 6) 양호염철조도사(兩湖鹽鐵調度使)로 나갔다가 사예(司藝)·검상(檢詳)·사인(舍人)·보덕(輔德) 등을 역임하고, 폐모론이 일어나자 한때 관직에서 물러났다. 인조반정 후 병조참지가 되고, 왕의 신임을 얻어 도승지·안변부사, 형조·공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1636년(인조 14)에는 형조판서로서 남한산성에 왕을 호종(扈從)하였다.

이 때 화친의 조건이 되는 볼모로서 왕족인 능봉군(綾峯君)이 왕의 동생으로, 판서인 심즙이 대신으로 가장했다가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이듬해 이로 인하여 유백증(兪伯曾) 등의 탄핵을 받아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으나, 1638년(인조 16)에 용서받아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그러나 1644년(인조 22) 아들 심동구(沈東龜)가 심기원(沈器遠)의 모반사건에 연좌되어 유배되자 지병이 악화되어 죽었다. 뒤에 아들로 말미암아 직첩(職牒)을 환수당했으나 숙종 때 송시열 등에 의해 신원(伸冤)되었다.

심즙의 묘는 원래 경기도 시흥시에 있다가 인천시 서구 공촌동으로 이장하였으며, 이때 신도비도 함께 옮겼다. 비는 사각형의 받침돌[비대(碑臺)] 위에 길쭉한 직사각형의 몸돌[비신석(碑身石)]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돌[비개석(碑蓋石)]을 올린 모습이다. 비의 전체 높이는 1.9m이고, 너비 0.85m, 두께 0.53m이다. 송시열(宋時烈)이 비문을 짓고, 홍봉조(洪鳳祚)가 글씨를 썼으며, 유척기(兪拓基)가 비에 새기었다.

2) 중심성(衆心城) 터

조선시대. 중심성은 계양산 징매이고개를 중심으로 동서로 연장된 성으로 현재는 공촌로가 관통하고 있다. 계양구와 서구의 경계를 이루는 경명현 생태통로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계양산 정상, 남으로는 중구봉에 이르는 2km 구간의 능선은 1883년 축조된 ‘중심성(衆心城)’의 옛 터다. 중심성이 위치한 경명현은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의 관아가 있던 부내면(府內面)과 해안가 고을인 모월곶면(毛月串面)의 경계로 부평에서 해안으로 향하는 도로로 사용되었다.



사진25 중심성 터

조선시대 부평에서 해안으로 향하는 도로는 이외에도 원적산 남쪽의 석곶면(石串面)에서 구십현(九十峴)과 가현(佳峴)을 지나 부평으로 향하는 길이 있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경명현을 넘는 길에 비하자면 좁은 소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명현에서 해안으로 향하는 길목에 연희진이 위치하고 있어 이 도로의 중요성을 짐작케 해준다.

또한 부평지역의 해안에서 서울까지 70여 리의 여정 중, 경명현을 제외하고는 낮은 구릉조차 없는 평지가 펼쳐져 부평 연안의 방비가 문제 되었다. 제물포 개항장과 부평 연안에서 열강의 군사도발이 있을 것을 우려한 고종의 명에 따라 해안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중요 관문인 경명현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곽이다. 축성공사는 부평부 부민들의 주도로 진행됐는데, 60금에 이르는 공사비를 마련하고 공역을 담당한 것도 모두 부평부 백성들이었다.

공사는 1883년 9월 29일 시작해 1개월 만에 마무리됐는데, 경명현의 남북을 잇는 견고한 성벽과 관문인 ‘경명문(景明門)’을 설치하고 장대와 여타 시설을 함께 마련해 유사시에 대비한 부평 연안의 군사적 방비를 한층 튼튼히 했다. 부평부사 박희방(朴熙房)은 부민의 재물과 노력으로 쌓은 성임을 기려 성의 명칭을 ‘중심성’이라 하고, 축성의 개략적인 내력을 비에 새겨 성문 앞에 세웠다.

중심성은 해안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군사적 요충지인 경명현에 성을 쌓아 열강의 침략에 대비하던 개항 후 긴박한 역사의 현장이라는 점, 성곽사에서 드물게 축성 목적과 주체가 분명히 밝혀진 성곽이라는 점, 축성의 재원과 공역을 모두 주민이 담당한 성곽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유적으로 평가된다.

현재 중심성의 축성에 관하여 전해지는 기록은 ‘중심성 사적비(衆心城事蹟碑)’의 비문이 유일하다. 이 석비는 중심성의 문루에서 서쪽으로 약 20m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훼손이 심하여 1949년 7월 인천시립박물관

관으로 이전하였고, 이듬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석비의 재질은 오석(烏石)으로 높이가 5척(151cm), 폭이 1.5척(46cm), 두께가 0.8척(25cm)였다 한다. 따라서 비문을 확인할 수 있는 석비의 실체나 탁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1949년 10월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부평읍(계양산) 방면에 대한 고적조사를 실시하면서 등 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이 석비의 비문을 필사하여 첨부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인천고적조사보고서』의 중심성사적비문 필사본은 1949년 10월 12일 이경성(李慶成)에 의해 일괄 작성된 ‘부평읍(계양산)방면 고적조사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비문을 직접보면서 필사한 것이 아니라 탁본이나 1차 필사본을 원고제 옮겨 적은 것이다. 기록된 자수(字數)는 총 279자로 제자(題字)가 6자, 본문이 184자, 감동좌목(監董座目)이 89자이다. 전면과 후면을 행렬 구분없이 필사하였으며 필사자가 임의로 방점을 찍고 띄어쓰기를 시도하여 해석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또한 옮겨 적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으나 이 비문에 대한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사료적인 가치는 크다 하겠다.

『인천고적조사보고서』에 수록된 필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몇몇 자료에서 비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자료마다 원문의 내용에 차이가 보인다. 이는 인용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라 생각된다. 중심성 사적비문이 처음 활자화된 것은 인천시립박물관장이던 이경성이 인천시에서 발간하는 주간지 『인천공보(仁川公報)』에 “인천의 고적”이라는 제목으로 『인천고적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연재하면서부터이다. 이경성은 연재에서 중심성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중심성사적비문의 필사본을 그대로 옮겨 게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56년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인천향토사료』를 간행하였고 중심성사적비문을 수록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비문은 기존 필

사본을 해독하여 문맥의 이해가 통하게끔 띄어쓰기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필사본의 방점을 대신한 것이다.

그러나 해독과 정리과정에서 몇 군데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후 이를 재인용하는 자료에서 저본에 대한 고증 없이 그대로 인용해왔다. 따라서 중심성사적비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선 비록 그 저본이 필사본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고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유일한 중심성 관련 유물인 ‘중심성 사적비 귀부(衆心城 事蹟碑 龜趺)’가 계양산성박물관에서 일반에 공개되면서 중심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 유물은 1990년대 경명로 확장 공사 때 현장에 남아 있던 것을 서구청에서 수습해 보관해 왔는데, 2022년 산성 전문박물관인 계양산성박물관으로 옮겨 전시하게 됐다.

3) 청송심씨 묘역

조선시대. 청송심씨 묘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8에 있었다. 관리하는 청송심씨 첨정공파(僉正公派)에서 하고 있다. 청송심씨(靑松沈氏)는 고려 충렬왕 때 문림랑(文林郎)으로 위위시승(衛尉侍丞)을 지낸 심홍부(沈洪孚)를 시조로 받드는 혈족이다. 심홍부의 증손 심덕부(沈德符)가 우왕 때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에 이르러 청성부원군(靑城府院君)에 봉해졌다가 청성군충의백(靑城君忠義伯)에 진봉되어 후손들이 청송을 본관으로 삼고 세계를 잇고 있다.

청송심씨 15세 심한웅(沈漢雄, 1652~1715)이 가좌동 아랫말에 거주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늦어도 18세기 전반에는 청송심씨가 가좌동에 세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 묘역은 1970년부터 공촌동 갈피산에 조성되었다.

현재 묘역에는 심자(沈鎡), 심우정(沈友正), 심즙(沈楫), 심동귀(沈東龜),

심유(沈攸), 심경(沈敬), 심한웅(沈漢雄), 심봉기(沈鳳岐), 심철희(沈喆希), 심공좌(沈公佐), 심홍조(沈弘租) 등 40여기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묘역하단에는 심유, 심동귀, 심즙, 심우정의 신도비와 묘갈이 있다. 그 위 구릉에 5단에 걸친 묘역에 묘와 묘비가 있으며, 신도비와 구릉 사이에 상석 4기와 구릉 양 옆으로는 문인석과 망주석 등의 석물이 세워져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심즙 신도비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청송심씨 묘역에 위치한 석비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증이조참판 심우정신도비(贈吏曹參判 沈友正神道碑, 1613년, 전면비)
- 가로 107cm, 세로 242cm, 두께 26cm이고, 이항복 찬(李恒福 撰), 이숙 서(李瀟 書), 노직 전(盧稷 篆)
- 예조판서증시효간공(禮曹判書贈諡孝簡公 沈楫神道碑, 1744년, 사면비)
- 가로 85cm, 세로 190cm, 두께 53cm, 송시열 찬(宋時烈 撰), 홍봉조(洪鳳祚 書), 유척기 전(俞拓基 篆)
- 홍문관응교증대사헌 심동귀묘갈(弘文館應教贈大司憲 沈東龜墓碣, 1739년, 사면비)
- 가로 72cm, 세로 187cm, 두께 36cm, 송시열 찬(宋時烈 撰), 김진상 서(金鎭商 書), 유척기 전(俞拓基 篆)
- 홍문관부제학 심유신도비(弘文館副提學 沈攸神道碑, 1741년, 사면비)
- 가로 75cm, 세로 201cm, 두께 39cm, 이의현 찬(李宜顯 撰), 윤득화 서(尹得和 書), 유척기 전(俞拓基 篆)

이상은 묘역의 맨 앞에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묘에 있는 묘표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정현대부예조판서 심즙묘표(正憲大夫禮曹判書 沈楫墓表)
가로 52cm, 세로 128cm, 두께 19cm
- 증가선대부사헌부청봉 심동귀 묘표(贈嘉善大夫司憲府淸峯 沈東龜墓表)
가로 52cm, 세로 128cm, 두께 18cm
- 통정대부홍문관부제학오탄 심유묘표(通政大夫弘文館副提學梧灘 沈攸墓表)
가로 59cm, 세로 134cm, 두께 20cm
- 증승정대부선공감청정 심자묘표(贈崇政大夫繕工監僉正 沈鎡墓表)
가로 54cm, 세로 133cm, 두께 21cm
- 증가선대부이조참판 심한웅묘표(贈嘉善大夫吏曹參判 沈漢雄墓表)
가로 54cm, 세로 127cm, 두께 17cm



사진26 청송심씨 묘역

4) 만일사 터

고려 및 조선시대. 만일사 터는 계양산 서면(西面) 정매이고개(景明峴)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 고려 초기의 절터이다. 만일사는 1656년 간행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사찰조의 ‘萬日寺在桂陽山’라는 기록과 1760년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 사찰조의 ‘만일사명월사봉일사이상구유금무(萬日寺明月寺奉日寺以上舊有今無)’라는 기록을 보아 18세기 중엽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본래 계양산에는 12개의 절이 있었는데, 만일사가 제일 컸다고 한다. 그런데 조세를 운반하던 선원들이 곡식을 횡령하고는 만일사가 보이기만 하면 배에 사고가 나서 곡식이 없어진다고 거짓 보고를 하자, 정부는 이 보고를 믿지 않았으나, 손돌목에서 자주 사고가 일어나자 정부는 만일사를 배에서 보이지 않도록 계양산 골짜기로 이전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한다.

만일사 터로 가는 길은 몇 가지가 있으나 계양동에서 공촌동으로 넘어가는 도로인 경명로를 왼쪽으로 두고, 계양동과 공촌동 경계를 표시하는 곳에서 공촌동 쪽으로 30m를 가다 보면 우측에 계양산으로 오르는 길이 나온다. 이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우측에 증심성 터 안내판이 나온다. 여기서 약 40m 정도 더 올라가다 오른쪽 난 등산로를 따라 계속 가다보면 오른쪽에 위치해있다. 사지는 서향으로 위치해 있는데 전체 규모는 길(서남 동북) 약 60m, 폭 약 25m 정도이며 상하 2단으로 구분된다. 상단에는 현재 본전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위치해 있어 사찰의 중심사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전의 양측 및 하단에는 요사채를 비롯한 부속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다.

본전 추정지는 15.2m×9.3m정도의 건물지가 있는데, 주춧돌과 남쪽 끝에는 약 4.5m의 석렬이 남아있다. 건물지 옆에는 우물지가 남아있다. 본전의 북쪽에도 10m×7m 정도의 건물지와 무너져 내린 석축이 약 10m 정

도 이어져 있으며 동쪽에도 5.5×5m 정도의 건물추정지가 남아 있다. 본전 추정지 앞으로는 돌들이 무너져 내려있어 상하로 구분을 이루고 있는데 아마도 계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지의 하단부는 무너져 내린 토사로 초석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일부는 밭으로 개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사지 곳곳에서 기와편, 자기편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1949년 인천시립박물관의 인천고적조사 당시의 기록에 ‘계양산 서면 경명현(景明峴) 너머에 있는 고려초기의 사찰지로 현재는 토사(土砂)의 반출로 초석 같은 것이 변모하여 가람배치를 복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사지(寺址)에서 발견되는 와편 자기편은 고려 및 조선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 전에 사지 자체에도 변모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5) 응방지

고려시대. 고려조에 매의 사육과 사냥을 맡아보던 관서로 응방(鷹坊)이 있었다. 응방은 수렵과 목축을 업으로 하는 북방민족에 있어서 성하였고 원대에 가장 발달하였다. 고려의 응방의 설치는 원나라에 대한 매 제공과 고려왕들의 매사냥을 위한 사냥매 조달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응방은 1274년 9월 충렬왕이 즉위한 다음 달에 설치되었다. 조선후기 문헌에서는 응방이 1275년(충렬왕 1)에 설치되었다고 하였으나, 이에 앞서 충렬왕은 1274년(충렬왕 즉위년) 8월 사대부 자제로서 일찍부터 독로화(禿魯花)가 된 자 가운데 흘적(忽赤)을 편성하였고, 곧이어 원 황실에 요청하여 독로화 출신인 윤수(尹秀)를 중심으로 응방을 설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응방 운영은 주로 윤수 등 왕의 측근세력들을 통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공촌정수장 8차선 도로 건너편 일대가 응방지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이 징매이고개로 불려진 이유는 고려시대 국영매방인 ‘응방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매사냥을 좋아했던 고려 충렬왕은 처음 수도 개성에 국영매방을 운영했었다. 그런데 매들이 민가로 날아 들어가 가축을 공격하자 백성들의 원성이 날로 심해졌고, 왕은 결국 백성들의 피해가 없을 만한 매사냥터를 찾아보라고 명한다. 주민들이 이전을 여러 차례 건의하니 매방 관리책임자 이습(李習)이 매사육사 윤수(尹秀)를 시켜 옮길 장소를 물색한 결과 계양산 서쪽 기슭 고갯마루(경명현)로 매방을 이전하였다고 한다. 『고려사』열전, 이분희전부 이습전(汾禧傳附 李習傳)에는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다가 응방은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폐지되었다가 후에 복치되었다. 충선왕이 복위된 1308년 응방도감의 관직은 응방사 2인(종3품), 부사 2인(종4품), 판관 2인(종5품), 녹사 2인(권무)이었고, 그 역할은 내승과 함께 왕실 숙위 기능으로 한정시켰다.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던 응방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1344년(충혜왕 5) 5월이었다. 이제현(李齊賢)이 응방과 내승은 백성에게 해가 많아 예전에 이를 없애려고 했으나 끝마무리가 철저히 못하였다는 글을 올림으로써 응방 폐지가 최종 결정되었다. 이 정책을 따라 응방에 소속된 사람들을 해산시켰는데, 7품 이하 9품 이상은 홀지 4번에 소속시키고 대정·산직은 조라치·팔가치·순군 4번에 나누어 배속시켰다. 그리고 1345년(충목왕 1) 응방에 소속된 토지와 인민들을 모두 본처에 돌려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1284년(충렬왕 10) 이후 60여 년 동안 근근이 명맥을 이어오던 응방은 완전히 폐지되었다.

VII.



VIII. 가좌동

1. 가좌동의 연혁과 지명

지난날 부평부 석곶면 소속으로 가재울과 건지(乾池)골, 감중절리(甘中節理), 그리고 능안말이라는 세 개의 자연취락이 있었다. 그리고 썰물 때마다 길이 열리는 앞바다에 소염도(素鹽島)라는 작은 섬이 있었다. 이 지명들은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가재리(佳裁里)와 감중절리로 합해졌다.

1871년(정조 13) 면단위 호구, 인구수와 법정리를 기록한 『호구총수』에는 지금과 다른 한자로 표기되어 가좌동(佳佐洞)으로 실려있다. 우리말 지명 ‘가재울’의 음차기록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지명은 천가정(淺間町)이었다.

가재리는 옛날에 ‘가재울’ 또는 ‘가재울’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한다. 이곳에 맑은 시내가 있어 가재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시내 아래쪽에 연못이 있었는데 시내의 물이 흘러들지 않아 마른 연못이 되어서 건지(乾池)라고 불렀다. 이 건지에서도 큰 가재 한 마리가 나왔다고 한다. 가재울은 크게 보면 가좌동 전체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 보면 건지골마을을 지칭한다.

건지골은 가좌동 전체를 놓고 볼 때 북쪽이 된다. 달성서씨(達城徐氏)가 뿌리내리고 살아왔다. 뒷말은 박씨가 많이 살아 ‘박촌말’이라고도 했는데 가좌동 본마을의 위쪽이다. 아랫말은 가좌동의 본마을이며, 뒷말의 남쪽 아래 있다. 감중절리는 이곳에 감중사(甘中寺)라는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절은 빈대가 많아 승려와 신도들이 견디지 못해 문을 닫았다고

전해진다. 취락이 큰 편이어서 큰감중절과 작은감중절로 나누어 불렀다. 큰감중절은 아랫감중절로도 불리었다. 보도진(步道津)마을은 나루터를 끼고 생성된 취락이었다. 천간정은 구한말에 한반도를 침탈할 때 자주 이용된 군함 아사마마루(淺間丸)를 기념하여 그렇게 지었다.

보도진 나루는 동구 송림동과의 사이 300m의 해협에 놓인 나루였다. 흔히 ‘보두지’라고 불렀는데 한자 뜻 그대로 썰물 때는 배를 타지 않고 징검다리로 건너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윗나루와 아랫나루 두 곳이 있었으며 윗나루를 수도나루, 아랫나루를 보두지라고 불렀다. 수도나루란 인천의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윗나루는 징검다리 통행이 가능해 배 샅이 쏘고, 하류의 아랫나루는 거의 물에 잠겨 있어서 걸어서 건널 수가 없었다. 이 나루는 처음에는 개인이 경영하다가 인천부에서 관장하였고 부천군 서곶면에서 관장하기도 하였다. 1961년 윗나루 자리에 인천교가 준공되면서 없어졌다.

원적산은 해발 표고가 165m에 이르는 작은 산이다. 지금 서구와 부평구를 경계 짓는 산으로서, 옛날부터 남으로는 장고개, 북으로는 안아지고개를 안고 있다. 원적산을 올라 산곡동으로 넘어가는 언덕길을 원적산고개라고 불렀다. 해망산은 멀리 서해와 팔미도까지 보인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산에 감중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가좌동에서 산곡동으로 가는 고개를 장고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고개 앞의 마을을 장끝마을이라 부른 데서 비롯된 지명이다. 구루지고개는 가좌동에서 산곡동 화랑농장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국방도로는 일제강점기 서울과 인천 사이의 군사 연락을 위해 만들었다. 가좌동에서 가정동까지 지금 경인고속도로의 직선으로 뻗친 구역이 그 후신이다. 경인고속도로가 열리기 전에도 이곳은 지금처럼 넓었으며, ‘국방도로’라고 불렀다. 이 국방도로는 1941년에 공사를 시작하였다. 인천항으로 군수물자를 신속히 수송하기 위해 만들었다. 국민총력연맹(國民總力聯

盟)의 지도 아래 근로보국단의 만들어지고 서곳의 청장년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본군의 감시를 받으며 고된 노동을 하였으며 잡곡밥을 먹으며 길가에 임시로 세운 천막에서 잠을 잤다. 이 공사는 3년 계획으로 착수하였으나 태평양전쟁에 청년들이 다수 징병 또는 징용당하여 지연되었다. 그리하여 8·15광복 때까지 중단되었다. 이 도로에 육교 구실을 하는 검정다리가 있었다.

건지골 드넓은 들판을 건지들이라고 불렀으며, 가좌천이 그곳을 가르며 흘렀다. 옛날에는 ‘큰내’라고 불렀으나 1910년대에 일본이 토지측량을 한 뒤에 가좌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가좌천이 끝나는 곳은 옛날에 갯벌이었다. 건지골은 하천과 마른 연못이 있어서인지 습기가 많았다. 이 마을에 결핵환자가 많았는데, 사람들은 그 이유가 습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이 방뿌리라는 곳이 있었다. 가재울마을에는 악귀를 쫓기 위해 예방하며 해안에 밥을 해서 버렸다. 그래서 예방부리라 했는데 변음되어 이방뿌리가 되었다. 건지골에는 수령 300년의 엄나무 한 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그 주변에 건지터가 있다. 소염도에 열녀의 정절을 기려서 만든 각시당이라는 절의 옛 터가 있었으나 매립공사와 시가지 확장으로 사라졌다.

2. 가좌동의 문화유산



그림10 가좌동 문화유산 분포

1) 경인고속도로 기공지



사진27 경인고속도로 기공지비

현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기공식이 1967년 3월 24일에 거행되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가좌동 톨게이트-서울 영등포 구간이 1968년 12월 21일 개통되었으며 이어 가좌동-신흥동-제2도크입구까지의 구간이 1969년 7월 20일에 2차로 개통되어 총연장 29.5km 4차선이 완성되었다.

당시 산업시설은 확장되고, 교통수요는 격증일로에 있었으며, 차량의 증가와 함께 점차 고속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로의 근대화작업을 서둘러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중에 39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의 도로개발정비에 힘써 왔으나, 당시 도로사정은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도로혁명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제2차 경제개발 5년계획에는 302억 원의 국가재정을 투자하였으며 이어 도로정비촉진법까지 제정하고서 도로개발에 주력하였다. 이렇게 정부가 도로개발사업에 경주한 끝에 1967년 3월에 착공한 경인고속도로는 총 예산 33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중장비 8만대, 연인원 87만 명의 노동력이 집중된 연장 93.9km, 폭 20.4km의 4차선 도로였다.

이 경인고속도로의 완공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천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한 서울과 인천을 동서 생활권으로 묶어 주어 지역개발에 기여하여 인천을 항만도시와 공업도시로서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으며, 한국의 경제성장은 물론 교통완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에는 산업발달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심한 교통체증이 일어 1994년 10월 19일 서울기점(신월동)~서인천I.C까지는 8차선, 서인천I.C~제2도크까지는 6차선으로 1998년 12월 2일에 확장공사가 완공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의 건설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의 일로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당시 1962년부터 1966년까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부는 의도하였던 경제개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송 부문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국적인 교통조사를 시행했다. 이 조사에서 도로 교통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기존 도로의 수송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고속도로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경제개발의 성공적인 수행은 수도권외의 관문인 인천항과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의 고속화가 절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산업구조상 단거리 운송으로 기동성이 요구되면서 도로교통에 의한 운송시대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도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산업경제·사회생활·여가선용·국가방위 등 전반에 걸쳐 근간을 이루는 혈맥이라 볼 수 있는데, 당시의 운송 부담은 철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육상도로의 투자는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부문 투자가 저조하였던 것은 산업구조적으로 운송 부담이 높았던 철도시설투자에 집중된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도로 확충에 필수적인 건설장비와 원자재 부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64년 울산정유공장의 준공으로 아스팔트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면서 기존 도로의 확충 및 포장에 본격화되고 고속도로·산업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이 생산활동과 사회활동에 직결되면서 도로 개발이 속속 진행되게 되었다. 고속도로의 등장은 사회전반에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특히, 운송산업과 토목기술의 축적 경험을 얻게 된 건설산업은 해외 진출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7년 3월 24일 착공되는데, 소요자금 중 일부를 당시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대조건 관계로 시간이 지연되었다. 거기에 공사 수주업체의 능력과 경험 부족으로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했다.

본격적인 공사를 1968년 4월부터 시작하여 인천 용현동-서울 양평동 구

간 총 연장 29.5km의 4차선 노선을 1년 3개월 만인 1969년 7월 21일 개통하게 되었다. 공사가 완료된 20일이 때마침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날이었기 때문에 ‘아폴로 하이웨이’라 명명하기도 했다. 공사업체는 전국 도급순위 1·2·3위 업체인 현대건설·대림산업·삼부토건이 공동출자하여 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를 설립, 수행하게 되었는데 구간이 짧은 데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을 통과함에 따라 교량과 육교가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공업화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도시가 확대되면서 도심지에 산재한 공장들은 이제 그 여건의 변화로 변두리로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장용지 확보는 개별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경제개발 기간 동안 유희토지를 공업단지로 개발하여 개별기업의 부지난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화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폐염전을 공업단지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968년 건설부의 ‘경인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 후, 인천시를 시행자로 하여 인천기계공업단지의 일부분을 흡수 통합하여 인천지방공업단지를 준공하기도 했다. 나아가 1974년에는 인천 내항의 전면 ‘도크’ 화가 이뤄져 동양 최대의 갑문식 도크가 완성되는 것도 그 일환이라 하겠다.

1980년대 후반부터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일으켰던 경인고속도로를 ‘거대한 주차장’으로 표현하던 시대도 있었다. 인천항 수출입화물의 절반 이상을 실어 나르는 경인고속도로는 지금까지도 도로정체로 인해 서울~인천간 화물운송 소요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이면에는 수송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이는 항만의 선박이 오래 지체되는 체선 현상과 육상의 교통체증에 의한 물류비의 증가가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는 뜻이기도 했다. 따라서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확장과,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건설되었던 것이다.

현재는 가좌IC 동인천방향 출구에서 입구 초입 좌측에 있다. 낮은 펜스만 쳐져있을뿐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도로공사 내지는 인천시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도로로 형질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역사적인 도로의 기념비로서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2) 관해각(청송심씨 고택)



사진28 관해각(청송심씨 고택)

조선시대.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한옥은 가좌동의 선주 성씨인 청송심씨(靑松沈氏) 고택으로 일명 청송심씨 고택이라고도 한다.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副總管)으로 추증된 심한웅(沈漢雄; 1652~1715)이 처음 입향하여 거주하면서 역사적 연원을 갖게 되었다. 이후 심상필(沈相弼; 1873~1957)과 그의 아들 심운섭(沈雲燮; 1899~1966)이 4년간 증축공사를 했다.

1940년의 증축공사 당시에는 백두산 소나무를 벌채하여 이를 압록강 신의주까지 옮긴 후, 경의선과 경인선 철도를 통해 이곳으로 운반하여 본 한옥의 목재로 삼았다 또 당시 황해도 영흥도에 소재한 임경업 장군 사당이 헐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구입하여 이 집의 안채 기와로 삼았다. 1950년 6·25전쟁 당시, 피난민 30여 가구를 수용한 이 집의 우물은 이들의 중요한 식수원이었다. 1960년대 심운섭은 이 집에 가좌울 야학당을 열어 미취학아동 및 성인교육을 행했는데, 이 집은 당시 시내의 인천중학교, 제물포고교, 인일여고 등 학생들의 특별활동 장소로 활용되었다. 1939년 인천 서구 전기설비 추진위원장인 심재갑은 이 집을 기점으로해 당시 촛불과 호롱불에 의지하던 서구 지역에 전기를 도입하였다.

이 한옥 관해각은 350여 년의 역사를 품은 전대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이제 유구한 세월의 흔적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현대인들의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변모하여 2020년 4월부터 한옥카페로 활용되고 있다.

3) 선문염송설화 권 1-30



사진29 선문염송설화

고려시대. 『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說話)』는 고려 후기 승려 혜심(慧諷, 1178-1234)이 편찬한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에 수록된 공안 및 염(拈)·송(頌) 등의 착어(著語)에 대해 용어와 전고 등의 설명과 함께 해당 공안의 의미를 해석한 공안집 주석서이다. 이 판본은 1707년(숙종 33년) 7월에 전라도 홍양의 팔영산 능가사에서 간행한 것이며, 30권 5책의 목판본이다. 2015년 12월 7일 인천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서구 가좌동에 있는 범명사 명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설화”는 선문염송의 고화 즉 옛화두를 해석하고 설명한다는 뜻으로 선문염송의 권수와 고칙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였다. 『선문염송집』에 수록된 1,463개의 공안 모두에 대해서, 『선문염송집』에 수록된 순서대로 해설을 붙이고 있다. 저자 각운(覺雲)은 13세기 전반 혹은 14세기 말에 활동한 승려로 알려져 있다. 17세기 중엽까지는 공안에 대해 해설한 책과 염·송 등에 대해 해설한 책이 별도로 유통되다가 17세기 후반에 현재와 같은 형태로 합하여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저자는 각운(覺雲)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정체에 대해서는 혜심의 제자로 13세기 전반에 수선사에서 활동한 승려라는 견해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걸쳐 활약한 구곡각운(龜谷覺雲)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조선 중기에 이미 두 가지 견해가 함께 전해지고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확실한 이해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현재 전하는 자료에 의하면 17세기 중엽까지는 『선문염송집』의 본칙 공안에 대해 해설한 책과 염(拈)·송(頌) 등에 대해 해설한 책이 별도로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684년에서 1685년에 걸쳐 월저 도안(月渚道安, 1638-1715)이 두 종류의 책을 합하고 교정하여 『선문염송설화』라는 이름으로 간행하면서 현재와 같은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본칙 공안에 대해 해설한 책은 각운이 편찬한 것으로 보이지만, 염(拈)·송(頌) 등에 대해

해설한 책도 각운이 편찬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본칙 공안과 염(拈)·송(頌) 등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불경과 선문헌은 물론 유가와 도가 등의 외전을 다양하게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문헌을 인용하여 여러 용어와 전고를 밝히는 형식은 송나라 때의 승려인 목암 선경(睦庵善卿)이 여러 선종 조사들의 어록을 해설하기 위해 편찬한 『조정사원(祖庭事苑)』과 비슷하다. 다만 『조정사원』이 용어와 전고의 해석에 중점을 두는 훈고적 성격이 강한데 반하여 『선문염송설화』는 용어와 전고에 대한 설명 못지않게 해당 공안에 대한 비평과 재해석에도 중점을 두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 책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문염송』의 첫 번째 공안인 “석가모니가 도솔천(兜率天)을 떠나지 않고 이미 용궁으로 내려왔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지 않고 중생 제도를 마쳤다.”고 한 것에 대하여, ‘도솔(兜率)’이라는 제목하에 이 이야기의 출처가 『화엄경』 이세간품(離世間品)이라는 것과 도솔천이 어떤 곳이며, 이 이야기가 석가모니의 팔상도(八相圖)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 그 사상의 진의가 무엇인가 등을 해설하고 있다. 또 이 공안을 소재로 한 후대 승려들의 송(頌) 등에 대해서도 각 승려의 호 두 글자를 적고서 필요한 용어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공안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이야기의 출처 및 주요한 용어의 풀이, 격외(格外)의 법문에 대한 해설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본칙 공안에 대한 해설서로는 1512년(중종 7)에 벽송 지엄(碧松智嚴, 1464-1534)이 필사했다고 하는 『염송화족(拈頌畫足)』과 1600년 경 송광사에 간행된 『염송구곡설화(拈頌龜谷說話)』가 전하고 있으며, 염(拈)·송(頌) 등에 대한 해설서로는 『염송구곡설화』와 비슷한 시기에 송광사에서 간행된 『염상당(拈上堂)』이 전하고 있다. 1538년(중종 33)에 본칙 공안에 대해 해설한 『염송설화』를 간행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해당 판본은 전하

지 않고 있다. 본칙 공안과 염(拈)·송(頌)에 대한 해설을 함께 모은 『선문염송설화』는 월저 도안의 주도로 1684년(숙종 10) 6월 묘향산 선정암(禪定庵)에서 판각을 시작하여 다음 해에 안주(安州) 고묘불당(古廟佛堂)에서 간행되었고, 1707년(숙종 33)에 월저 도안의 제자인 설암 추봉(雪巖秋鵬, 1651-1706)의 주도로 전라도 고흥의 팔영산 능가사(楞伽寺)에서 중간되었다. 이후 1889년(고종 26)에는 설두 유형(雪竇有炯, 1824-1889)이 경기도 양주 천마산 봉인사(奉印寺)에서 『선문염송집』과 『선문염송설화』를 회편하여 목활자본 『회편선문염송집설화』를 간행하였는데, 권1~3만을 간행하고 중단되었다. 1983년에 『선문염송집』과 『선문염송설화』 두 책 전체를 회편하여 『선문염송염송설화회본』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불교전서』 제5책에 수록하였다.

4) 명상박물관



사진30 명상박물관

현대. 인천 법명사는 2014년 9월 인천 서구 가좌동 원적산에 위치한 법명사 경내에서 명상박물관 개관하였다. 법명사 주지 선일스님의 원력으로 불사한 명상박물관은 스님 요사채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178.5㎡ 규모의 전시공간과 99.2㎡의 수장고를 갖추고 문을 열었다.

박물관 내부는 불교명상과 명상예술, 한국명상, 중국명상, 인도명상, 기공 등 9가지 대주제에 맞춰 선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불교명상을 배우는 공간은 물론 인도와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불교명상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져 있다. 이외에도 명상박물관은 다양한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악을 통한 명상, 인도의 요가, 중국의 단학, 한국의 전통 등 여러 갈래의 명상을 익히고 체험할 수 있다.

명상박물관에서 주목할 점은 법명사 주지 선일스님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인천시 지정문화재 『선문염송설화』, 『묘법연화경』, 『작법귀감』, 『대장일람경』 4점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문화재는 상당히 희귀한 자료로 알려지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중 『선문염송설화』은 고려 후기의 승려 각운의 스승인 혜심이 저술한 선문염송집에 대하여 화제에 대한 출처와 특수한 선문용어 해설 격외의 법문등을 해설한 책으로 이 판본은 1707(숙종 33)에 전라도 홍양의 팔영산 능가사에서 간행된 것이다. 이와함께 소(牛)를 주제로 다양한 그림을 그리는 농민화가인 이종구 화가의 ‘석굴암’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사부대중(四部大衆)의 마음 치유와 심신안정을 돕기 위해 처음 인천에 문을 연 ‘통찰과 행복’을 주제로 명상 서적과 유물전시, 명상 강좌 등을 진행하고 간화선과 묵조선 등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행법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인도와 중국 그리고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명상에 대한 내용을 다룬 도서 300여 권이 배치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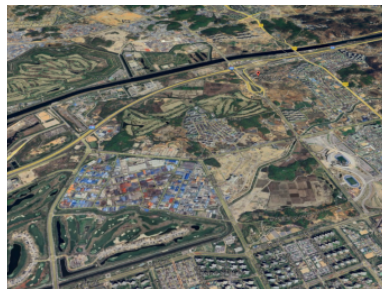


IX. 경서동

1. 경서동의 연혁과 지명



그림11 경서동 위치



지도3 경서동 전경

경서동은 전체면적 4.87㎢로, 서구의 중앙부 서해안에 연하여 있다. 경서(景西)라는 지명은 경명현(景明峴, 징맹이 고개) 서쪽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북쪽으로는 인천국제CC골프장, 서남쪽으로는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며 경서동 구회정리사업구간 및 경서지구개발지역에 공동주택 등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다.

과거 부평부 모월곶면에 속하였으며, 원래 부평군 석곶면 고잔리¹⁾였으나 1914년에 부평군 모월곶면과 통합하여 석곶면에 속하였다. 1940년 인천 부에 편입되어 이가정(李家町)으로 불리다가 광복후 1946년에 경서동으로 개칭되었다. 서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염전이 많았으며 청라

1) 꽃의 안쪽이라는 의미로 고잔이라 불리웠으며, 전통적으로 쑥이 유명한 마을이라고 해서 ‘쑥데이고잔’이라 불렀다고 한다(한국지명유래집 중부편).

도, 난지도, 소문침도, 사도 등 여러 섬이 속해 있었다. 그러나 1986년후 유도와 이도, 묘도를 연결하는 대간척사업이 완성되면서 약 천만평의 새로운 땅이 생기고 여러 섬이 육지가 되었으며, 2018년 청라국제도시 지역에 속하던 경서동 지역이 청라동으로 변경되면서, 현재의 경서동의 범위가 확정되었다.

경서동은 경서 3구역, 검암 플라시아 등 도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며, 주변에 청라IC, 공항철도 및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아라뱃길 등 교통이 편리하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다.

2. 경서동의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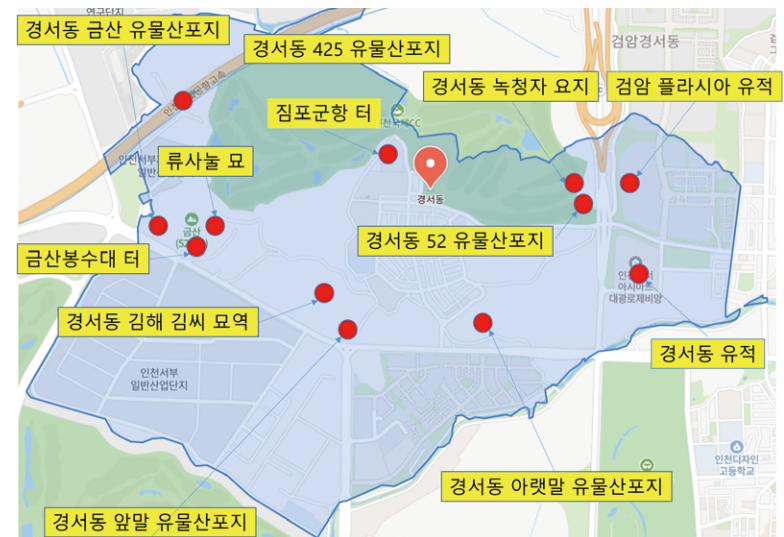


그림12 경서동 문화유산 분포

1) 검암 플라시아 유적



사진31 검암 플라시아 유적 전경

삼한시대. 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은 검암역 남측 검암동, 경서동 일대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면적은 810,310㎡이다. 그 중 657,610㎡를 표본·시굴조사하였는데 검암동 유적분포 추정지는 표본조사 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북측의 하동말 유물산포지2와 남측의 경서동유물산포지6에서 유적이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다.

발굴지역 중 경서동에 속하는 구간은 서남측의 ‘경서동 유물산포지6’으로 조사 결과 분구묘, 집터, 굴립주 건물지 등 200여기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마한의 분구묘와 집터, 기와가마 등은 주목할 만하다.

[주요 유구 현황]

시대	유구	수량
원삼국	주거지	1
	분구묘	5
	굴립주건물지	1
	구상유구	15
	수혈	28
	주혈	63
고려시대	수혈	5
	가마 및 부속시설	3
조선시대	토광묘	3

* 현재 조사 및 연구가 진행 중으로 유구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마한의 유적은 분구묘 5기와 집터 1기가 확인되었다. 분구묘는 북측 낮은 지대, 집터는 남측의 약간 경사진 구릉지에 위치한다. 분구묘는 총 5기로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묘광은 확인되지 않았다. 평명형태는 원형이며 파수부타날문토기, 발형토기, 경질무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	평면	규모			매장주체부	유물
		장축	단축	최대깊이		
1호 분구묘	원형	1,296	1,220	24	확인불가	파수부타날문토기, 구연부편, 저부편, 타날문토기
2호 분구묘	원형	1,196	1,080	12	확인불가	발형토기, 파수부타날문토기, 시루저부편
3호 분구묘	원형	1,510	1,248	28	확인불가	타날문토기편, 파수편
4호 분구묘	원형	864	772	22	확인불가	미상토제품, 저부편
5호 분구묘	원형	868	788	22	확인불가	경질무문토기편



사진32 원삼국(마한)시대 분구묘군 전경



사진33 원삼국(마한)시대 집터

집터는 방형으로 내부의 네 모서리에 기둥 구멍을 가진 소위 전형적인 ‘사주식(四柱式)’으로 주위에 구를 둘러 집터를 보호하였다. 내부에서는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기와가마는 3기가 확인되었다. B-6지점 1호 가마는 반지하식으로 가마 형태는 배모양(舟形)에 가깝다. 규모는 길이 730cm, 너비 160cm이다. 내부에서 다량의 재와 기와편이 확인되었다. 바로 옆의 2호 가마는 소성부와 연소부가 대부분 파괴된 상태로 배연부와 연소부의 일부만 남아 있다. 조사구역 남서측에 위치한 B-11지점 가마는 물탱크 매립으로 인해 절반 가량이 파괴된 상태로, 소성부 상부 및 연도부와 요전부 일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길이 548cm, 잔존너비 428cm로 소성부의 바닥은 경사지고, 벽면과 바닥면은 회청색으로 소결되었다. 가마의 위쪽으로는 구상의 시설이 확인되는데 가마를 보호하는 기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34 B-6지점 1호 가마



사진35 B-11지점 가마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서구 연희동, 검단신도시 등 인천지역 서해안 일대에는 마한에서 백제에 이르는 분구묘가 다수 조사된 바 있다. 본 유적에서 확인된 마한의 분구묘, 집터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서해안 지역 고대 정치체 연구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려시대 기와가마의 경우 인접한 경서동 녹청자 요지와와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암 플라시아 유적은 이 지역에서 행한 대규모 발굴로서, 인천 서해안 지역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2) 경서동 유적

신석기~조선시대. 유적은 서구 경서동 산37번지 일원 해발 32.7m의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한다. 20세기 중반까지 서남쪽으로 서해안 갯벌과 인접하였으며, 약 300m 앞 공촌천 하구까지 밀물이 유입된 지역이다.

총 조사면적은 4,648㎡로, 신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3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사진36 경서동 유적 전경

신석기시대 집터 2기는 상호 중복된 관계로 기둥배치는 4개의 중심기둥과 네 벽을 따라 주혈이 일정 간격으로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영종도 중산동유적 12호 집터와 유사하다. 출토된 토기편은 상부에 사선 및 횡주어골, 하부는 무문양이다. AMS연대 등을 고려할 때 신석기시대 후기 기원전 3100~2300년 사이로 추정된다.

청동기시대에는 집터 1기와 석곽묘 1기가 확인되었다. 집터는 말각방형으로 북편에 치우쳐 원형의 수혈식 노지가 위치하며, 장신구로 추정되는 환형 토제품, 반월형 석도 2점 등이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바닥과 벽석을 모두 할석으로 쌓았고, 머리부분 벽석 일부공간에 마연토기를 부장하였다. 1차로 굴토를 하여 묘광을 조성하고 2차로 굴광과 매장주체부 사이의 공간에 할석을 채운 것으로 보인다. 사례가 많지 않지만 광주 역동 유적의 비파형동검 출토 석곽묘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석곽묘는 검단선 사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이전하여 전시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토광묘와 회묘, 건물터가 확인되었다, 백자 접시, 발, 청자 대접, 도기병, 청동술가락 등 당시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시대	유적	유물
신석기	집터2기	빗살무늬토기편, 갈판, 환형토제품
청동기	집터1기, 석곽묘1기	반월형석도, 환형토제품, 무문토기편
조선시대	토광묘3기, 회묘13기, 건물지1기	도기병, 청동시, 청자대접, 백자접시, 기와
미상	수혈12기, 소성유구1기, 구상유구 2기	백자편, 도기편

[청동기 시대]



사진36 석곽묘와 집터

사진37 출토유물

[신석기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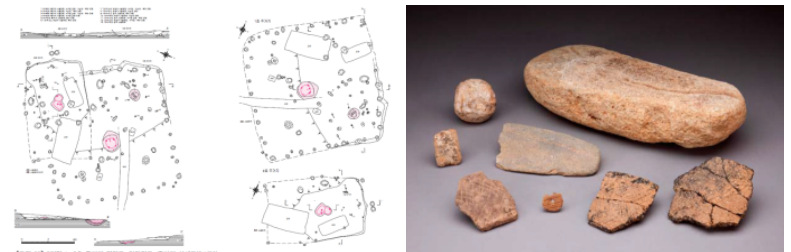


사진38 1·2호 집터

사진39 출토유물

3) 경서동 녹청자 요지 (국가사적)

고려시대. 검암동 산438-21일원²⁾ 바다와 면한 완만한 경사의 구릉지대로 인천국제컨트리클럽 안에 위치한다.

1964년 당시 이경성 국립현대미술관장(전 인천시립박물관장)이 국립중앙박물관 최순우 미술과장에게 발견 경위를 알린 후, 1965년과 1966년 4

²⁾ 발굴당시에는 그 위치가 인천 서쪽 경서동 산164번지로 표기되어 있다(국립중앙박물관 1990). 현재는 지반의 변화로 인해 검암동에 위치한다.

차례에 걸쳐 인천시립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3년에는 유구 확인을 위한 재발굴이 이루어졌다.

1차	1965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차	1966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3차	1966년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4차	1966년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발굴결과 당시 가마 1기를 조사하여 다량의 녹청자³⁾편과 가마 도구들을 발견하였다.⁴⁾ 가마는 구름을 타고 서남향으로 쌓은 단실요(單室窯, 통가마)로 길이가 7.3m, 폭 1.05m, 봉통(아궁이)이 폭 1.2m의 소규모 가마이다. 3차례에 걸쳐 다시 고쳐 쌓았으며 경사도는 20도 안팎이다. 가마 바닥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넓적한 자기로 만든 도지미를 놓고 그릇을 구웠다. 이러한 형태는 전형적인 고려식 토축요(土築窯)이다(이종민 2007).

이 가마에서 구운 것은 녹청색의 짙은 청자로 유약은 녹청색·녹갈색으로 표면이 고르지 못하며, 문양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드물게 병의 몸통에 주름무늬가 보인다. 종류는 대접, 접시, 항아리, 병, 자배기 등인데 특히 대접, 접시류의 일상생활용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⁵⁾

이러한 녹청자는 청자의 시원으로 여겨지는 등 오랫동안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1980년 이후 심화 연구를 통해 현재는 청자가 고려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방수요를 위하여 대량으로 만들어진 조질계열의 청자로 보

3) 녹청자라는 용어는 경서동 요지가 발굴된 후 당시 발굴 책임을 맡았던 故최순우가 『考古美術』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4) 발굴지역 이외에도 이 일대에 4~기의 가마가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학술조사는 없었다(이종민 2007).

5) 이러한 기종구성 즉 아직 병·항아리까지 청자로 제작하지 못했다는 점이 청자 제작의 초기단계를 시사해 주는 현상으로 보기도 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1990).

고 있다. 요지의 연대는 대체로 11세기말에서 12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사진40 B-6지점 1호 가마



사진41 가마 상부



사진42 제3차 가마의 봉통부분

발굴조사 후 드러난 가마에 보호각을 세우고 보존하였으나 현재는 보호각 철거 후 그 위치만을 지면에 표시하여 보존하고 있다. 경서동 녹청자 요지는 해방이후 한국학자들에 의해 처음 발굴조사된 생산유적이자, 1970년 사적 제211호로 지정된 인천 최초의 문화재로 사적(史的) 의미가 크다.



사진43 1990년대



사진44 현재

4) 류사눌묘 (柳思訥墓,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호)

조선시대. 문화 류씨 묘역에는 모두 6기의 묘가 있는데, 가장 윗쪽에 류사눌의 묘가 있다. 묘는 쌍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류사눌과 강릉 유씨의 합분이고, 다른 봉분은 후처인 창녕 성씨의 묘이다. 묘에는 호석(護石)을 두른 봉분이 있고 후대에 설치한 묘비, 상석·문인석 각 1쌍, 장명등 등이 배치되어 있다. 묘비는 1971년에 건립하였다.



사진45 문화류씨 묘역 전경



사진46 류사눌묘 전경

류사눌의 묘 아래에는 두 개의 묘가 있는데, 하나는 류사눌의 셋째 아들인 희생(喜生)의 묘와 묘갈이 있다. 묘갈은 마모가 심하여 ‘희생지묘(喜生之墓)’라는 글자만 판독된다. 묘갈의 크기는 가로 38cm 세로 110cm, 두께 18cm이다. 그 옆에는 경생(更生)과 부인 인천 이씨의 합장묘가 있다. 맨 아래에도 두 개의 묘가 있는데 하나는 경조(敬祖)의 장자인 영석(永錫)의 묘이고, 그 옆에는 경조와 부인 양주 조씨와 부여 서씨의 합장묘가 있다.

류사눌(1375~1440)은 문화 류씨 중시조로서 자는 이행(而行)이다. 시호는 문숙(文肅)으로 류임(柳臨)의 아들로 태어났다. 3세 때 아버지 류임이 홍건적을 토벌하다가 순절하였고, 14세 때 어머니 마저 세상을 떠났는데, 이후 숙부 류관(柳寬)의 밑에서 학문에 힘써 경전에 밝고 문장에도 능했으며 특히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

16세 때 생원시에 합격하고, 19세 태조 2년(1393)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병조정랑(兵曹正郎) 등을 역임하였으며, 태종 7년(1407)

에 이조정랑(吏曹正郎)으로 재직 중 중시(重試)에 급제,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이 되었다. 태종 9년(1409)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로 태종의 비 문경왕후의 동생들인 민무구와 민무질을 탄핵하다가 황해도 안악지방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이듬해 복직되어 좌사간(左司諫)을 거쳐 태종 11년(1411) 승정원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발탁되었다. 태종 16년(1416)에 지신사(知申事)에 제수되었는데 이후, 홍주목사, 함길도 관찰사, 강원도 관찰사, 한성부윤 등을 역임하고, 세종 10년(1428)에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서 명나라에 진하사(進賀使)로 파견되었다. 특히 예문관대제학 재직 시에 악학제조(樂學提調)를 겸하여 『아악보(雅樂譜)』서문을 찬하기도 하였다. 세종 16년(1434)에는 「진작가사(眞雀歌辭)」를 찬하여 『제악부(諸樂府)』에 수록하는 등 박연과 더불어 아악 정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세종 18년(1436)에는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를 거쳐 이듬해에 다시 예문관 대제학이 되었다.

5) 경서동 앞말 유물산포지 (경서동 유물산포지 1)



그림13 유물산포지 위치



그림14 수습유물(빛살무늬토기)

선사시대. 경서동 산181임 일대 해발 25m의 낮은 능선에 해당한다. 동서 방향으로 형성된 능선은 완만한 경사지로 잡목이 자생하고 정상부 일부

를 제외한 전체가 경작지로 개간되어 있다. 중앙문화재연구원 조사 당시 경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상당부분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유물은 경작지 전체에서 고르게 확인되며, 그 중 능선 중앙부 해발 25m의 구릉 남사면에서 보다 집중된다. 유물은 중앙문화재연구원 조사에서 회청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백자 등이 수습되었으며, 이후 인천시립박물관 조사에 빗살무늬토기편을 수습하였다.

6) 경서동 아랫말 유물산포지 (경서동 유물산포지 2)

시대미상. 경서동 248 일원으로 경서동 고잔 마을 동쪽에 위치한 해발 30m 내외의 구릉과 구릉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낮은 능선 일대에 해당한다. 구릉의 남쪽과 서쪽 사면의 구릉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서쪽 사면의 말단부는 경서지구 토지구획사업, 그리고 북쪽사면은 골프장이 조성되어 이미 원지형이 훼손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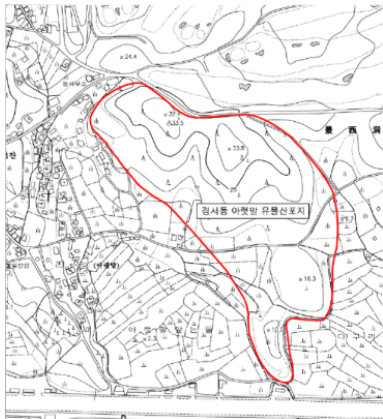


그림15 유물산포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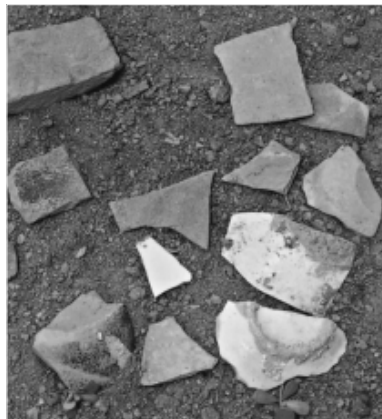


사진47 수습유물

유물은 경작지로 개간되어 있는 넓은 범위에서 확인되었으며, 특히 구릉 남서쪽 사면의 경작지에 집중 분포한다. 유물은 대부분 회청색경질토

기와 백자 등 자기류, 어망추 등이 수습되었다. 조사 당시 구릉 정상부는 잡목으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조사단은 완만한 경사지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림16 유물산포지 위치



사진48 전경



사진49 수습유물

7) 경서동 금산 유물산포지 (경서동 유물산포지 3)

시대미상. 경서동 산204 일대 해발 50m 내외의 구릉지에 위치한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서쪽과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으 정상부 주변이 평탄지를 이루고 있다. 구릉 대부분은 소나무 및 잡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점만 밭으로 경작되면서 지표층이 노출되었다. 구릉 동쪽 사면은 내륙에서 해안 쪽으로 이어지는 구릉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면은 도로개설 및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다. 또한 구릉 내부의 여러 지점도 크고 작은 개발 등으로 부분적으로 원지형이 훼손된 상태이다.

유물은 류사농묘가 위치한 구릉의 동쪽 사면 주변부 일부 경작을 위해 삭평된 지점에서 소량 확인되었다. 회청색경질토기, 백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생활유적과 관련된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8) 금산 봉수대터(金山 烽燧臺址)

조선시대. 경서동 산200-4번지 일대 해발 52.4m의 야트막한 구릉의 정상부로, 해안선에 돌출된 지형이다. 조선 고종 3년(1866) 병인양요로 인하여 축조한 것으로 현재는 그 터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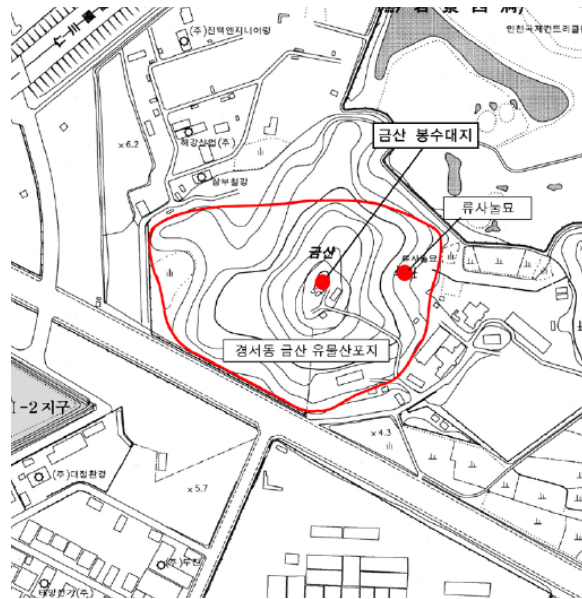


그림17 봉수대터 위치

9) 경서동 52 유물산포지 (경서동 유물산포지 4)

시대미상. 경서동 52전 일대 낮은 구릉지대로, (사적)경서동 녹청자 요지와 지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현재 봉수대로를 경계로 동측구간은 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행되었으며, 봉수대로 서측구간만 잔존한다. 지표조사 결과 경작 중인 밭에서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지도5 유물산포지 위치



사진50 유물산포지 전경

10) 경서동 425 유물산포지 (경서동 유물산포지 5)

시대미상. 경서동 425 일대의 나지막한 구릉지이다. 유물은 구릉 남쪽 사면을 개간하여 만든 밭에서 자기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지도56 유물산포지 위치



사진51 유물산포지 전경

11) 경서동 김해김씨 묘역

조선시대. 묘역은 경서동 산185 일대 경서초등학교 앞산에 위치하며, 50여기의 묘가 있다. 17세기부터 김진호(金盡浩)가 입향한 이래 경서동에 김해김씨가 세거하기 시작하였다.

김진호는 숙부인(淑夫人) 동래정씨(東萊鄭氏)와 혼인하였으며, 묘비를 통해 통정대부의 품계에 올랐다는 것 외에 기록이 부재하여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현재 봉분은 숙부인 동래정씨와 쌍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묘비,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이 있다. 묘비는 1683년(숙종 9)에 건립하였다고 새겨져 있는데, 새 묘비를 건립할 때 기존 묘비의 조성 연도를 그대로 새긴 것으로 보인다.

김성룡(金成龍)은 김진호의 손자로, 숙부인(淑夫人) 곤양 문씨(昆陽文氏)와 혼인하였다. 그는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으며 역시 상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봉분은 숙부인 곤양문씨와의 단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묘비,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이 있다. 묘비의 건립연대는 1754년(영조 3)으로, 새 묘비를 건립하면서 기존 묘비의 조성 연도를 그대로 새긴 것으로 보인다.

12) 집포군항 터 (沈浦軍港址)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 지금의 경서동 719-3 일대⁶⁾에는 집포마을이 있었다.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에 이곳은 천연적으로 형성된 군항이었는데, 해면에 돌출한 금산의 뒤에 위치하고 있다. 바다에서도 안보이고 육지에

서 보아도 작은 산이 감싸고 있어 보이지 않는 비밀항구였다고 전한다. 그 위치는 인천국제컨트리클럽 바로 앞 ‘경서 우정 에셰르 아파트’ 단지로 추정된다.



사진52 김포군항 추정지 전경

6) 기존의 자료에는 경서동 178번지(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8) 혹은 경서동 439-21(인하대학교 박물관 2006) 일대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맞지 않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1990, 『인천 경서동 독청자요지 발굴조사 보고서』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
- 김성환, 2023, 「단군 천왕당에서 삼성사로, 그리고 평양 단군묘 건립에 따른 폐지 논란」, 『민족문화연구』 제100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대한불교조계종, 200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길 도로공사구간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서』.
-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7, 『文化遺蹟總覽 上卷』, 133쪽.
- 문화류씨대종회 홈페이지 <http://moonhwaryu.co.kr>
- 서경문화재연구원, 2023.10. 「인천 검암동(320-2번지 일원)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유적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3차)」.
- 서경문화재연구원, 2024.02. 「인천 검암동(320-2번지 일원)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6차)」.
- 서경문화재연구원, 2024.04. 「인천 검암동(320-2번지 일원)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8차)」
- 이경성 저, 배성수 편, 2012, 『인천고적조사보고서』, 인천문화재단.
- 이종민, 2007, 「『景西洞』系 粗質靑瓷의 生産과 需要」『(2007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술회의) 高麗時代 陶器와 仁川』,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이훈익 편, 1996, 『인천금석비명집』,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1, 『桂陽史』.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7,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1 북서곶』.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8,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2 남서곶』.
-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2014, 『인천광역시 서구사』, 인천광역시 서구.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仁川北部經合學術調査』,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 인천광역시.
-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5,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4)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 인하대박물관, 2005, 『인천봉수대길(구지도84호선)도로공사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 인하대학교박물관, 2006, 『仁川文化遺蹟分布地圖』.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인천 청라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팜클, 2011,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석관묘 이전·복원 용역 결과보고서』.
-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인천 경서동 유적』.
-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8,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X.



X. 원창동

1. 원창동의 연혁과 지명

원창동은 크게 내륙과 섬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륙지역은 서구의 중남부 서해안에 연하여 있으며 동서 방향으로 길쭉하게 뻗어 있다. SK석유화학, 한국중부발전 등 에너지 관련 산업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동의중앙부의 남측에는 인천 북항이 자리하고 있다. 북항의 위로는 인천그랜드컨트리클럽이 위치한다.

원창동의 내륙지역은 동쪽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립한 땅이다. 매립하기 이전에는 울도, 소율도, 소염, 자치도 등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었다. 원창동에 속한 섬은 범섬, 정도, 대다물도, 세어도 등이다. 그 중 세어도가 비교적 크다. 원창동의 전체 면적은 4.19㎢이다.

삼남의 세곡을 서울로 수송하기 위하여 모아두는 세곡 창고가 있던 곳, 혹은 각 지역의 양곡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다는 뜻에서 원창동이라 하였다 한다. 1789(정조13)년 간행한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포리(浦里)가 대표지명으로 법정리로 등재되어 있다. 이곳은 지난날 부평부 석곶면 소속으로 갯말과 환자곶(還子串) 등 두 개의 자연 취락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평부가 관할 동리명을 확정할 때, 두 마을을 합해 『호구총수』의 기록과 같이 포리라 하였다. 그리고 해안 바로 앞에 있는 울도(栗島)와 장구도(長丘島), 매섬(鷹島) 등이 포리의 관할로 들어왔다. 1914년 4월 1일 부천군이 신설될 때, 부평부 모월곶면과 석곶면이 서곶면 하나로 통합되면서, 포리는 부천군 서곶면 소속이 되었다.

이후 1917년 6월 17일 연안 섬들의 관할이 바뀌었는데, 고잔리(古棧里,

현재의 경서동) 소속이던 세어도(細於島)가 포리에 소속되었고, 그때까지 포리 소속이던 장구도와 매섬은 영종면(永宗面)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1940년 4월 1일 서곶면 전체가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포리도 인천의 일부가 되었다. 일제는 편입 즉시 한국식 동리의 이름을 일본식인 정명으로 바꾸었는데 포리는 히사미즈쵸(久水町)가 되었다.

8·15 광복 후, 정부의 일본식 지명제거의 일환으로, 1946년 1월 1일에 원창동이라는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1955년 10월 1일 인근의 가정동과 석남동에 통합되어 가정·신현·석남동이라고 부르다가 1977년 5월 10일 이를 석남동 하나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1983년 10월 1일 석남동이 석남동과 가신동으로 분동되었다. 1990년 1월 1일 인구가 증가하자 이 가신동을 가정동과 신현동으로 분동하였다. 그러나 1998년 11월 1일 다시 신현원창동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원창동은 중요 산업시설과 북항이 위치한 곳으로 서구지역 무역과 산업의 중추지역이라 할 수 있다.

2. 원창동의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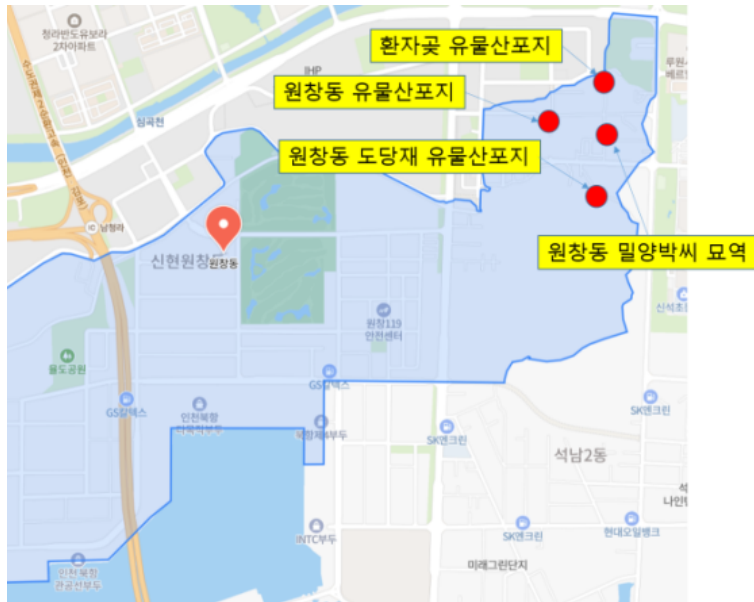


그림18 원창동 문화유산 분포

1) 환자곳 유물산포지

선사시대~조선시대. 서구 원창동 산10번지 일원으로 심곡천과 인접한 구릉지이다. 두 개의 구릉이 있는데 북쪽 해발 40m의 구릉이 환자곳 유물 산포지1, 남쪽 해발 30m의 구릉이 환자곳 유물산포지2이다. 도로개설 및 개밭, 과수원 이용 등으로 인해 원지형이 훼손된 곳이 많다. 유물은 북쪽 구릉 남쪽 사면 경작지와 남쪽 구릉 정상부 및 남동사면 말단부에서 확인 되었다. 대부분 회색색 경질토기이며, 회색연질토기 소량 그리고 백자 등 이다.

2) 원창동 유물산포지

선사시대~조선시대. 원창동 산49임 일대 해발 62m 구릉의 북쪽 사면 말 단부에 위치하는 해발 20m 내외의 낮은 능선이다. 능선 정상부와 남쪽 사면 일부만 잔존하며,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점에서 회청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백자 등 다량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좁은 범위에서 다량의 유물이 확인되고 있고, 주변에 마을이 조성된 점을 고려할 때 생활유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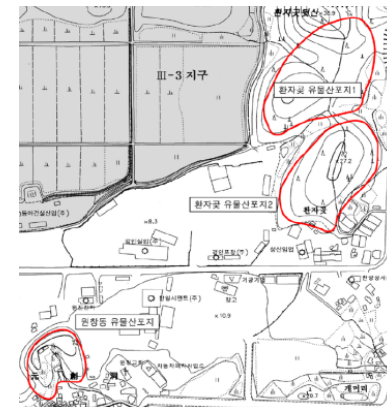


그림19 유물산포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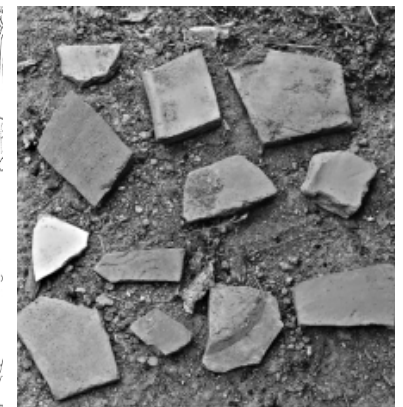


사진53 수습유물



그림20 유물산포지 위치



사진54 수습유물

3) 원창동 도당재 유물산포지

선사시대~조선시대. 원창동 산54번지 일대 해발 62m의 구릉에 해당한다. 구릉 주변은 정유 공장 및 주택 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다. 정상부 주변과 북사면 일대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민가가 부분적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민가의 주변 밭 일대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유물은 회청색 결질토기, 회색연질토기, 적갈색연질토기, 백자 등 다양하며, 유물의 양도 많은 편이다. 확인된 유물로 볼 때 생활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



그림21 유물산포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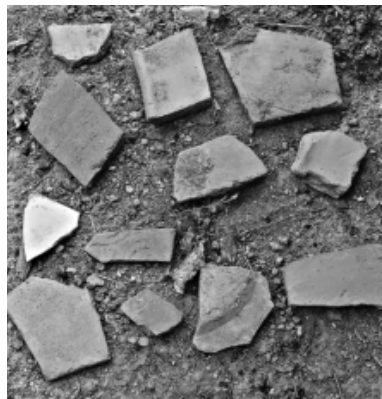


사진55 수습유물

4) 사창지 (社倉址)¹⁾

조선시대. 1977년 발간된 문화유적총람에는 시사(市史)를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인천시 북구 원창동 포리에 사창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²⁾

1) 사창지에 대해서는 인천서구문화원 김영준 선생님께서 관련 자료를 제공 받는 등 도움을 받았다.

2) 현재 터는 존재한다고 한다.



그림22 1872년 부평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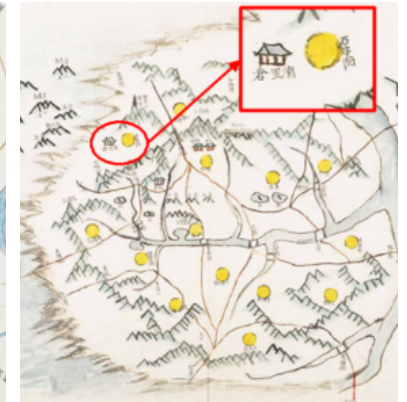


그림23 부평군읍지(1899)

‘元倉洞 浦里에 있다. 前日에 田稅(地稅를 現品으로 징수)와 社還米(春窮期에 貧戶에게 貸與하였다가 秋成後에 還收)를 받아 저장하던 창고로 高宗 31년 (1894) 이후 현품수납을 폐지하였으므로 따라서 사회제도도 자연폐지되어 社倉址는 洞民의 耕作地로 변하였다.’

이러한 사창지에 관한 기록은 1872년 부평부지도, 부평읍지 등에서도 확인되어 사창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겠다. 다만, 현재 정확히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원창동의 지명유래를 살펴보면, 각 지역에서 수집되는 양곡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다는 설(전국지명조사철 1959), 조선시대 삼남지방에서 배편으로 올라온 세곡을 하역하고 보관했다는 설(서구사 2014), 환자(還子) 창고가 있는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인천의 지명유래 1998) 등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창(社倉), 포리창(浦里倉), 전조창(轉漕倉) 등 다양한 성격의 창고가 등장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5) 원창동 밀성박씨(密城朴氏) 묘역

조선시대. 원창동 산15에 위치한다. 밀양박씨(密陽朴氏)는 박혁거세의 29세손 박언침(朴彦忱)을 시조로 한다. 그는 경명왕(景明王)의 맏아들로써 밀성대군(密城大君)에 봉해졌다. 1500년대 양지현감을 지낸 박우(朴祐)를 원창동 밀성박씨 입향조로하여 후손들이 원창동 일대에 세거하였다. 현재 묘역에는 박종남, 박의진, 박의몽의 묘와 석물들이 남아있으며, 나머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연천군으로 이장하였다.

박종남(朴宗南, 1592~1633)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박우의 증손이다. 숙부인(淑夫人) 온양방씨(溫陽方氏)와 혼인하였으며,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교리를 역임하였다. 봉분은 박종남과 숙부인 온양방씨와 단분으로 묘비,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이 있다

박의진(朴義眞, 17~18세기)은 박종남의 아들이다. 의인(宜人) 김화이씨(金化李氏)와 혼인하였고,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와 감찰(監察)을 역임하였다. 묘는 묘역의 하단에 위치하는데 김화이씨와 단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묘비,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이 있다.

박의몽(朴義蒙, 17~18세기)은 박종남의 아들이다. 유인(孺人) 청주이씨(淸州李氏)와 혼인하였고 무과에 급제하여 갑산진관의 동인 권관(權官)을 역임하였다. 묘는 박의진 묘의 좌측에 있으며 청주이씨와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고 상석, 향로석,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이 있다.



사진56 박종남 묘



사진57 박의진 묘



사진58 박의몽 묘

6) 원창포대지



사진59 현재 원창포대지 비석

조선시대. 2005년 인하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인천 가정택지개발사업 지구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서 발견한 포대지이다. 원창포대는 연희진에 속한 해안포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원창포대지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512이며 신현동의 독립구릉 북단에 자리한다. 2005년 조사에의하면 어릴 적부터 이 동네에서 살아온 강재명(72세, 가정 1동 72번지 거주)에 의하면 가정포대지와 마찬가지로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포대지가 잘 남아있었다고 한다. 2005년 당시에는 잡목으로 뒤덮여 있고 군사용 감시초소가 포대지 내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잡목도 사라지고 군사용 감시초소도 사라져 잘 정비된 상태이다. 2005년 조사에는 전(傳) 원창포대지로 쓰고 있어 원창포대지가 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주민의 증언과 입지로 볼 때 이 곳은 문헌에 기록된 원창포대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참고문헌

- 1872 부평부지도
- 『文化遺蹟總覽 上卷』,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7,
- 부평군읍지(1899)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仁川北部 綜合學術調査』.
-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5,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 인하대학교박물관, 2006, 『仁川文化遺蹟分布地圖』.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인천 청라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인천 가정택지개발사업지구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대한주택공사·인하대학교 박물관, 2005

XI.



XI. 연희동

1. 연희동의 연혁과 지명

역사 문헌에 연희동(連喜洞)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자료는 조선 정조 때 호구를 조사한 『호구총수』(1789년)로, 당시 부평군 모월곶면의 연희리(延希里)로 기록하였다. 당시 모월곶면에는 연희리 외에 공촌리(公村里)·고잔리(古殘里)·검암리(黔巖里)·시천리(始川里)·백석리(白石里)·청라리(靑蘿里)·난지도(蘭芝島) 모두 8개 마을이 있었다. 100년이 지난 1842년 무렵에는 10개 마을로 늘어났는데, 이는 모월곶면의 토지 이용율이 향상되며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부평부읍지』(1871년))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총독부 전국 지명과 지지사향을 조사한 자료인 『조선지리지』에는 공촌리·시천리·연희리(連希里)·백석리·검암리·고잔리(高殘里)·난지도·청라도(靑蘿島)·세어도(細魚島)·장구도(長邱島)·옹도(鷹島)·심곡리 모두 12개 마을이 등장한다. 이외에도 주요 농사지역과 개울로 연희리의 濱汀野(빈정야)·濱汀川(빈정개울)을 꼽았고, 주요 특산물로는 곡식류 이외에 백석리·시천리·검암리·고잔리·연희리의 소금생산을 들었다.(1918년 일제시기 지형도에는 연희리 앞 바다에 소금 생산용 염정이 드러나 있다)

대한제국 말부터 전국 토지를 조사하는 토지조사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인구·지리·지명·농사관행 등 조사하여 『지리지』를 제작하였다. 이때는 부평군과 인천군 일부가 부천군으로 신설되며, 모월곶면과 석천면은 부천군 서곶면(면사무소는 연희동)으로 행정구역이 변환된 직후였다. 1915년 9월 27일 서곶면장 정훈석(鄭薰錫)이 임시토지

조사국 지형특설반으로 보낸 자료에 의하면 연희리(連喜里) 거주 인구는 305명(67호)이고, 이듬해 3월 31일 보고에는 305명(65호)이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 6개월의 기간이긴 하지만 인구변동 없이 305명 정도가 거주 중으로, 당시 서곶면에서 가좌리(568명)와 고잔리(357명)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다.

일제강점기 후반인 1940년 조선총독부는 경인지역 일대를 전쟁수행을 위한 공업지대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천군 서곶면을 인천부에 편입시키고 이노우에마치(井上町)로 바꿔버렸다. 창씨개명이 이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함께 진행된 것이다. 이것은 8·15 광복 후 1946년 1월 1일에야 다시 옛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

2. 연희동의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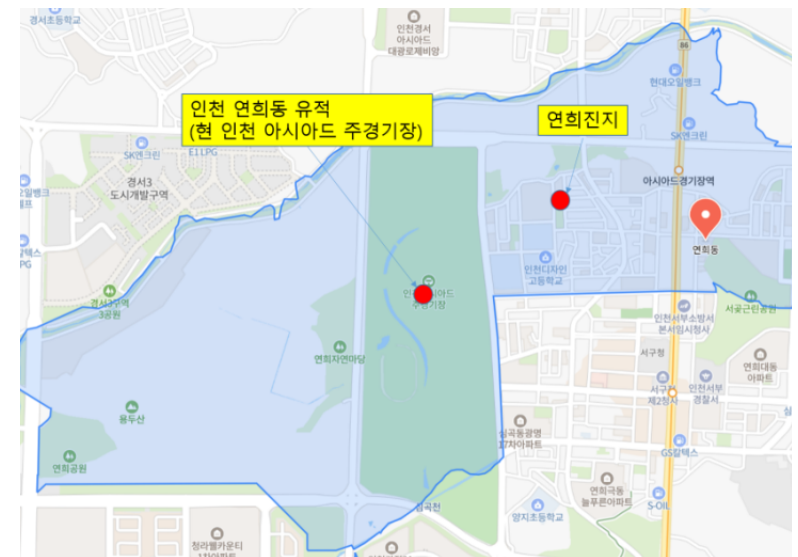


그림24 연희동 문화유산 분포

1) 연희동 유적



사진60 연희동 유적 조사지역 전경(출처: 『인천 연희동 유적(도판)』, 서경문화재연구원, 2013, 15쪽.)

원삼국시대. 인천 연희동 유적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부지에 매장문화재 조사를 통해 발견된 유적이다. 이 지역에 대한 전문학인 학술조사는 2009년에 경인문화재연구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지표조사 결과 원삼국시대~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유물 산포지 2곳과 주변지역에서도 2곳 유물 산포지가 확인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경기장 부지 내 유적의 범위와 성격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3월 18일 ~ 2011년 28일까지 시굴조사·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전체면적 586,000㎡ 중 조사면적은 384,875㎡(정밀시굴조사 대상지 약 317,633㎡, 표본조사 대상지 67,242㎡)이고, 이 가운데 유구가 확인된 2곳(약 58,996㎡)에 대해서는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유물산포지 2곳(정밀시굴 대상지)과 유물산포지 주변지역 2곳(표본시굴 대상지) 총 4곳에 대해 시굴조사가 진행되어 그 결과 원삼국시대 분구묘

(墳丘墓, 영어: tumulus)와 수혈유구(竪穴遺構), 조선시대 주거지와 토광묘 등 여러 시기에 걸친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으나, 표본시굴대상지 2곳에서는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인천 연희동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수혈유구 1기, 원삼국시대 분구묘 58기·토광묘 2기·옹관묘 4기·주거지 8기, 조선시대 토광묘 28기·삼가마 2기·야외노지 13기·지상식 건물지 6기·구상유구 125기·수혈유구 264기·유물 3기·주혈군 3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대체로 원삼국시대 분묘 유적을 중심으로 생활유적과 관련 유적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연희동 유적의 지형적 특징은 내륙에서 해안으로 뻗어나가는 2개의 능선상에 위치하며, 능선사이의 곡간부는 과거에 바닷물이 들어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두 능선이 마주보는 양상이다. 주거지나 분구묘의 양상으로 보았을 때, 남쪽 구릉의 유구가 먼저 조성되었으며, 이후 북쪽 구릉으로 유적의 중심지가 옮겨간 것으로 판단된다.

연희동 유적의 시기와 그 특징을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분구묘는 해발고도 6~22m정도로 낮은 구릉지에서 확인된다. 후대의 삭평이 심하여 매장주체부는 12기만 남아있다. 잔존하는 주구는 원형과 방형의 형태이며, 일부 구역의 분구묘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매장주체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주구의 중복이 심하고 밀집된 형태를 보인다. 유물은 매장주체부가 남아있는 경우 대부분 단경호·환두도·철모가 세트이며, 주구에는 대웅과 발형토기가 출토된다. 이러한 분구묘는 충청지역에서 주로 분포하였는데, 최근 주변지역인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와 인천 연희동·구월동 등 경기북서부지역에 확인되고 있다.

토기의 대표적인 기종은 발형토기, 대웅, 완, 호류(원저단경호, 평저단경호), 뚜껑, 이형토기 등이 있다. 중도식토기는 거의 희소한 편이며, 타날문토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출토유물 중 이형토기와 뚜껑의 유적분포가 원삼국시대의 분묘인 분구묘와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이 유적에서 백제토기가 거의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천 연희동유적은 백제 중앙세력이 존재하나, 지방에는 여전히 마한의 세력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철기유물은 6기의 분구묘의 매장주체부와 주구 미확인 토광묘 1기에서 확인되었다. 총 23점으로 매장 주체부가 남아있는 경우가 12기 뿐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중 7기에서만 철기유물이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철기유물의 부장량이 많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물의 부장양상은 3-1지점 1호 토광묘와 3-2지점 2호 분구묘를 제외하고는 모두 환두도·철모 호형토기가 공반관계를 이루며 목관 내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철기유물의 기종도 환두도·철모의 경우 유구 1기마다 1기종 이상이 부장된 것에 반하여 철검·철부 등 농공구류는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적어 대체적으로 무기류 중심 부장이 이루어졌다. 인천 연희동유적은 원삼국시대 분구묘가 중심을 이루는 유적으로 다수의 구상유구·수혈유구 또한 분구묘와 관련된 유구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분구묘와 구상유구·수혈유구 등에서 출토된 토기·철기 등 유물들을 살펴볼 때, 연희동 유적은 대략 3세기 후엽에서 4세기 전반을 그 중심 시기로 비정할 수 있으며,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및 고지자기분석 등 자연과학적 분석결과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시기 인천지역은 백제의 영토에 속해 있었으며 수도 한성과 지척에 위치해백제중앙세력의 영향이 매우 컸던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한의 전통묘제인 분구묘가 대규모로 밀집조성되었다는 것은 아직 마한의 재지세력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마한의 문화 또한 단절되지 않고 백제문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시기 마한과 백제문화 연구에서 인천 연희동 유적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희동 유적은 원삼국시대 이 지역을 근거로 활동했던 정치세력

을 상상하게 하는데, 관련된 글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인천 - 김포지역에서 마한의 대표 묘제로 알려진 분구묘가 다수 발견되었다. 분구묘의 출현은 이 지역에 일정 규모의 세력을 가진 지배 집단이 출현했음을 의미한다. 분구묘가 집중적으로 발견된 지역은 인천 연희동 유적, 김포 운양동, 양촌 유적 등이다. 여기서는 분구묘가 대규모로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위계에 따른 입지의 조성 및 그에 따른 유물이 확인된다. 이는 이 지역에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한 정치세력이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또 출토 유물을 토대로 본 중심연대가 대략 3세기 전후반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삼국지 동이전 한조(『三國志』「東夷傳 韓條」)에 등장하는 마한의 소국일 가능성이 크다. 삼국지 한조에는 56개의 소국이 등장하는데, 문헌사적 연구성과에 따른다면 인천 - 김포지역에 해당하는 나라는 ‘우휴모탁국(優休牟挾國)’, ‘신분고국(臣濱沽國)’ 및 ‘속로불사국(速盧不斯國)’ 등이다. 이들은 서해 연안에 위치한 마한연맹체의 일원으로 중국 군현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였을 것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246년 조위(曹魏)의 동위(東魏) 남부 교섭체제의 개편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기리영(岐離營, 황해도 평산군 일대) 전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마한연맹체에 속하며, 분구묘(사주식 주거지 포함)를 조성하던 인천 - 김포지역의 정치세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들은 “해상”을 매개로 하여 경제적,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형성된 마한의 지역연맹체이다. 인천 - 김포지역은 서해안의 모든 물길을 상호교차하여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지점이자, 한강과도 연결되는 해양 교통의 길목이다. 즉 분구묘가 집중 발견된 인천 연희동 및 김포 운양동, 양촌 등지는 육지와 강과 해양이 연결된 접점 지역으로 물자의 공급지와 수요지, 그리고 집결지를 연결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이곳의 자리 잡은 정치세력은 이 같은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하여 주변 정치세력 및 외국과 교섭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인천 - 김포지역의 정치체는 해상교류를 통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동시에 강한 군사적 동맹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희동 지역은 일명 ‘보장중지(保障重地)’로서 외부세력이 한반도 내륙에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는 그야말로 군사적 요충지이다. 이에 서해 연안에 위치하며, 대외무역에 종사하고자 한 세력이라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포 운양동 유적에는 오수전, 철경동축, 낙랑계토기편 등 낙랑계유물뿐 아니라 상당수의 철제무기류도 발견되는데, 이는 이 지역 세력이 중국 군현과 교류 또는 분쟁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¹⁾

2) 연희진 터



사진61 연희진 터

1) 김경화, 「인천-김포지역 분구묘와 마한」, 『한국학연구』 65, 2022

조선시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35번지 일원은 개항기 설치된 연희진이 자리했던 곳이다. 연희진이 설치된 배경에는 19세기 후반 조선과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접촉이 병인양요·신미양요·운요호 사건이라는 폭력적인 결과로 나타난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조일수호조규(1876)로 개항이 결정된 후, 일본이 서해안의 개항지를 요구하자 조선 정부는 서울가 거리가 가까운 인천·부평 연안 방어문제가 구체화되었다.([『일성록』, 고종 14년 10월 15일) 인천·부평 지역 방비의 중요성은 첫째 이 지역이 강화도처럼 보장처(保障處)라는 점, 둘째 험로인 손돌목 등이 위치하는 강화수로를 경유하는 것보다 이 지역을 통해 서울로 향하는 것이 훨씬 쉽고 거리상으로도 가깝다는 점, 셋째 일본이 이미 인천·부평로를 알고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영의정 이최응(李最應)이 재정의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였지만, 고종은 “인천에 방어영이 이속되었음에도 방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유명무실한 것이니 서둘러 책임자를 택하여 방비를 갖추도록 하라”며, 인천·부평 지역의 방비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듬해 1878년(고종 15) 8월 27일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종은 “인천·부평의 돈대 가설처에 대한 무위소(武衛所)의 계획이 있었던 바, 이 지역은 강화에 못지 않는 중지(重地)이므로 창진설둔(創鎭設墩)하여 방수를 엄히 하라”고 하면서 어영대장 신정희(申正熙)를 공역감동당상(工役監董堂上)으로 임명하였다.([『고종실록』, 고종 15년 8월 27일)

이로써 인천·부평 지역의 방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제물포에 포대가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포대 축조에는 석질이 좋고 단단하다고 알려진 강화도의 석재를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같은 해 10월 5일 영의정 이최응은 “공사비용으로 1만 냥을 마련하였으나 공사 과정을 살펴보니 그 3배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비용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지 말고 오로지 견고하게 축조해야 후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 하여 많은

비용이 소모되더라도 견고한 포대 축조를 주문하였다.

1879년(고종 16) 7월 1일 인천과 부평지역의 병진설둔(創鎭設墩)의 역사가 마무리 되었다는 무위소의 보고가 있자, 신설되는 진의 명칭을 각각 화도진(花島鎭)과 연희진(延喜鎭)이라 하고 훈련도감의 지각관(知穀官)이나 각 영의 훈련관(訓練官) 중에서 쓸만한 자를 두 진의 별장으로 부임케 하며 임기를 30개월로 정하였다.([『고종실록』, 고종 16년 7월 1일) 또 같은 해 11월 무위도통사 민겸호(閔謙鎬)의 건의에 따라 두 진은 모두 해문의 요충이므로 부근의 1개 면을 소속케 하여 독진(獨鎭)으로 삼았다.([『승정원일기』 고종 16년 11월 15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부평지역에 연희진을 설치한 목적은 서해로부터 서울로 향하는 육로를 차단하기 위함이었고, 이는 인천지역의 화도진도 마찬가지였다. 서해에서 도성으로 이르는 길은 강화수로를 이용하는 것과 해안에 상륙하여 육로를 이용하는 것이 있었다. 조선의 지형을 모르는 외국선박의 경우 수로를 이용하여 통상을 요구해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프랑스와 미국의 함대가 이를 저지하려는 조선군과 강화도에서 격전을 치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강화도의 덕진진, 초지진, 통진의 덕포진에 포대를 설치하고 강화 수로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1876년(고종 13)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인들은 도성로의 접근이 강화수로보다 훨씬 수월하고 거리도 짧았던 인천·부평로를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조정에서 근심이 아닐 수 없었다. 만일 일본측이 합의를 무시하고 무력시위를 할 경우 방비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던 강화도와 통진에 비해 인천·부평의 연안은 상대의 무력에 대해 무방비 상태였다. 더구나 일본 군함 운요호에 의해 영종방어영이 공략당한 사례를 비취볼 때, 인천 연안을 방어할 군사력은 거의 전무하였다. 또한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와는 어떠한 조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육로 이용 정보가 서구열강에 유포된다면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부평 연안의 방비 강화는 서해로부터 도성으로 향하는 육로를 차단하여 일본을 비롯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초래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목적이었다.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인천 연안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육로는 3가지로, 거리는 인천 해안까지 90리, 부평의 해안까지 70리였다. 따라서 인천 연안에서 도성까지 최단거리는 부평로이다. 부평로는 도성-양화진-철곶포(지금의 양평동)-고음달내현(현재 화곡동)-부평(현재 계양)에 도착한다. 또한 해발 100m 이상의 구릉지가 없기에 일단 인천 연안, 특히 부평지역에 상륙하여 도성으로 향한다면 최단기간에 도성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부평 지역에 연희진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1880년 제물포 개항이 결정되며, 애초 화도진·연희진의 설치 목적인 연안 방어가 무위로 돌아가자 1882년 6월 28일 혁파하고 화도진은 훈련도감으로 이속시켰다.([『일성록』 고종 19년 6월 28일) 화도진은 이후 15년 동안 존속하였지만, 연희진은 창설된 지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는 물론 진의 위치에 기인한 것이다. 개항지가 화도진 관할에 있던 다소면(多所面)의 제물포 일대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 및 외국선박의 상륙을 저지하려는 본연의 기능은 상실하였다 해도 개항 이후 벌어질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화도진에 군대를 주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연희진이 폐지되며 부평에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설치하기 전인 1883년 12월에 기연해방의 군사와 포군의 조련(操練)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 사목(事目)으로 작성할 것을 지시한 기록이 확인된다.([『고종실록』 고종 20년 12월 18일) 통진의 덕포진의 경우 갑오개혁 이듬해인 1895년 소속 포대가 함께 혁파되 사례를 보더라도, 연희진 혁파 이후 소속 포대들은 부평부 또는 기연해방영 관할 아래 일정 기간 존속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49년 인천시립박물관장을 지낸 이경성의 조사에 의하면 연희진 터는 당시 인천시 서곶출장소 청사로 사용되었다고 전한다.(이경성, 『인천고적 조사보고서』, 이후 이를 정리하여 『인천의 고적』(1953년)에 수록). 즉 연희진 터는 일제강점기 부천군 서곶면 사무소가 들어서며 광복 후 서곶출장소로 이용되었다. 이후 서곶출장소는 1970년대 마을을 관통하는 48번 국도가 건설되며 서구 보건서 자리로 이전하였고, 이후 주거단지·학교·계명공원이 들어섰다. 현재는 계명공원 안에 연희진 터 표지석 만이 있을 뿐이다.(서구사편찬위원회, 『서구사』 상, 2014)

2003년 연희진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인하대 박물관에서 진행되어, 현재 연희동 735번지의 공원을 중심으로 연희우성아파트와 서곶중학교가 들어선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당시 현장 조사에서도 도로 개설 및 공장지대, 주택 건축 등으로 인한 지형 훼손으로 구체적인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3) 연희포대 터

조선시대, 연희진에 소속된 포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전승되고 있을 뿐이다. 연희포대(龍頭砲臺)

와 가정포대(佳亭砲臺)를 관할했다는 연구(박광성, 「인천개항과 연안방비책에 대하여」, 『기전문화연구』 11, 인천교육대학 기전문화연구소, 1981)도 있고, 2003년 인하대 박물관에서 연희진 포대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진행하였지만, 군 부대가 설치되어 포대의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인하대학교박물관, 『연희진 포대지 지표조사 보고서』, 2003)

제물포에 설치되었던 화도진과 그 소속 포대들의 정황은 『화도진도(花島鎭圖)』에 잘 묘사되었기에, 이를 통해 연희진의 운용과 포대의 위치를 유추할 수 있다. 화도진에 소속된 포대는 모두 8개소로 2~8개의 포좌를 갖추고 있었다. 포대의 임무는 적병(敵兵)이 해안 상륙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수심이 얕은 인천 해안은 대형선의 접안이 어렵기 때문에 소형선으로 병사들을 수송해야 했다. 따라서 포대의 임무는 갯골 수로를 타고 내륙으로 접근하는 소형선을 타격하는 것이었다. 인천 해안에서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갯골은 세 곳으로, 만석동 땡이부리[貓島]에서 우측으로 돌아 만월산 아래 간석오거리까지 흘러드는 주안갯골, 안산 오이도 앞에서 외암도(外岩島)와 남동공단을 거쳐 선학동까지 흘러드는 승기갯골, 그리고 역시 오이도 앞에서 소래를 거쳐 시흥시 포동까지 흘러드는 소래갯골로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 포대가 설치되었다.

위 인하대 박물관의 조사에서는 화도진의 경우를 참작하여, 고지도와 갯골 및 수로의 방향·육로와의 연계성 등을 염두에 두고 연희동에 3개소, 가정동에 1개소, 원창동에 2개소, 가좌동에 1개소 등 포대 설치가 유력한 지역을 추정하였다.

포대	주소	특징
연희 1포대지	서구 경서동 343번지 일대	공촌천이 경명로 초입까지 흘러드는 해문(海門)을 이룸 공촌천 수로 방어. 포좌 방향은 남동쪽
연희 2포대지	서구 연희동 산 124번지 일대	공촌천 수로 방어. 포좌 방향은 서북쪽 연희 1포 대지와 교차사격 가능
연희 3포대지 (용두포대지)	서구 연희동 423번지 일대	양끝 돌출부 사이로 만을 형성하는 지점에 설치 추정 공촌천 수로 방어. 포좌 방향 서북쪽
가정포대지	서구 가정동 69-1번지 봉우재 일대	연희[용두]포대로 잘못 알려짐 심곡천 수로 방어. 포좌 방향은 서남쪽 1929년 대유제방(大有堤堰) 준공 기념비 확인
원창 1포대지	서구 원창동 산 1~4번지 일대	심곡천 수로 방어. 포좌 방향 서북쪽 '환자곶뒀산'이라 불리는 곳에 포대 설치 추정
원창 2포대지	서구 석남1동 산 125-1번지 일대	주변 공업단지 조성으로 원지형 상실 포좌 방향 서쪽 추정
가좌포대지	서구 가좌동 329번지 일대	간석오거리로 이어지는 수로를 방어 (현재는 육지화) 포좌 방향 남서쪽 추정

이는 입지상 포대지로 유력한 지점을 추정한 것일 뿐, 포대와 관련한 유구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조사에서 인천 서구 가정동 69-1번지 봉우재 일대 연희[용두]포대라 부르는 포대지는 가정포대가 잘못 알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문헌

- 김경화, 「인천-김포지역 분구묘와 마한」, 『한국학연구』 65, 2022
- 문화재청,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서구 연구구 용진군』, 2022
- 서경문화재연구원, 『인천 연희동 유적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부지 내』, 2013.
- 서구사편찬위원회, 『서구사 (상)』, 2014.
- 유희진, 「서곶 지방지」, 『인천공보』, 1953.
-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향토지』, 1997.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사 10. 인천의 관방유적 (상)』, 2019.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북부 종합학술조사』, 2004.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9.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하)』, 2018
-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알기쉬운 서구사』, 2008.
-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인천서구문화원 향토지 16 인천 서구 마을誌 1. 북서곶』, 2017
-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2.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이야기』, 2015.
-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3. 알기쉬운 인천 서구의 역사와 문화』, 2015
-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4. 인천 서구의 분묘 유적과 금석문』, 2015.
- 인하대박물관, 『문화유산 지표조사 보고서 연희도시자연공원』, 2004.
- 인하대박물관, 『연희도시자연공원(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4.

XII.



XII. 심곡동

1. 심곡동의 연혁과 지명

천마산(鐵馬山) 북쪽에 위치한 심곡동은 기피울과 양가말(梁家村)이라는 두 개의 자연 마을로 구성되었다. 심곡동(深谷洞) 지명은 조선 정조 때 호구를 조사한 『호구총수』(1789년)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당시 모월곶면에는 연희리 외에 공촌리(公村里)·고잔리(古殘里)·검암리(黔巖里)·시천리(始川里)·백석리(白石里)·청라리(靑蘿里)·난지도(蘭芝島) 모두 8개 마을이 있었다. 100년이 지난 1842년 무렵에는 10개 마을로 늘어났는데, 이는 모월곶면의 토지 이용율이 향상되며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부평부읍지』(1871년))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총독부 전국 지명과 지지사항을 조사한 자료인 『조선지리지』에는 공촌리·시천리·연희리(連希里)·백석리·검암리·고잔리(高殘里)·난지도·청라도(靑蘿島)·세어도(細魚島)·장구도(長邱島)·응도(鷹島)·심곡리 모두 12개 마을이 등장한다.

대한제국 말부터 전국 토지를 조사하는 토지조사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인구·지리·지명·농사관행 등 조사하여 『지지조서』를 제작하였다. 이때는 부평군과 인천군 일부가 부천군으로 신설되며, 모월곶면과 석천면은 부천군 서곶면으로 행정구역이 변화된 직후였다. 1915년 9월 27일 서곶면장 정훈석(鄭薰錫)이 임시토지조사국 지형특설반으로 보낸 자료에 의하면 심곡리 거주 인구는 250명(55호)이고, 이듬 해에 250명(54호)이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어 마을 규모가 연희리 보다는 작았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심곡리라는 한자식 명칭보다는 기피울(汲피울)

이라고 불렀다.

일제강점기 후반인 1940년 조선총독부는 경인지역 일대를 전쟁수행을 위한 공업지대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천군 서곶면을 인천부에 편입시키고 닛신마치(日進町)로 바뀌버렸다. 창씨개명이 이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함께 진행된 것이다. 이것은 8·15 광복 후 1946년 1월 1일에야 다시 옛 이름을 되찾을 수 있었다.

2. 심곡동의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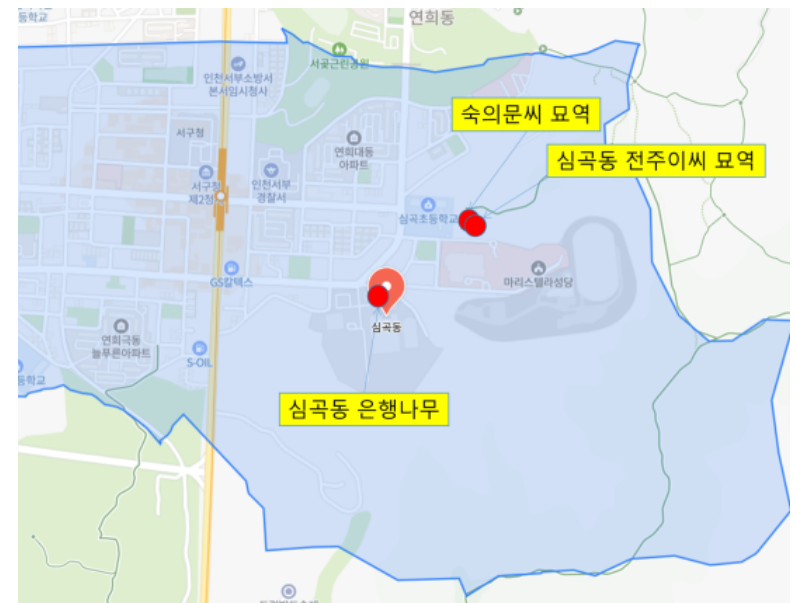


그림25 심곡동 문화유산 분포

1) 속의문씨 묘역

조선시대. 속의문씨 묘는 심곡동 한국은행 연수원 입구 좌측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이 묘는 봉분이 퇴락하고 묘비조차 땅에 파묻혀 알아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을, 1947년에 류희진씨가 봉분을 모으고 비를 다시 세웠는데, 비에는 ‘文宗後宮淑儀文氏之墓’라고 쓰여 있다. 이때 백자에 쓴 『墓誌銘』이 발견되어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묘는 그후 1974년에 다시 묘역을 확장·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묘지명 내용]

南平之望族曰文氏曾王父達漢封順平君王父孝宗拜判院事父敏之拜僉知僉知娶正郎權審之女生淑儀于宣德九年 丙午淑儀第二女也而生長名門容德卓異正統七年壬戌選入文宗大王後宮職在承徽至 世祖朝陞昭容今上即位之初丙寅又陞淑儀戊辰終于正窮越九月二十六日 辛酉葬于 富平之佳原 享年八十三而無後 淑儀平生以仁厚根其心恭儉律其身故能享仁者之壽 而獨缺於嗣續之慶借銘曰 貞其德儉其身壽遇稀天佑仁 正德三年九月二十四日 通仕郎權知承文院副正字潘碩桴書

‘남평(南平) 고을의 이름난 가문은 문(文)씨이다. 증조부는 달한인데 순평군에 봉해졌고, 할아버지는 효종인데 관원사를 지냈고 아버지는 민지인데 첨지를 지냈다. 첨지께서 정랑 권심의 딸에게 장가들어 선덕 9년 병오년(1426)에 속의(淑儀)를 낳았다. 속의는 둘째딸이다. 그는 명문가에서 성장하여 용모와 덕이 탁월하였다. 정통 7년 임술년(1442)에 선발되어 궁중에 들어가 문종대왕의 후궁이 되었다. 직위는 승미(承徽)에 있다가 세조 때 소용으로 승진하였고, 금상(중종)이 즉위한 처음 병인년(1506)에 다시 속의로 승진하였다. 무진년(1508) 정궁(正窮)에서 돌아가셨다. 그 해 9월 2일에 부평의 아름다운 언덕에 장사지냈다. 향년은

83세이고 슬하에 자손이 없다. 속의 문씨는 평생을 어질고 후덕한 마음가짐을 근본으로 공손하고 근검함으로 몸을 다스렸다. 그러므로 어진 사람으로 천수를 향유할 수는 있었으나 홀로 후손을 잇는 경사에서 흠결(矢缺)이 있었다.

명(銘)하여 이르기를, 그 덕을 굳게 하고, 그 몸을 검칙하였도다 장수함은 드물게 만나는 것이어서 하늘이 어진 자를 도우산 것이로다

정덕(正德) 3년(1508) 9월 24일 통사랑 권지 승문원 부정자 반석평은 쓰다’

속의 문씨(1426~1508)는 문종의 후궁으로 『묘지명』에 의하면 그녀는 문민지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고의 조부는 세종 조에 반중추원사를 지낸 문효정이고, 그의 증조부는 고려 공민왕때 순평군으로 봉해진 문달한 이다. 속의 문씨는 평생 인후를 마음의 근본으로 삼고 공검으로 몸을 다스리는데 힘썼으나 애석하게도 후사 가없었다 한다. 중종 3년 9월 26일에 부평가원을 택하여 장사지냈다.

묘지명을 지은 사람은 통사랑 권지승문원부정자 반석평이다. 속의문씨 묘에서 나온 두 편의 묘지명은 백자태토를 굽고 그 위에 철분 분의 안료로 글을 적은 철화백자 묘지명으로 면에는 속의문씨의 행적을 상히 기재하였고, 뒷면에는 제1장·제2장 이라고 편수를 기록하였다.

묘지석은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 묘의 위치와 좌향 등을 적어서 묘에 묻은 판석이나 도판을 말하는데 조선시대에 크게 발달하였다.

- 비석 크기 : 규모 총고 112cm, 비신 높이89×너비52×두께19cm
- 묘지명 크기 : 가로 16.5cm×세로 25.3cm×2.2cm의 판형의 백자 2편.



사진62 속의 문씨 묘역

2) 심곡동 전주이씨 묘역

조선시대. 속의문씨 묘 바로 옆에 전주이씨의 묘역이 있다. 전주이씨의 묘역에는 모두 7기의 합장묘가 있다. 속의문씨 사망 후 죽자 심곡동에서 장례를 지냈는데, 이곳은 정종(正宗)의 14남 정석군(貞石君)의 5세손 이비(李備)가 입향하여 세거를 이루고 전주이씨의 선영이 된 곳으로, 문중에 의하면 속의문씨가 이비의 '장숙모'가 되는 연유로 이곳에 모셨다고 전한다. 비문에 나타난 묘주와 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주이공비 창선대부행강동부령 신인문화유씨지묘

(全州李公備彰善大夫行江東副令愼人文化柳氏之墓)

이비(李備)(생몰연도 1494~1561년, 본관 전주, 대표관직 강동부령(江東副令))

조선 전기 문신으로 창선대부(彰善大夫) 강동부령(江東副令)을 지냈다. 할아버지는 조선 2대 임금 정종의 14남 정석군(貞石君) 이용생(李隆生)이다. 아버지는 횡천도정(橫川都正) 이겸(李謙), 어머니는 신부인(愼夫人) 한양조씨이다. 이비는 감찰(監察) 박암(朴淹)의 딸 신부인 문화박씨(文化朴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명천감(明川監) 이백년(李百年), 숙천감(肅川監) 이만년(李萬年), 연천감(漣川監) 이종년(李從年), 희천감(熙川監) 이경년(李敬年)을 두었다. 이비의 묘는 묘역 상단에 위치한다. 봉분은 신부인 문화박씨와 의 단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옛 묘비, 새 묘비, 혼유석,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이 있다.

시대 : 1573년

규모 : 총고 94cm(비신 높이89×너비37×두께15cm)



사진63 속의문씨 묘 옆에 있는 전주이씨 묘역

2) 전주이공만년 숙천감 숙부인원주원씨지묘

(全州李公萬年肅川監 淑夫人原州元氏之墓)

이만년(李萬年) (생몰연도 1518~1585년, 본관 전주, 대표관직 숙천감(肅川監))

조선전기 문신으로 숙천감(肅川監)에 봉해졌다. 아버지는 강동부령 이비, 어머니는 신부인 문화류씨다. 이만년은 사직(司直) 원필상(元弼商)의 딸 숙부인 원주원씨(原州元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이의남(李義男), 이충남(李忠男), 이제남(李悌男), 이신남(李新男)을 두었다. 이만년의 묘는 이비의 묘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봉분은 숙부인 원주원씨와 단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옛 묘비, 새 묘비,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이 있다.

시대 : 미상

규모 : 총고 59cm(비신 높이44×너비37×두께14cm)

3) 전주이공의남 유인회원현씨지묘(全州李公義男 孺人檜原玄氏之墓)

4) 전주이공지윤 증좌윤 파평윤씨지묘

(全州李公志尹 贈左尹坡坪尹氏之墓)

5) 전주이공계완 증군자감정 유인합천이씨지묘

(全州李公啓完贈軍資監正 孺人陝川李氏之墓)

6) 전주이공화 유인광산김씨지묘(全州李公樺 孺人光山金氏之墓)

7) 전주이공두현 유인행주기씨지묘(全州李公杜鉉 孺人幸州奇氏之墓)

1997년 연희지구 개발로 묘를 동쪽의 산 중턱으로 이장하였다. 현재 속의 문씨 묘는 전주이씨 묘역 내에 철제 펜스로 둘러졌다.

3) 심곡동 은행나무



사진64 심곡동 은행나무

시대미상. 높이 19.5m, 둘레 2.95m로 수령 500년의 은행나무이다. 심곡동에서 규모가 큰 자연 마을인 기피울과 양가말 외 절골·뒷골·모통말 등이 있었다. 고려 후기부터 남원양씨들이, 조선 중기부터 전주이씨, 풍천임씨 등이 이곳에서 세거하였기에, 예로부터 보호수를 신성시하여 기복의 대상으로 여기며 각종 전설과 민담의 소재가 되었다.

이 은행나무 역시 마을의 기원의 대상과 수호신 역할을 하였다. 마을 원로의 증언에 따르면 매년 음력 10월에 모퉁이공원에서 도당굿을 지냈다.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내에 위치한 심곡동 절골 은행나무를 큰당으로, 심곡동 모퉁이공원 음나무를 작은당으로 모시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무병장수를 빌었지만, 1950년대에 중단되었다고 한다.

심곡동 절골 은행나무 전설

심곡동 절골 은행나무는 벼락 맞은 나무라는 독특한 이력만큼이나 재미있는 전설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나무에 생긴 구멍에 관한 전설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무를 베려던 사건에 대한 전설이다.

전설에 따르면 백여 년 전에 나무의 밑 부분이 썩어서 큰 구멍이 생겼다. 그 구멍은 때때로 크기가 달라졌는데 평소에는 오픈라들어

서 사람이 지나기 힘들 정도지만 나라가 위급할 때는 구멍이 넓어져서 지계를 진 사람도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 살던 이씨가 집안의 묘를 쓰기 위하여 찾아다니다가 은행나무가 있던 자리가 명당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사람을 시켜 이 은행나무를 베게 하였는데 나무를 베던 사람이 나무를 자르다가 갑자기 죽었다. 하늘의 천벌이라고 여긴 이씨는 묘 자리로 쓰려던 생각을 포기하였으며, 곧 집안이 몰락했다고 전해진다.

참고문헌

- 문화재청, 『제2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서구 연구구 응진균』, 2022
- 서구사편찬위원회, 『서구사 (상)』, 2014.
-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향토지』, 1997.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북부 종합학술조사』, 2004.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9.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하)』, 2018
-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알기쉬운 서구사』, 2008.
-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인천서구문화원 향토지 16 인천 서구 마을誌 1. 북서곶』, 2017
-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2.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2015.
-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3. 알기쉬운 인천 서구의 역사와 문화』, 2015
-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4. 인천 서구의 분묘 유적과 금석문』, 2015.

XIII.



XIII. 가정동

1. 가정동의 연혁과 지명

가정동(佳亭洞)은 천마산과 축곶산 사이 협곡을 지나는 승학현(昇鶴峴) (싱아고개)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서구지역이 주부토군(부평의 고구려지명)의 일부와 검포면(김포의 고구려 지명)의 일부였다. 서기 757년(신라 경덕왕 16) 통일신라는 강역을 9주, 5경, 121군, 290현으로 편제하였는데, 주부토군은 장제군, 검포현은 김포현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마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군·현의 이름만 있으므로 더 이상은 알 수 없다. 고려시대에는 995년(성종 14)에 장제군이 수주, 1150년(의종 4)에 안남도호부, 1215년(고종 2)에는 계양도호부, 1305년(충렬왕 2)에는 부평부로 각각 개편되었다. 이때도 마을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 후 조선시대 1760년(영조 36년)에 만든『여지도서』 부평부 편에 마을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의 서구 지역에 해당하는 석곶면과 모월곶면은 리(里)의 명칭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 후 1789년(정조 13년)에 발간된 『호구총서』를 보면 석곶면에 봉현리, 가정리, 신현리, 포춘리, 번작리, 가좌리, 율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인 1840년 4월 1일 인천주는 부평출장소와 남동출장소 그리고 서곶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이 중 지금의 서구에 들어선 서곶출장소는 당시 지명이 ‘정상정’이고 현 연희동 지역에 설치되었다. 서곶출장소는 천강정(지금의 가좌동 지역), 운연정(지금의 운연동 지역) 등을 포함한 12개의 정(지금의 동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였다. 가정동은 ‘천대전정’이었다. 해방 후 다시 가정동이 되었으며 ‘윗밭’, ‘아랫밭’, ‘돌록골’,

‘싱아고개’와 같은 자연부락이 형성되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8월15일부로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인천부는 인천시로 개칭되었다. 1968년 인천시는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구제(區制)를 시행하였고 이후 북구에서 서구가 분구 되었으며 현재의 가정동(1.2.3)으로 지명을 유지하고 있다.

가정동으로 지명이 정해진 것은 조선 개국공신 중에 한사람인 숙위공(肅魏公) 조반(趙胖)이 정계에서 은퇴하고 그 당시 부평부 석곶 바다가 보이는 동산 위에 별장을 짓고 머물렀다. 그 별장이 석호가정(石湖佳亭)이다. 이후 조반의 둘째 아들 조서강(趙瑞康 ; 1394~1444)도 50세에 현직에서 물러나 이곳 별장 가정(佳亭)에서 은거하며 유유자적 하였다. 이곳 은 경치가 아름다워 안평대군(安平大君), 정인지(鄭麟趾), 유의손(柳義孫) 등 당시의 명사들이 자주 내왕하면서 지었다는 시 13수가 전해지고 있다. 세종은 누차에 걸쳐 벼슬길에 나오기를 청했으나 나오지 않자 화공을 보내 그의 거처인 가정(佳亭)을 그려 바치게 했다. 안평대군은 석호가정별업지도(石湖佳亭別業之圖)에 가정 시가(詩歌)와 그림을 모아 화첩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가정동은 조반의 별장 석호가정(石湖佳亭)에서 가정(佳亭)을 취해 지명으로 정해졌다.

2. 가정동의 문화유산



그림26 가정동 문화유산 분포

1) 가정동 유적 I

구석기시대~조선시대. “가정동 유적 I”은 인천시 서구 가정동 289-2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북쪽에는 북망산(해발 101m)이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98번 지방도가 남북 방향으로 지나간다. 가정동 유적 I 발굴은 2008년 1월 (재)한국국방문화재연구원에서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사업지역 내에서 가정동 시굴조사지역 1개소와 가정동 추정매장문화재 지역 1개소가 확인 되었으며, 이에 대해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각각 시굴조사와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서해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의뢰받아 2016년 1월16일 발굴 조사에 착수하였다. 발굴조사 전체 면적은 3,382㎡ 이다.

발굴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고토양층, 삼국시대 주구토광묘, 조선시대 이후 건물지, 수혈주거지, 숯가마, 소성유구, 수혈유구, 석축유구, 등의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다.

물은 구석기시대 고토양층에서 타제석기가 출토 되었으며, 삼국시대 초기 주구토광묘에서 단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조선시대 이후 건물지 및 주거지 등의 유구에서는 도기류, 자기류, 기와류, 금속제품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인천 가정동유적 I 은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다양한 시기의 유구가 확인되는 유적임을 알 수 있다. 구석기시대는 유물의 출토량이 매우 적어 석기의 분포상황을 정확히 확인 할 수는 없지만, 인천지역을 포함한 중부 서해안지역의 구석기시대 고토양층 양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삼국시대 초기 주구토광묘는 인접한 곳에 위치한 인천 연희동 유적의 분구묘와 더불어 경기 서해안지역 일대의 마한지역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가정동 유적Ⅱ

구석기시대~조선시대. 인천 “가정동 유적Ⅱ”는 행정구역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75-18 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유적은 북쪽으로 해발101m의 북망산과 맞닿아 있으며, 동북쪽으로 350m가량 떨어진 곳에 천마산(226m)이 위치하고 있다. 유적에서 서쪽으로 1km 떨어져 심곡천이 동서방향으로 흐르며, 서쪽으로 6.2km 떨어진 곳에 서해가 위치한다.

유적은 가정오거리를 중심으로 주택과 소형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이다. 서쪽과 남쪽 일대는 평탄지로 도심지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사업에 따른 문화재의 일환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가정정' 주변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후 2008년 3월에 (재)국방문화연구원에서 인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지역 내 매장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업지역내에서 가정동 시굴조사지역 1개소와 가정동 추정매장문화재지역 1개소가 확인되었으며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각각 시굴조사와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2월 10일까지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에서 가정동 추정매장문화재지역 중 동쪽 일부구간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고토양층이 확인된 5지점과 추가 3지점의 일부는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가정동 추정매장문화재지역의 서쪽 구간에 해당하는 가정동 174번지 일원에 대한 입회조사가 (재)서해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안정된 층위양상과 백자편 및 기와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표본조사에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이상의 지표조사 및 입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지역 중 문화재의 유존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표본조사(60,025㎡)와 시굴조사(26,615㎡)를 실시하도록 조치되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재)서해문화재연구원에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이후 단계적으로 표본·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과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소성유구·구상유구·수혈유구 등 총 3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에서는 몸돌·망치돌·찍개·긁개·격자·조각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으며 청동기시대 주거지역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무문토기·반월형석도·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이 외에 조선시대와 근대 유구에서 도기편과 자기편·동전·철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은 분포 범위가 넓지 않으나 중서부 해안지역의 구석기시대 연구에 좋은 자

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경우 최근 서해안 일대에서 확인된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비교분석을 통하여 중서부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가정동 구석기 유물

구석기시대~조선시대.

(1) 가정동 유적 I 지역의 구석기 유물

가. 고토양층 1 지점

고토양층 1 지점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89-2번지 “가정동 유적 1 지역” 일원의 최남단에 위치한다. 황갈색 점토층에서 석영재 몸돌 1점이 출토되었고, 암갈색 점토층에서 토양찌꺼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몸돌·긁개·격자가 있다.

나. 고토양층 2지점

고토양층 2지점은 가정동 유적 1 지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는 층인 황갈색점토층이 확인되었고, 하단층인 암갈색 점토층에서 토양찌꺼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 가정동 유적 II 지역의 구석기 유물

가. 구석기 1 지점

구석기 1 지점은 “인천 가정동 구석기 유적 II” 지역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75-18번지 일원에서 남쪽에 해당한다. 시굴조사 1구역에서 석영제 석기와 고토양층이 확인되어 발굴조사로 전환된 지역이다. 조사결과 총 1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유물포함층이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1유물포함층과 제2유물포함층에서 몸돌·망치돌·격지·조각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나. 구석기 2 지점

“인천 가정동 구석기 유물 II” 지역의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시굴조사 2구역에서 타제석기가 확인되어 발굴조사로 전환된 지역이다. 조사 결과 11개 층위가 확인되었으며, 제1유물포함층과 제2유물포함층에서 석영맥암 계통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3) 가정동 구석기 유물 출토 의미

인천지역에 보고된 구석기시대 관련 유적으로는 인천 검단지구·김포 장기지구 등에서 조사된 유적이 있다. 인천 검단1지구에서는 제4기 층인 고토양층에서 ‘찍개’가 수습되었고, 불로지구 3구역에서도 타제석기가 출토되었으며, 원당지구 4구역의 구석기시대의 문화층에서 찍개·밀개·굵개·몸돌·격지 등이 수습되었다. 이 외에도 문학동 선사유적에서 ‘찍개’ 1점이 수습되었고, 조사지역 북쪽의 김포시에 김포 장기지구·김포 양촌산업단지·김포 신곡3지구 등지에서 구석기 문화층과 타제석기가 출토된 바 있다.

인천 가정동유적 I·II 지역에서도 구석기시대 문화층의 확인과 함께 소량의 타제석기들이 출토되었다. 향후 인천 서구 및 김포지역 일대에 구석기시대 유적이 추가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서부지역의 구석기 유적과 경기만 일대의 구석기 유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4) 가정동 유물산포지

구석기시대~조선시대.

(1) 가정동 유물산포지 1

고려시대의 유적이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27, 28, 29 일대이다. 북망산의 남쪽 능선의 끝부분에 서부 중앙교회가 있다. 교회 건물의 서쪽 주변에서 녹청자편과 요벽(窯壁), 도자기편, 자기편 등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사적 제211호인 인천 경서동 녹청자요지에서 수습된 유물과 매우 유사하다. 교회를 조성하면서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2) 가정동 유물산포지 2

삼국~조선시대 유적이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30임, 31임, 64임, 72임, 64, 36, 38, 55, 54임, 42임, 43임 일대에 위치한다. 북망산의 서쪽 사면 경작지 일대로 북망산과 구 해안선 사이에 있는 단구상의 충적 지대이다. 유물산포지의 일부는 경작지의 조성과 가좌-경서동간 도로개설 공사 등에 의해 빠르게 훼손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타날문 토기편과 백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5) 가정포대지

조선시대. 가정포대는 연희전에 소속되어 있던 6~8개의 포대 중 하나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9-1번지 봉우재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에서 가정오거리 방향으로 들어오는 것골(심곡천)을 방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대가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포좌의 방향은 서남방을 향하여 인근의 포대와 교차사격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최



사진65 가정포대지

근까지 석축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석축은 남아있지 않고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및 운요호 사건을 겪으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한 조선의 조정에서는 서해안의 방비를 서둘러 1879년(고

종 16) 인천에 화도진을 설치하고, 부평에는 연희진을 설치하였다. 일명 용의 머리 혹은 용두산이라고 불리는 지점이며 이에 따라 용두포대라 불렀다고도 한다. 부평 연안에는 연희포대와 원창동, 가정동에 포대가 있었다고 전해오나 현재 찾기가 어렵다.

6) 축곶봉수



사진66 축곶봉수

조선시대. 축곶봉수는 인천시 가정동 산 54번지 해발 103m인 북망산 북쪽 79.2m의 나지막한 구릉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시대 제5거 직봉노선의 연변봉수이다. 축곶은 이곳에 싸리나무가 무성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쪽으

로는 바다에 인접하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꾸준한 간척사업으로 지금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되었으며, 동쪽은 305번 지방도를 사이로 천마산(226.5m)과 마주하고 있다.

봉수에서 남쪽으로 약 350m의 거리를 두고 북망산이 위치하는데, 이를 중심으로 해발 100m 내의 나지막한 구릉이 남북으로 연이어져 있다. 동

쪽으로는 천마산으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곤란한 상태이나, 서쪽으로는 서해 연안에 인접한 까닭에 멀리까지 조망이 가능한 곳이다. 봉수는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양지초등학교의 남쪽 정면에 위치하는데 북쪽 하단부의 송화학습장에서 10분 정도 올라가면 도달할 수 있다. 축곶봉수는 원래 고려시대 왜구방어를 목적으로 축조되었던 해안 연변봉수인 까닭에 단봉의 석축 연대(煙臺)와 주위 타원형 방호벽을 갖추고 있다. 연대 상부에는 충청·경상지역의 일부 봉수에서 확인되는 방형 연소실이 북쪽으로 치우쳐 잔존하고 있다. 방호벽 내 동북쪽으로는 과거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 봉수의 거화와 방호에 필요한 각종 비치물자를 보관하였을 창고로 추정되는 소규모의 평지가 있으나 현재 이곳은 다수의 무연고 민묘가 안장되면서 관련된 유구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봉수에 대한 최초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경기 부평도호부에 속한 축곶봉화는 부의 서쪽에 위치하여 남쪽으로 인천 성산(문학산), 북쪽으로 김포 백석산에 응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 후 편찬된 각종 변통론에도 불구하고 용도 전용에 따른 폐단으로 인해 운영을 하다 말다를 거듭하다가 1894년(고종 31) 현대적인 전보총신의 등장으로 인해 전국 8호 봉수가 폐지되면서 축곶봉수도 함께 폐지되었다. 봉수제의 폐지 후 축곶봉수에 대한 해방 전의 기록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8)와 일제강점기 발간연대 미상의 『봉수조사표』에 “축곶산은 일명 봉현(峰峴)이라고 하며 부내면 봉현리(鳳峴理)에 있다.”의 짧은 기록이 남아 있다. 『문화유적총람』(1977)에 ‘축곶산봉수지’ 명칭으로 인천시 북구 가정동 봉화현에 있었던 봉수로만 소개할 뿐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나 현황설명이 없으며 이후 『한국의 성곽과 봉수』(1990)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여 놓았을 뿐이다.

7) 가정지(佳亭址)



사진67 가정지비

조선시대. 가정지(佳亭址)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456번지에 있으며 조선조 개국공신인 조반(趙胖, 1341~1401)의 별업, 즉 일종의 별장이 있던 곳인데, 현재는 그 터만 남아 있다.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 고적조에 “가정(佳亭)이 서곶면에 있는데 복흥군 조반의 별업이다” 고 기록하고 있다. 조반은 조선 정종(定宗) 2년(1400)에 이 곳에 별업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이 외가(합천이씨)의 고장이기 때문이다.

조반은 고려 말 12세의 나이로 아버지를 따라 연경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벼슬을 하였다. 귀국 후에도 사은사로서 명에 몇 차례 왕복하기도 하였고, 조선 개국에 참여하여 개국공신 2등으로 복흥군에 봉해지기도 하였다.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에 따르면 조반의 아들 조서강(趙瑞康)이 이 조참판을 그만두고 말년에 이곳으로 내려와 머물렀다. 세종(世宗)이 누차 다시 출사토록 소환하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으므로 서공을 보내어 그가 사는 곳을 그림으로 그려서 바치게 했다고 한다. 안평대군(安平大君)은 그 시와 그림들을 모아 화첩을 만들어 태종에 바치도록 하였다.

현재 가정지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원래 마을 안 동산 위에 있던 것을 도시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평지로 변하여 그 지점을 찾아 비를 세웠다고 한다.

참고문헌

- 『인천의 지명유래』, 인천광역시문화예술과, 1998.
- 이훈익, 『인천지명고』, 仁川地方郷土文化研究所, 1993.
- 『인천 가정동 유적 I』 서해문화재연구원, 2016
- 『인천 가정동 유적 II』 서해문화재연구원, 2018
- 「인천 루원시티(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문화재 표본·시굴·발굴조사 보고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서해문화재연구원, 2018.
- 『인천서구문화원 향토지 16 인천 서구 마을誌 2. 남서곶』,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8
- 『서구사』, 인천광역시 서구 2014년
- 『인천 축곶봉수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인하대학교 박물관, 2004.

XIV.



XIV. 신현동

1. 신현동의 연혁과 지명

신현동(新峴洞)은 『호구총서』에 지금과 같은 신현리(新峴理)로 등재되어 있다. 석남동과 가정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지난날에는 새오개마을, 큰말, 작은말로 나누어져 있었다. 신현동 역시 법정동 변천 과정은 이웃 마을들과 비슷하다.

신현동도 가정동처럼 지난날 석곶면이었다. 석곶(石串)은 돌곶이의 한 자음 표기이다. 돌곶이는 오늘의 가정동, 원창동, 신현동, 석남동, 가좌동을 통틀어 부르던 지명이었다. 석곶면 소재지가 어디였는가는 불확실하지만 신현동이었던 것으로 이훈익의 《인천지명고》는 추측하고 있다.

신현리는 1914년 부천군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40년 인천부에 편제됨과 동시에 일본식 지명인 현무정(玄武町)으로 개정되었다. 1946년 일본식 지명 변경에 의하여 다시 신현동으로 개칭되었다.

부평도호부 때 마을로 들어오기 위하여 넘어야하는 고개가 세 개 있어서 ‘세고개’라고 불리던 것이 ‘새고개’로 변했다는 설과 1884년(고종 21) 원창동에 세곡을 운송하기 위하여 포리항(浦理港)을 만들었는데 이 때 세곡을 서울까지 육로로 실어가기 위하여 새로 만든 고갯길을 ‘새고개’라 불렀다는 설이 있다. ‘새고개’를 한자어로 표현하여 신현(新峴)이라고 한 것이다.

2. 신현동의 문화유산



그림27 신현동 문화유산 분포

1) 신현동 회화나무

(1) 위치와 수령

신현동 회화나무는 인천시 서구 신현동 새오개로 68번길에 위치하고 있다. 염곡로와 원창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신현동 회화나무 안내 표지판’에서 동남쪽 약 200m 지점이다.

회화나무는 표고 600m 이하의 마을 주변에 많이 심고 낙엽활엽교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일본에 분포한다. 잎은 길이 2~6cm, 너비 1.5~2.5cm이며 황백색 꽃이 8월에 피는데 꽃잎의 크기는 약



사진68 신현동 문화유산 분포

1.2~1.5cm이다. 나무와 잎의 모양이 보기가 좋아 예부터 학자들이 서당이나 서원 등지에 즐겨 심었기에 학자나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이 나무를 문 앞에 심으면 잡귀의 접근을 막아 준다는 속설도 있다. 신현동 회화나무는 높이 22m, 둘레 5.3m, 수령이 약 500여년 된 나무이다.

(2) 서구 유일의 천연기념물

삼국~조선시대 유적이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30임, 31임, 64임, 72임, 64, 36, 38, 55, 54임, 42임, 43임 일대에 위치한다. 북망산의 서쪽 사면 경작지 일대로 북망산과 구 해안선 사이에 있는 단구상의 충적 지대이다. 유물산포지의 일부는 경작지의 조성과 가좌-경서동간 도로개설 공사 등에 의해 빠르게 훼손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타날문 토기편과 백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신현동 회화나무는 서구 유일의 천연기념물로 문화적·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받아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15호로 지정되었다. 2024년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중 회화나무는 전국에 다섯 그루이다.

(3) 유래와 사연

신현동 회화나무는 500여년 동안 신현동의 역사를 굽어 본 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원래 이 마을의 당산인 도당산(현 원신타널 지역)에 있다가 큰 홍수로 인하여 마을로 떠 내려와 지금의 위치에 심어졌다고 하는 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 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바닷물에 떠 내려와 심어졌다고 하는 설도 있다. 이로 보아 신현동 회화나무는 현재의 위치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옮겨져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신현동 회화나무의 꽃피는 모습을 통해서 한 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살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회화나무가 꽃이 필 때 윗부분부터 꽃이 피면 풍년이 들고, 반대로 아랫부분부터 꽃이 피면 흉년이 든다는 것이다.

신현동 회화나무 일대에 파평윤씨들이 오래 전부터 모여 살았다. 자연스럽게 파평윤씨들이 회화나무(당시는 회나무라 불렸다)를 관리하고 보호 하였고 이후로 회화나무를 윤씨네 나무라고 인식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파평윤씨 가문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있다. 오래전에는 회화나무 앞으로 논이 많았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가 회화나무에서 진행되었다.

신현동 새오개마을의 당제는 도당산에서 도당제를 드리고, 신현동 회화나무 아래 제단에서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고 한다. 이러한 제의에서 도당산은 큰 당산의 역할을 하였고, 신현동 회화나무는 작은 당산의 역할을 한 것이다. 제의는 6·25 전쟁 이전까지 이어져왔으니 그 맥이 끊겼다가 1980년경부터 다시 당제를 올렸다. 신현동 회화나무에서 올리는 당제는 매년 신현동 경로당이 주관하며 경로당 창립일인 양력 5월 28일에 올리고 있다. 2024년부터는 서구문화원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4) 당제

2024년 5월28일 진행 된 “신현동 회화나무 당제”는 신현동동우회와 서구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체험축하공연,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본행사, 축하공연, 사진촬영,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구문화원에서 준비한 체험 ‘회화나무 머그컵 만들기’ ‘두레도담’ ‘투호’ ‘비석치기’ ‘죽방놀이’가 행사 전 이루어져 주민들의 참여 속에 즐겁게 진행되었다.

축하공연은 서구에서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함께울림” 사물놀이단(단장. 이영희)의 길놀이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이어서 회화나무아래서 앓은반공연을 했다. 앓은반공연은 경상남도 삼천포에서 전래 되어오던 영남사물놀이로 연주 되었다. 흥겹고 힘찬 남성적인 풍요를 기원하는 가락에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였다. 다음으로 서구문화예술인회 무용협회에서 처용무를 공연하였다.

옛날에는 농사가 잘되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면 지금은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있다.

[축문]

維歲次 甲辰四月甲寅朔 二十八日辛巳 新峴洞民代表
敢昭告于 山靈地神 今以 洞民一洞 擇日祭奠
謹以 酒果脯醢 魚肉 餅清性幣 奠獻 神基保佑 祈願
住民保健 家和睦 憂患逐滅 災害防止 農藝所得增大 企業發展 牧
畜繁殖 萬事亨通 添原
國家安保 南北統一 伏惟尊靈 勿兼小誠下鑑
尙饗

갑진년(2024) 사월갑인삭, 이십팔일 신사일에 신현동대표가 감히 산령의 신께 고합니다.

지금부터 동민 모두가 날짜를 정하여 삼사 맑은술과 과일, 포와 식혜, 생선과 고기, 떡과 청주 등을 올리고 제사를 지내오니 신께서 우리 주민 모두를 지키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고, 집집마다 화목하기를 기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없애주시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농사짓는 이는 소득이 크게 늘 수 있게,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가족은 번식할 수 있게 모든 일에 형통을 기원합니다.

나라의 안보와 남북통일을 덧붙여 기워드리며 엮드려 바라옵니다. 흠향하시옵소서.

정덕(正德) 3년(1508) 9월 24일 통사랑 권지 승문원 부정자 반석 평은 쓰다

참고문헌

-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이야기』,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4.
- 『인천서구문화원 향토지 16 인천 서구 마을誌 2. 남서곶』,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8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서곶편

발 행 일	2024년 12월
발 행 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발 행 인	정군섭(인천서구문화원 원장)
기 획 총 괄	서덕현(인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기 획 운 영	김영준(인천서구문화원 서구학연구팀장)
집 필	허우범(인천서구문화원 부원장) 추교찬(파독근로자기념관 학예사) 이성재(인천도시공사 차장) 손민환(부평역사박물관 학예사) 김영호 손성광 김자영 이라헬
인 쇄	로컬웨이브인천(010-6454-9593)

ISBN 979-11-990641-9-5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동별로 보는
서구의 문화유산

서꽃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9 791199 064195

ISBN 979-11-990641-9-5